

P.I.R.A.M 국어 기출문제집 문학편 (下)

-11학년도~15학년도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미 땀싸한 냄새가
코를 땀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 메아리가 되어
되 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피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뺨 두 뺨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
나는 ㉣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 김춘수, 「강우(降雨)」 -

(나)

어두운 방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시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그곳 바다인들 어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계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는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2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 ②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 ④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06

그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꼬두메를 찾아 내려가고 있는 참이었다. 허황하기조차 한 그녀의 넋두리를 좇아 이렇듯 추운 한겨울밤을 완행열차에 흔들리며, 떠나온 지 십삼 년이 넘는 고향으로 향하게 되리라고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처 상상조차 못 했던 것이다. 이 느닷없는 귀향길은 어찌 보면 어처구니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결행된 셈이었다. 아내의 말마따나 제정신이 아닌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바로 이날 오후다. 휴일이 아닌데도 그는 담배꽂초만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아 가며 종일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다. 몸이 불편해서 출근하지 않는 줄로만 여겼는지, 아내는 되도록이면 그를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눈치였다. 이날 아침 그는 기어이 사표를 써서 집 앞 우체통에 넣었던 것이다. 몇 푼 안되는 퇴직금은 고사하고라도 몇 달째 밀린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무엇보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동료들의 누렇게 뜬 얼굴들을 대하기가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다. 결국 그는 다시 실업자가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으로 꼭 두 번째였다. 신문사를 나온 후, 오 년 동안의 그 ㉠ 공백 기간에 겪었던 처참함을 그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아내는 다시 예전처럼 방 한 칸이 달린 구멍가게 자리를 구하기 위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변두리를 돌아다닐 수도 없으리라. 그나마 남아 있던 쥐꼬리만 한 돈은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전세금을 줄여 가며 변두리로만 이사를 다니다가 급기야 월세방 처지로 주저앉게 된 지도 벌써 이태째였다. 하지만 그는 이젠 도저히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용기도 아니,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사라져 버리고 만 듯한 느낌이였다.

놀라우리만큼 자신이 허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즈음에야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면 그것은 어머니의 몰락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가장 확실한 선물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의 그 넓고 미더운 그늘이 머리 위에서 견히어져 버리고 난 후, 그는 ㉡ 햇볕 속으로 나온 음지 식물처럼 삼시간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다. 늘날한 콧물을 후룩거리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수없는 방황을 치러 왔지만, 그때마다 그를 단단히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준 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던 것이다. 오 년의 실직 기간 동안, 거의 날마다, 그것도 얻어 마신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와 대문 앞에서 허물어지듯 쓰러져 버리곤 하던 그가 그래도 최후의 고집스런 용기만은 요행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어머니의 그 ㉢ 변함없는 그늘을 은연중에 믿고 있었음으로 해서이리라. 하지만 이젠 어머니의 그 야원 손길마저도 아무런 ㉣ 기적을 베풀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였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 절망의 심연으로 까마득히 가라앉아 가고 있는 느낌이였다.

(중략)

아아. 이 눈 속에서 어머니는 혼자 어디로 가신 것일까. 찬우야이. [꼬두메]로 핑 가자이. 불길한 주문만 같던 어머니의 음성이 귓전에서 맴을 돌았다. 정말, 어머니는 기어코 꼬두메를 찾아가시겠다고 얼토당토않게서리 홀로 길을 나선 것일까. 온몸에 하얗게 눈을 맞으며 어디론가 하염없는 걸음을 옮기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

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 속의 마을이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젠 더 이상 아무도 그곳을 기억해 주지 않는 이 땅을 떠나, 그 과거의 이름들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을 또 다른 세계를 찾아 길을 나선 것일까. 그렇다면 그 세상은 오직 어머니 혼자만 아는, 당신만의 소중한 세계일 터였다. 거기엔 어머니가 한시도 잊지 못했던 그리운 사람들과 정겨운 이름들이 예전 그대로 살아 있을 것이었다. 한쪽 눈을 못 보는 아버지와 착한 형, 그리고 어찌면 어린 시절의 그의 옛된 얼굴도 그 가난한 식구들 곁에서 함께 굳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니야. 그러나 그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버렸다. 꼬두메는 이미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망각의 땅일 뿐이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사실을 다만 어머니 혼자서만 아직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찾아야 해. 어머니를 찾아내야만 해.

그는 마침내 흐드러지게 쏟아져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잣고개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차츰 눈송이가 굵어져 가고 있었다. 은빛, 세상은 온통 은빛이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

28.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임철우의 소설 「눈이 오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여로(旅路)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작중 인물의 성격 창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① '그'가 귀향 여행을 충동적으로 결행한 것으로 설정하여, '그'의 성격이 즉흥적이면서도 낙천적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② 십삼 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찾아가도록 하여, '그'가 지금까지 현실과 타협하면서 잘 적응해 왔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③ 겨울밤 완행열차를 귀향 수단으로 택해 성찰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해 보도록 하였다.
- ④ 귀향 과정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모습을 제시하여, '그'가 사려 깊지 못하고 부주의한 인물이었음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 ⑤ 귀향하는 날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가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로 변모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30. [꼬두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꼬두메에는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다.
- ② 꼬두메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 ③ 꼬두메가 이 세상에 없음을 '어머니'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 ④ 꼬두메는 '그'가 가족과 함께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곳이다.
- ⑤ 꼬두메는 '어머니'가 찾아가고 싶어 하는 그녀의 소중한 세계이다.

31. 문맥상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실직했던 기간
- ② ㉡: 세상의 따뜻한 인정
- ③ ㉢: 한결같은 사랑과 보호
- ④ ㉣: 삶을 지탱해 주거나 도와줌
- ⑤ ㉣: 극심한 무력감과 좌절감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鵑)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죽
 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낸 널식만정 에혈*질 번 하괘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에혈 :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나)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잘 하며 섬은 누가 엮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맡아 하라
 가을건이 한 후에는 집짓기를 아니하라
 집은 내 지으마 ㉠ 율은 네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던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볕을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쪼개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옥 같은 ㉡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 살릴 살자 하니
 엇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 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였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 새끼 한 사리 다 꼬겠도다.

- 허전, 「고공가(雇工歌)」 -

* 호수 : 고공(머슴)의 우두머리.

(다)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이다. 어족(魚族)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곤어, 바다 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외 여러 신하이요,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종류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이다. 그 밖에 크기가 한 자가 못 되는 것은 수국(水國)의 만백성들이다. 그 상하에 서로 차서(次序)가 있고 대소(大小)에 서로 거느림이 있는 것은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

드시 ㉞를 내려 이어주고,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말릴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일렁이여 덮어 주니, 그것이 물고기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씹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가리, 드렁허리,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것을 사로잡는다. 진실로 그러한 행위를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은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道)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피하는 것이 사람이 물고기를 슬피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 이옥, 「어부(魚賦)」 -

3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 ③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특정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0.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문맥적 의미가 ㉞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1.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가)의 '두터비', '파리', '백송골'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닭은 때를 알리고 개는 도적을 살피고 소 말은 큰 구실 맡겨 다 기름 직하거니와 저 매는 꿩 잡아 절로 바치든가 나는 몰라 하노매라.
- ②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곁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쏘냐 아마도 걸 희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 ③ 나비야 청산 가자 벌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앞에서나 자고 가자.
- ④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 올까 하였더니 봉황은 아니 오고 오작만 날아든다 동자야 오작 날려라 봉황 오게 하리라.
- ⑤ 장공에 떴는 솔개 눈 살핌은 무슨 일인가 썩은 쥐를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는구나 만일에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 될까 하노라.

4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공가」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자는 의도에서 지어진 노래로,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관료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① '고공'이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 것으로 보아 조정에는 불화가 있었군.
- ②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료 사회에는 불신이 팽배했군.
- ③ '나'는 외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적의 재침략을 걱정하고 있군.
- ④ '나'가 집안의 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는 인물이군.
- ⑤ '고공'이 '옷 밥'만 탐했다는 것으로 보아 관료들은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욕만을 채우고자 하였군.

43. (다)의 논지를 긍정하는 신하가 군주에게 상소문을 올린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은 삼가 성상께 글을 올리옵니다. 성상의 바른 다스림에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살아갈 수 있었사옵습니다. ① 성상께서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하고 계시옵니다. 하지만 성상의 뜻과는 달리 ②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사옵니다. 또한 ③ 지방관들은 백성을 사사로이 부리고 있으며, 그 밑에 있는 서리나 아전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사옵니다. 이에 백성들은 죽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사옵니다. ④ 백성이 있어야 성상께서도 군주가 되시옵고, 벼슬아치들도 살 수 있는 것이옵니다. 하오니 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창고를 열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이옵니다.

전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태수 설인수는 원수(元帥)를 가까이에서 모셨으며, 원수는 설인수인 줄 아나 인수는 경작이 원수가 되었음을 생각지 못하더라. 원수가 아는 체하고자 하되, 군영(軍營)이 요란하여 사사로운 정을 펴지 못하였더니, 이제 변왕 남곽을 평정하고 군영이 고요한데 인수 홀로 모셨더라. 원수가 저의 물러가지 않았음을 보고 시동을 불러 당상으로 청한대, 태수 사양하여 오르지 않거늘 원수가 친히 이끌고 가로되,

“인수 형이 능히 경모를 모르오?”

“소관(小官)이 정신이 밝지 못하고, 일면식이 없으니 알지 못하겠사옵니다.”

원수가 잠소(潛笑) 왈,

“형이 과연 눈이 무디다 하리로다. 옛날 금주에서 소 먹이던 목동이었다가 양 승상의 둘째 사위가 된 이경작을 모르오?”

태수가 생각 밖이라. 깨닫지 못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소관의 동서러니, 금주를 떠난 지 벌써 십일 년이옵니다.”

“십일 년 못 보던 경작이 곧 나이니 형은 모름지기 의아치 마오.”

설 태수가 어지러운 듯, 취한 듯하여 오래 말을 못 하더니 이에 자세히 보니 완전한 경작이라. 놀라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지위를 잊고 손을 잡아 급히 이르되,

“경작 형! 꿈이오? 생시오?”

원수가 웃으며 왈,

“형은 놀라지 마오.”

하고 인하여 서로 잔을 들어 유쾌히 술을 마시며 정을 펼새, 태수가 매양 원수의 대덕과 넓은 도량, 기이한 풍도를 우러렀더니 이날 자리를 나란히 하여 잔을 날리며 별회를 베풀니, 마음에 세상일을 가히 헤아리기 어려움을 탄하더라.

원수가 문왈,

“외방에 있는 지 벌써 십일 년이라. 처형은 평안하시오?”

설 태수가 답소(答笑) 왈,

[A] “나는 비록 약한 남자이나 조강지처를 무단히 버리지 아니 하니 몸이 편하여 자녀를 갖추어 두었거니와, 형은 약한 부인을 무단히 버리고 십일 년에 이르도록 한 번 편지를 부치는 일이 없었소. 이제 몸이 으뜸 벼슬로 부귀영광이 비길 곳이 없고, 어진 덕과 넓은 덕을 추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되, 오직 빈 방의 약한 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박덕함이 심하여 장차 약한 부인이 몸을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 가장 어둡고 무심한 장부라. 나는 비록 벼슬이 낮아 형을 모시고는 있으나 처자를 편히 거느리니 가히 형보다 낫다고 이르리로다.”

하고 대소한대, 원수가 또한 웃고 왈,

“형이 어찌 괴이한 말로써 나를 조롱하오? 가장 가소롭도다. 그러하나 금주의 처가는 평안하시오?”

태수 왈,

“집안은 평안하나 형의 부인이 병이 위중하여 속수무책 조석으로 목숨을 빈다 하니 형이 비록 몸이 영귀하나 무엇이 즐거우리오?”

원수가 듣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왈,

“과연 형의 말이 옳소?”

“비록 농담이라도 어이 큰 말에 허언을 하리오?”

“목숨의 길고 짧음과 부귀빈천은 하늘에 달렸으니 인력으로 어찌 하리오?”

“형이 곧 경사(京師)*로 가리니, 길이 금주로 지날 것이니 들러 감이 어떠하오?”

“부모 묘소가 게 있으니 들르지 아니리오?”

“어느 때에 경사로 향할 것이오?”

“백성이 어지러웠으니 서너 달 더 머물러 위로하고 가려 하오.”

“내 관아가 비록 작으나 수일 후 형을 전송하리니 벼슬이 높다고 사양하지 마오.”

원수가 소왈,

“본디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라, 주는 것을 사양할 리 있으리오? 먹는 양을 알아서 큼직이 준비하오. 내 당당히 가겠소.”

태수가 소왈,

“벼슬이 높으니 이제 그 술하게 자던 잠과 둔하게 많이 먹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하오.”

원수가 대소 왈,

“금제한 후는 더 많이 먹히더이다.”

태수가 소왈,

“내가 양식이 부족하여 풍성하지 못하니 형의 양에 차게 하려면 필연 죄를 면치 못하리니 올 적에 말총으로 창자를 줄라매고 오오.”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고 가겠소.”

“그럴진대 아예 오지 말라 할 것이오.”

“국법이 본래 나 같은 사람을 각 도에서 영접하고 잔치하고 공경하고 관대하라 하였으니 적게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이 대소하고 설 태수 돌아와 부인 난주를 대하여 이원수의 전후 일을 일일이 전하고 기특히 여김을 마지않으며, 돌아가신 장인의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난에 못내 감복하더라.

- 작자 미상, 「낙성비룡(洛城飛龍)」 -

* 경사 : 나라의 수도.

47.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48. <보기>의 ㉠~㉤ 중,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낙성비룡」은 조선 왕실에서 향유되었던 낙선재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영웅소설인 「소대성전」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주인공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신이한 태몽을 가지고 탄생한다.
-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생한다.
- 인물됨을 알아보는 장인 될 사람을 만난다. …………… ㉠
- 한때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을 보인다. …………… ㉡
- 장모의 구박으로 처가를 나온다. …………… ㉢
- 수련을 거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 ㉣
- 아내와 해후하여 행복하게 산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49.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처자식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어질고 넓은 상대방의 인품을 칭송하고 있다.
- ③ 처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④ 손윗사람으로서 상대방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벼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당당히 말하고 있다.

50. 윗글에 드러난 상황을 한자 성어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모가 11년 만에 돌아온 것은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경모와 설 태수가 다시 만난 것은 오월동주(吳越同舟)라고 할 수 있어.
- ③ 경모가 설 태수에게 국법을 운운한 것은 정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이야.
- ④ 설 태수가 경모를 보고 놀란 것은 경모가 환골탈태(換骨奪胎)했기 때문이야.
- ⑤ 설 태수와 경모가 서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대표적인 예야.

(가)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객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

(나)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삐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백석, 「적막강산」 -

* 벌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 늙은 장끼.

(다)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올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술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랜시고
㉢ 두어라 우로(雨露)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실 하는지고
㉤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 이신의, 「단가육장」 -

* 부근 :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 들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14.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도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함.
- ② '오라는 곳'이 없음.
- ③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함.
- ④ '기러기'와 떨어져 있음.
- ⑤ 갈 곳 없이 '열십자 복판'에 서 있음.

15.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1행은 '벌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벌'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 ③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 ⑤ 5연은 '산'과 '벌'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리한다.

16.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의 '정주 관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 ④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 ⑤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7. (다)의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 <보 기> —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1장 ② 2장 ③ 3장 ④ 5장 ⑤ 6장

하루는 승상이 심사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홍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오?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듣고는 이불 속에서 데굴데굴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렇거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봉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연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렇거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

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

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흉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

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중략)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즉 허물이 곁에 놓여있고 책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나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 “네가 어이하어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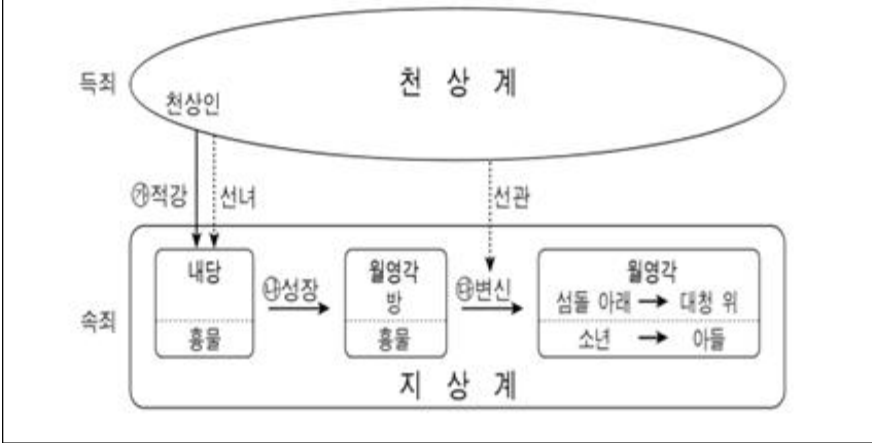
2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김 승상은 홍물의 탄생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 ② 부인은 홍물이 밥을 먹자 근심했다.
- ③ 노복은 홍물을 대하는 부인의 태도를 비웃었다.
- ④ 김원은 흉한 모습이 부모께 걱정을 끼쳤다고 여겼다.
- ⑤ 김 승상 부부는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했다.

※ <보기>를 참고하여 22번과 2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주인공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화소를 적강화소(謫降話素)라 한다. 이 화소를 수용한 「김원전」에서 공간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뉘고, 천상계와 지상계는 주인공 김원의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소통한다. 윗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은 주인공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의 성격 때문에 ㉡의 과정에 선관이 개입한다.
- ③ ㉡에서 '밥' 먹기를 통해 홍물은 이름을 얻게 되어 '골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 ④ ㉡의 결과를 비복은 김 승상에게 보고하여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 ⑤ ㉡ 이후,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은 '불초자'라는 호칭으로 구체화된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의 공간 이동은 죄의 대가라는 점에서 주인공이 ㉡에 대해 수동적임을 알 수 있다.
- ② ㉡, ㉢는 ㉠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③ ㉡, ㉢에 대한 부모의 의심은 천상계와 다른 지상계 나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에 김원과 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는 증거물을 통해 부모에게 확인받는다라는 점에서 천상계의 질서는 지상계와의 소통 속에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24. ㉠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 ② 팔목상대(刮目相對)
-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09

[**앞부분의 줄거리**] 궁에서 쫓겨난 평강 공주는 대사와 함께 절로 가던 길에 온달을 만나 결혼한다. 10년 후 온달과 함께 궁으로 돌아온 공주는 온달이 장군이 되도록 돕는다. 온달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나 관이 움직이지 않는다.

공주 : 장군*, 비록 어제까지 장군이 치닫던 별판이라 하나, ㉠ 이제 누구를 위해 여기 머물겠다고 이렇게 때를 쓰십니까? 장군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고구려는 내 아버지의 나라. 당신의 원수를 용서치 않으리라. 평양성에 가서 반역자들을 모조리 도륙을 합시다. 자, 돌아가십시오. (손짓을 한다.)

의병장들, ㉡ 관 뚜껑을 닫고 관을 올려놓은 받침의 채를 감는다.

공주 : 들어 올려라.

올라오는 관. 모두, 놀라는 소리.

공주 :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서 잔악한 반역자들을 살살이 가려내어 목을 베이리라. (공주, 움직인다.)

공주, 시녀, 관, 군사들, 서서히 퇴장. 부장과 장수 몇 사람만 무대에 남는다.

장수1 : (부장에게) 공주의 노여워하심이 두렵습니다.

장수2 : 필시 무슨 기미를 알아보셨음이 틀림없습니다.

부장 :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장수3 : 투구를 벗으라고 하신 것이 증거가 아닙니까?

부장 : 어떻게 알았을까? (둘러보고) 너희들 중에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행여 온전히 상금을 누릴 목숨이 있거니는 생각 말아라.

장수들 : 무슨 말입니까. 억울합니다.

부장 : 그렇겠지. 이것을 문제 삼는다 치더라도 (투구를 벗는다. 머리를 쳐했다. 피가 배어 있다.) 이것이 어쨌단 말인가. ㉢ 이토록 신라 놈들과 싸운 것이 군법에 어긋난단 말인가? (음험한 웃음) 두려워 말라. 공주보다 더 높은 분이 우리 편이야.

장수들 : (비위 맞추는 너털웃음)

부장 : 가자, 평양성으로. 그곳에서 과연 누구의 목이 먼저 떨어지는가를 보기로 하자.

(중략)

장교 : (공주에게) 자, 걸으시오.

공주 : 네가 정녕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느냐?

장교 : 내 말을? 왕명을 받들고 온 사람에게?

공주 : 이놈이 정녕 실성했구나. 내가 돌아가면 어찌 될 줄을 모르느냐? 나는 이곳에 머물기로 하고 이미 아버님께도 여쭙고 오는 길, 누가 또 나를 지시한단 말인가? 정 그렇다면 근일 중에 내가 궁에 갈 것이니 오늘은 물러가라.

장교 : 정 안 가지겠소?

공주 : (분을 누르며) 내가? 말을 어느 귀로 듣느냐? (타이

[A] 르듯) 네가 아마 잘못 알고 온 것이니, 그대로 돌아 가면 오늘의 허물을 내가 과히 묻지 않으리라.

장교 : (들은 채를 얹고) ㉣ 정 소원이라면 평안하게 모셔 오라는 명령이었다. 잡아라.

병사들, 공주의 팔을 좌우에서 잡는다.

공주 : 어머니.

장교 : 편하게 해 드려라.

병사1, 칼을 뽑아 공주를 앞에서 찌른다. 공주, 앞으로 쓰러진다. 붙잡았던 병사들, 서서히 땅에 눕는다.

장교, 손으로 지시한다.

병사2, ㉤ 큰 비단 보자기로 공주의 시체를 싣다.

장교, 또 지시한다.

병사들, 공주를 들고 퇴장. 장교, 뒤따라 퇴장. 공주의 살해에서 퇴장까지의 동작은 마치 의전(儀典) 동작처럼. 기계적으로 마디 있게 처리.

대사 : 공주.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남시다.

온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모두 퇴장한 다음 무대 정면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온다.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

* 장군 : 온달.

* 온모 : 온달의 어머니.

3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주는 장군의 죽음에 반역자가 연루되었다고 생각한다.
- ② 장수들은 부장의 머리 상처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③ 부장은 공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④ 장교는 부장의 명을 받고 왔다고 말한다.
- ⑤ 병사들은 장교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

33.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고전 비극의 형식을 모방하여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 이야기'를 재창작하면서 설화가 지니는 비현실적 요소를 여전히 남겨 놓았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4. [A]를 연극으로 상연하기 위해 두 명의 연출가가 [A]의 첫 장면의 무대 구성을 <보기>와 같이 짜 보았다. 연출 의도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인물의 배치만 고려할 것)

[3점]

— <보 기> —

(가)

(나)

- 무대 구성의 목적은 무대 위에 서게 될 배우들의 위치를 정하면서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임.
- 그림의 숫자는 등장인물이 서는 무대 지역의 중요도 순서임.

- ① (가)에서는 대사를 공주와 가깝게 배치하여 (나)에 비해 대사와 공주와의 친밀도를 더 부각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는 장교를 2번 지역에 배치하여 (나)에 비해 장교가 극적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겠군.
- ③ (가)에서는 장교·병사들과 공주·대사·온모를 좌우로 나누어 배치하여 (나)에 비해 두 집단의 갈등 관계를 더 강조할 수 있겠군.
- ④ (가)에서는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온모를 다른 인물에 가리지 않게 함으로써, 움직이지 않고 사건을 지켜보는 온모의 역할을 (나)에 비해 더 잘 드러낼 수 있겠군.
- ⑤ (나)에서는 병사들을 2번 지역에 배치하여 (가)에 비해 위압감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겠군.

“알겠습니다. 이 일은 사모님, 부사장님, 저만 아는 비밀로 백삼십에 사건을 무마하도록, 실수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뭐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이시다 보니 신중을 기하느라고 조심할 뿐, 이 정도야 간단히 처리할 수 있죠. 저쪽이 훨씬 약하니깐요. 그 처지에 돈 보고 환장 안 하게 됐습니까.”

“사무장도 말 좀 골라 뱉으시오. 같은 말이라도, 환장이 뭐요? 물론 우리 집안 명예와 어머니 명예도 중요하지만, 사무장도 이걸 명심하시오. 운전수네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운전수 쪽 가족 생각이, 이번 일은 돈에 시우 군이 팔린 게 아니라 주인아주머니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운전수 된 도리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뿐이다. 그러다 보니 그 성의 표시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게 되어 은혜를 갚는 느낌이다. 운전수와 가족이 이런 생각을 갖게끔 사무장이 처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돈이란 쓰기 나름이라 잘못 쓰면 오히려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욕까지 먹게 돼요. 운전수 가족에게 최대한 성의를 표하고 그들이 그 성의를 진실로 받아들이게끔 행동하란 말이예요.” 이 선생은 젊은 부사장의 설교조 말을 전성으로 들었다.

(중략)

이 선생이 누누이 들려준 말처럼 시우는 아무리 사태가 불리하다 하더라도 1년 미만 징역에 2년 집행 유예로 나갈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선생이 올린 항소가 고법에서 기각되고 형이 확정되자, 자기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진 듯했고, 사모님은 물론 가족마저도 돈에 눈이 어두워 자기를 속임수에 이용하는 듯하여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종우 형 면회가 있고부터 그는 한결 새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시우야, 일백삼십에서 또 오십만 원을 더 받았어. 네가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백팔십이 된 거야. 네가 우리 가족을 살린 거란 말이야. 그 돈이면 나두 공사판을 그만두구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야간이라도 학교엘 나갈 수 있게 됐구. 참아 줘. 이걸 정말 면목이 없다만, 어떡하니. 그럴 수밖에 없잖니? 그저께 사모님을 만나 같이 네 애길 했더랬어. 전생애 다시 갚지 못할 빚을 내게 졌다면 말이야. 네가 출감하면 운전수든 뭐든 다시 일을 시키겠다고,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시우야, 이 형이 양심을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으로 우리두 성공하여 옛말하구 살자꾸나. 정말 성공하여 남부럽잖게 될 때, 이 피눈물 나는 고생은 그때 가서 위로하자…….”

멀찌감치 선 간수 귀를 피해 귀엣말로 종우 형이 이렇게 말할 때, 두 형제는 함께 울었다. 시우는 검게 탄 형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철창 사이로 굳게 잡은 형의 억센 손이 떨리고 끝내 꺼억거리며 흐느낄 때, ㉠ 시우는 여지껏 침묵한 채 참아 왔듯 몇 달을 참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몇 달 감옥 생활을 이겨 내기로 결심했다.

오늘 아침, 녀 달 동안 ㉡ 집 안방과 다름 바 없는 안착지로 떠나게 되자 까닭 없이 마음이 설레 아침밥도 거르게 되고, 그 게 공복과 더불어 한기를 가중시켰다. 시우는 연방 떨며 다시 중얼거렸다. 정말 겨울은 지금부터이고 고생도 시작인데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눈이 오면 날씨가 포근한 뱀인디 워찌 요렇게 차다냐. 이런 날은 개팔자가 짤이여.”

“글쎄 말이다. 동지도 그름이모 열매 안 있어 새해 아닌가 말이다. 그라모 햇수로 일 년 넘기는 긴데, 헤헤. 그렇게 햇수로 따져서 내보내 준다 카모 난도 출감이 가까운데 말이다.”

도란도란 입김으로 나누는 말소리가 시우 귀에 다습다. 몇 명이 같은 감방에 있게 될는지,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수감될는지 모를 ㉢ 다정한 얼굴을 시우는 눈여겨보았다. 강도·절도·사기·살인, 각각 이마뺨에 눈에 띄지 않는 ㉣ 뿔말을 붙이고 그들은 겨울잠을 즐기는 두더지 꼴로 엉겨 있었다.

“젊은 친구, 이쪽으로 와. 거긴 더 추울걸.”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떨어져 앉은 시우에게 말을 던졌다. 구레나룻 시커먼 그는 토지 사기범이었다.

시우는 빙긋 웃어 보이곤 다시 쇠창살 밖으로 눈을 주었다. 버즘나무 가지에 매달린 고깔 열매가 눈을 맞고 있었다. 시우는 ㉤ 산타클로스 모자가 생각났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쌀밥에 고기반찬을 먹겠거니 여겨졌다. 그리고 형은 지금쯤 눈을 맞으며 저 어디 화곡동이나 봉천동 신흥 주택 지대를 싸들며 식품 벌일 점포를 물색하고 다닐 터였다. 그렇게만 되면 을숙이도 내년이면 ㉥ 맞출 중학 교복을 입고 뽀넬 터였다.

시우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과자며 음료수, 채소, 과일, 각종 일용품이 진열된 상점이 떠올랐다. 점포 이름은 고향 이름 그대로 백암 상회라 붙이겠다고 형이 말했다.

철창을 올려다보던 시우가 갑자기 말 울음소리로 웃었다. 그 묘한 웃음소리를 듣고 동료 죄수들 눈이 그에게 쏠렸다. 개팔자를 이야기한 죄수가 시우를 보며 시큰둥 한마디 했다.

“저건 웃는 게 아니구먼. 웃음도 여러 질이여. 저 상판 봐여.”

- 김원일, 「잠시 눕는 풀」 -

35.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사물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추고 있다.

36.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사장은 기만적인 인물이다.
- ② 시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 ③ 죄수들은 다른 죄수에게 관심을 보인다.
- ④ 사무장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 ⑤ 종우는 시우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37. ㉠의 결과로 나타난 시우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김원일의 초기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의 폭력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권력에 의한 사건 조작 모티프는 약자의 삶에 고통을 가중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위 작품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구도 아래, 가진 자의 음모를 보여 주는 한편, 악의 세계에 짓눌린 사람들의 실존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급박한 생존의 현실을 감내하려는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상황을 부각하였다.

- ① ‘말 울음소리’ 같은 웃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고 있군.
- ② ‘백암 상회’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굴욕적인 현실을 견디게 해 주는 힘으로 볼 수 있겠어.
- ③ 사건 조작 모티프의 설정은 작가가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것이었겠군.
- ④ ‘사모님’이 약속한 배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으로 사람을 거래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어.
- ⑤ 면회소와 신흥 주택 지대의 공간적 대립은 가진 자의 악의적 세계와 그에 짓눌린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 주기 위한 구도라고 할 수 있겠군.

(가)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
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自畫像)」 -

(나)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치거리

[A]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과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①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아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②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

(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서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B]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감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 소지 :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딴’,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낸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 ④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접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A]

㉢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를쏘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모옥 :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 우거진 숲.

(나)

뒷집의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피어 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B]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흘던질 제
 ㉤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
 우랴.

헛글고 싯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귀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C]

- 김광옥, 「울리유곡(栗里遺曲)」 -

* 만호후 :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싯근 :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

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
 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퉈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
 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
 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
 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
 으냐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처
 럼 담박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
 를 내는 격이다. ㉧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
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라
야 비로소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볼거리에 구속되어
 큰 볼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

2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의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은?

—〈보 기〉—

(다)는 범희문이라는 사람이 화려한 저택을 거부하고 겸허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연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작가는 세속적 소유를 거부한 범희문의 태도에 기대어 당대 사대부들의 삶에 드러난 속물적 태도를 비한다. 나아가 대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 : 산림에 묻혀서 지락을 아는 것
- ② ㉡ :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는 것
- ③ ㉢ : 갈대숲을 서성이며 고기를 엿보는 것
- ④ ㉤ :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느끼는 것
- ⑤ ㉥ : 구속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는 것

29. [A]와 [C]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C]에서 봄은 모두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 ② [A]는 [C]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C]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의 봄은 흥겨움을, [C]의 봄은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 ⑤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C]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봄을 묘사하고 있다.

30.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출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③ 농가와 자연을 분리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 ④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 삶이 드러나 있다.
- ⑤ 숭고한 삶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 있다.

31. ㉞와 같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휴양림을 늘 내 곁에 두고 보고 싶으니 집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야겠어.
- ② 주말에 지리산에 갔는데 갈 때마다 모습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서 참 좋았어.
- ③ 가족 여행 때 다녀온 강릉 경포대의 진면목을 알려면 「관동별곡」을 읽어야 해.
- ④ 단풍은 설악산이 최고라 하니 단풍을 구경하려면 당연히 설악산으로 가야 해.
- ⑤ 내가 한라산을 가 보고 싶은 이유는 유명한 산악인들이 추천하는 명산이기 때문이야.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11

형은 또 울었다. 밤이 깊도록 어머니까지 불러 가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동생도 형 곁에서 남모르게 소리를 죽여 흐느껴 울었다. 그 저 형의 설움과 울음을 따라 울 뿐이었다. 동생도 이렇게 울면서 어쩐지 마음이 조금 흐뭇했다.

이날 밤의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

바깥은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눈이, 눈이. 벌써 겨울이 다 됐네.”

물론 감시병들의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도 않고 이렇게 혼잣소리처럼 지껄었다.

“저것 봐, 저기 저기, 에에이, 모두 잠만 자구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기만 하면서…….

어느새 양덕도 지났다. 하루하루는 수월히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함없이 푸르렀을 뿐이었다. 산도 들판도 눈에 덮여 있었다.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날로 날로 풀이 죽어 갔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또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즈음에 와선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이 난다. 맘이 꽤 좋았겠이야이.”

㉡“……”

“난 원래 다리에 ㉢달증이 있는데이. 너두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한 것 같다야.”

하고는 혜죽이 웃었다.

㉣“……”

동생은 놀라 돌아다보았다. 어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그러안으면서,

“칠성아, 야하, 흠씩은 춥다.”

㉤“……”

“저 말이다, 엄만 날 늘 불쌍히 여겼었이야, 잉.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야이.”

㉥“……”

동생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불안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의 얼굴을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도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튿날,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혼잣소리도 풀이 없었다.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두. 에에이, 이젠 좀 그만 걷지달, 무던히 걸었구만서두.”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들을 흘끔 결눈질해 보았다. 경비병들은 물론 알은체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별쭉 웃으면서,

“히히, 내가 무슨 소릴 허니. 내가 집에 갈 땐 나두 갈 텐데, 양 그러니?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엔 또 동생의 어깨를 그러안으면서,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

바깥은 바람이 세었다. 거적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곤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었다.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형은 또 벌컥 성을 내며,

“왜 우니, 왜?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서 더 더 울었다.

며칠이 지날수록 ㉧형의 걸음은 더 절름거려졌다. 행렬 속에서도 별로 혼잣소리 지껄이지 않았다. 평소의 형답지 않게 꽤나 조심스런 낱색이었다. 들레를 두리번거리며 경비병의 눈치를 흘끔거리기만 했다. 이젠 밤에도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것저것 지껄이지 않았다. 그러나 먼 개 짖는 소리 같은 것에는 여전히 흠칫흠칫 놀라곤 했다. 동생은 또 참다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형은 왜 우느냐고 화를 내지도 않고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동생은 이런 형이 서러워 더 더 흐느꼈다.

그날 밤, 바깥엔 ㉨함박눈이 내렸다.

형은 불현듯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댔다.

“너, 무슨 일이 생겨두 날 형이라구 글지 마라, 어영?”

어느 때답지 않게 숙성한 사람 같은 억양이었다.

“울지두 말구 모르는 체만 해, 꼭.”

동생은 부러 큰 소리로,

“야하, 눈이 내린다.”

형이 지껄일 소리를 자기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그러나 이미 형은 그저 꺾하니 굳은 표정이었다.

동생은 안타까워 또 울었다. 형을 그러안고 귀에다 입을 대고,

“형아, 형아, 정신 차려.”

이튿날, 한낮이 기울어서 어느 영 기슭에 다다르자,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쿡 찌르고는 걸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형의 걸음걸이를 주의해 보아 오던 한 사람이 뒤에서 따발총을 휘둘러 쏘았다.

형은 앉은 채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사람은 총을 어깨에 둘러메면서,

“메칠을 더 살겠다구 빼득대? 빼득대길.”

- 이호철, 「나상(裸像)」 -

4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간접 인용을 활용하여 사건 전개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주인공의 반복적 행위를 서술하여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형’의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 ② ㉡은 형제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 ③ ㉢은 ‘형’의 내면 풍경을 보여 준다.
- ④ ㉣은 ‘형’의 최후를 암시한다.
- ⑤ ㉨은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42. 윗글을 시나리오로 각색하고자 할 때, ㉠~㉡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모두 잠들었을 무렵’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잠든 척 누워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 ② ㉡에서는 ‘놀라 돌아다보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걱정스레 ‘형’을 바라보는 ‘동생’의 표정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③ ㉢에서는 춤다면서 끌어안는 ‘형’에게 기대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 ④ ㉣에서는 아파하는 ‘형’을 눈물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동생’의 안타까운 눈빛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⑤ ㉤에서는 ‘부러 큰 소리로’ 말했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형’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동생’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군.

4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제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특히 천진난만한 ‘별거숭이 인간’인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 또한 이 작품은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 ① 이 작품의 제목은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② ‘경비병’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한다.
- ③ ‘형’과 ‘동생’이 계속 걸어야만 하는 강제적 상황은 구성원을 획일화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④ 자신을 압박해 오는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천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낸다.
- ⑤ ‘형’이 그를 지켜보던 ‘경비병’의 총에 맞는 것은 감시자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는 데 따른 희생을 보여 준다.

〔앞부분의 줄거리〕 선비 유영이 꿈에서, 죽은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대군은 궁녀 열 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궁 밖과의 인연을 금했으나, 궁녀 운영은 김 진사와 사랑에 빠졌다. 김 진사의 노비인 특의 꾀에 따라 둘은 도망가려고 운영의 의복과 재물을 빼냈다.

진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일렀습니다.

“너는 재물을 잘 지키고 있겠지? 내가 장차 그것을 다 팔아서 부처께 지성으로 발원하여 오래된 약속을 실천하리라.”

특은 집으로 돌아가 혼잣말로 일렀습니다.

“궁녀가 나오지 못했으니, 그 재물은 하늘이 내게 준 것이로다.”

특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을 지었으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특이 자기 옷을 찢고 코를 스스로 때려, 피를 온몸에 흠뻑 바르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맨발로 달려 들어와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절한 척했습니다. 진사는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을 알 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 약을 입에 흘려 넣는 등 특을 살려 냈습니다. 그러자 특이 십여 일 만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산 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 박살날 것 같아 죽을힘을 다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운명이 이리도 험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는고!”

말을 마친 특은 발로 땅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보냈다가, 뒤늦게야 특의 소행을 알고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비녀 한 쌍과 거울 하나만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장물로 삼아 관가에 고발하여 나머지 물건들도 찾고 싶었으나, 일이 누설될까 두려워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진사는 그 재물이 없으면 불공을 드릴 수 없었기에 특을 죽이고 싶었으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 애써 침묵하였습니다.

특은 자기 죄를 알고, 궁궐 담장 아래에 사는 맹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 새벽에 이 궁궐 담장 밖을 지나가는데, 웬 놈이 궁궐 안에서 서쪽 담을 넘어 나왔소. 도적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자, 그놈은 가졌던 물건을 버리고 달아났소. 나는 그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자가 찾아가기를 기다렸소. 그런데 우리 주인은 본래 염치가 없어서 내가 물건을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몸소 내 집에 와서 그 물건들을 찾았소. 내가 다른 보물은 없고 단지 비녀와 거울 두 가지만 있다고 대답하자, 주인은 몸소 수색을 해서 과연 그 두 물건을 찾아내었소. 주인은 그것도 부족해서 바야흐로 나를 죽이려고 하오. 그래서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데, 달아나면 길(吉)하겠소?”

맹인이 말했습니다.

“길하다.”

그때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특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데, 이처럼 노비에게 포악하게 구

느냐?”

특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나이는 어리나 문장에 능해서 조만간 틀림없이 급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탐욕스러우니, 훗날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서 있을 때 마음 씩씩이가 어떠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전파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군은 크게 화가 나서 남궁 사람들에게 서궁을 수색하게 하니, 제 의복과 보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군은 서궁의 궁녀 다섯 사람을 붙잡아 뜰 가운데 세우고, 눈앞에 형장을 엄히 갖춘 다음 명령하였습니다.

“이 다섯 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라.”

대군은 또 곤장을 잡은 사람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곤장 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려라.”

이에 다섯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마디 말만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대군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도록 해라.”

은섬이 말했습니다.

“남녀의 정은 귀하든 천하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있는 법입니다. 한번 깊은 궁에 갇혀서 홀로 지내니, 꽃을 보면 눈물 흘리고 달을 대하여 슬퍼했지요. 매실을 피꼬리에게 던져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발을 쳐서 제비가 쌍쌍이 깃들지 못하게 함은 부러움과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음에도 저희가 그러하지 않은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해서겠습니까? 다만 저희는 오로지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궁에서 말라 죽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비취가 초사(招辭)*를 올려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보살피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지라 저희들은 감동하고 두려워하여 오로지 글짓기와 거문고 연주만을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찢지 못할 악명이 서궁에 미쳤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 초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죄인의 진술.

4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사’는 재물을 찾기 위해 ‘특’의 집을 수색했다.
- ② ‘특’은 운영이 도둑을 맞았다고 ‘맹인’에게 말했다.
- ③ ‘맹인의 이웃’이 들은 말이 전파되어 궁중에 들어갔다.
- ④ ‘대군’은 소문을 듣고 서궁을 수색하게 했다.
- ⑤ ‘은섬’은 억울해 하면서도 다른 궁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48. ‘궁궐의 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은 위선과 진실을 구별하는 경계이다.
- ② 담 안은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 ③ 담 안의 궁녀들은 담 밖의 세상에 관심이 없다.
- ④ 담을 넘는 것은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 ⑤ 담 밖은 담 안과 달리 신분적 위계가 없는 공간이다.

49.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운영전」의 액자 속 이야기는 주인공이 서술한 것이어서, 서사는 운영과 김 진사의 시선에 포착된 현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운영을 포함한 궁녀들을 억압하는 ‘대군’은 그들에게 베푼 은혜로 인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반면, 음모를 꾸민 ‘특’은 간교한 인물로만 부각된다. 이런 인물들의 개입으로 인해 금지된 사랑을 하는 주인공의 위기도 여느 고소설과 달리 현실적 긴장감을 띠게 된다. 이로써 이 소설은 현실의 문제를 보다 첨예하게 드러낸다.

- ① 운영도 ‘대군’을 배신했지만 ‘특’의 배신만이 부각되는 것은 운영이 서술자이기 때문이군.
- ② 달아나면 길할 것이라고 말한 ‘맹인’의 태도 때문에 주인공의 금지된 사랑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군.
- ③ ‘특’이 남몰래 웃음을 지었다는 진술에서 그의 간교한 성격을 드러내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느껴지는군.
- ④ 궁녀들을 박해하는 ‘대군’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까닭이 ‘대군’의 은혜를 인정하는 ‘비취’의 말에서 나타나는군.
- ⑤ 궁녀들에게 내려진 금기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은섬’의 말에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는군.

50. ‘특’이 ㉠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었으나 겨우 도망했습니다.”

- ① 내우외환(內憂外患)
- ② 명재경각(命在刻刻)
- ③ 사고무친(四顧無親)
- ④ 오리무중(五里霧中)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가)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낮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A]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A]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

* 파초 :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나)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눈
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등 뒤에 서격
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
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
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
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죽—히 부르며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뻐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

* 수철리 :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B]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B]

<제3수>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 망령된 :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추성 진호루 :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므음 호리라 : 무엇을 하려고.

1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 ⑤ (가)~(다)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0.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나)에는 독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가,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③ (가)에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에는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④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⑤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21. [A]와 [B]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 형식을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어조 변화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2.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초를 '또' 머리맡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계속해서 파초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군.
- ② 파초를 위해 '중'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군.
- ③ 파초의 잎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④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어 표현한 것을 보니, '나'는 파초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23.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하고', '아득—한' 등의 '—'는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
- ② '밤나무'의 '여윈 가지'는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③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여윈 모습을 연상시킨다.
- ④ '묘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 ⑤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24. (다)의 각 수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아무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제2수의 망령된 '내 일'은 제3수의 '내 뜻'에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제3수의 '추성'은 제4수의 '피'와 '물'에 의해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먼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 ④ 제4수의 '뜻'은 제5수의 '뜻'에 와서 더욱 확대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제1수의 '내 몸의 해울 일'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댁이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엉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덧 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말끄러미 화산댁이를 바라보고,

“아버지, 이거 누고 응?”

화산댁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이다.

“할매다!”

“우리 할매?”

“음!”

아들은 맥없는 대답을 하면서 험 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댁이는 걸레로 터실터실 분 발뒤꿈치 더더기를 훑치면서,

“그렇기, 나고는 침 보니…….”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질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질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질세기가 화산댁이는 못내 아까웠다.

다다미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롱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앉은키만 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옷들이 주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우선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 방에 불려 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중략)

화산댁이는 아들과 마주 앉고, 며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기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젖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좇고 있던 화산댁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보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통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더깨더깨 기운 피죄죄 때 묻은 버선을 들어내고 검은 보통이를 또 하나 들어냈다. 들어낸 보통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어중간에 밀어 놓으면서,

“묵어 보라, 꿀밤(도토리)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딸딸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 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묵어 보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짝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 보던 손녀도 그만 폐폐 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댁이는 몇 해를 두고 버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후끈후끈한 방에서 곤하면 입은 채 굴러 자던 습관은, 휘눈은 판자 천장이며, 유리 바른 문이며, 싸늘해 보이는 헛가루 벽이며, 다다미방이 잠을 설레었다. 화산댁이는 자꾸만 쓸쓸했

다. 뒷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놓는다. ㉡ 건넌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저저 조먼* 그만이지.’ 또 고쳐 누웠다. 애써 잠을 청해 본다.

그러나 잠 대신 화산댁이는 어느새 오리나무 숲 사이로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다.

보리밭이 곧 마당인 낡은 초가집이다.

[A] 빈대 피가 땃잎처럼 굵힌 토벽, 메주 뜨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갈자리 방에서 손자들이 아랫도리 벗은 채 제멋대로 굴러 자고, 쭉물 사발을 옆에 놓고 신을 삼고 있는 맏아들, 갈퀴손으로 누더기를 집고 있는 맏며느리, 화산댁이는 그만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 아들의 등을 쓰담아 기침을 내려 주고 며느리와 무르팍을 맞대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또 뒤쳐놓는다.

‘아무리 시에미가 시에미 같지 않기로니 침 보는 시에미에게 인삿절도 없이, 본바없는 것 같으니, 그래도 마실 사람들은 작은아들 돈 잘 벌고 하리갈레* 메뉴리 봤다고 부러하더라만, 시장스럽고 가시롭다. 지가 탈기 없는 것도, 신앙기가 있는 것도 다 기집 탓이지 머고, 여태껏 땅 한 떼기 못 사는 것도 안살림 잘못 사는 탓이지 머고.’ 화산댁이는 눈꼬리만 따잡고 잠은 점점 멀어 갔다.

‘지만 하더라도 일본서 근 십 년 만에 나왔으면 그만 지 형 말대로 농사나 짓고 수더분한 색시나 골라 장가들었으면 등 따시고 배 부릴 꺼로 머 공장을 하느니 하고 날뛰 땡기더니.’

화산댁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은 언제 썰지 모르겠고 뒤는 자꾸 급해 왔다. 화산댁이는 참다못해 조심조심 더듬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다시 더듬어 밖으로 나갔다. 비는 그쳤고 갈라진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다. 뒷간이 있음 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두 바퀴나 돌았으나 뒷간은 역시 없었다. ㉢ 대체 적산집*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화산댁이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 한결 개분했다. 문살만 흰하면 나와서 뒤본 자리를 챙기리라 맘먹고 다시 들어왔다.

화산댁이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샀다. 아들 내외가 깰까 싶어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본 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련된 수채였다. 수채는 앞집으로 통했다. ㉤ 안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 오영수, 「화산댁이」 -

* 저저 조먼 : ‘자기네들끼리 좋으면’의 방언.

* 하리갈레 : 예전에 서양식 유행을 따르던 멋쟁이를 이르던 말.

* 적산집 : 해방 전에 일본인들이 지은 신식 가옥을 이르는 말.

25. ‘화산댁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은아들이 내놓은 고무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② 꿀밤떡을 내맡는 손녀의 행동에 노여움을 느낀다.
- ③ 예의가 없는 며느리를 나무라고자 마음먹는다.
- ④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아들을 못마땅해 한다.
- ⑤ 시골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서 날이 빨리 새기를 바란다.

26.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 인물의 등장을 통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린다.
- ② 환상적 배경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허구성을 강화한다.
- ③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한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치를 통해 사건을 지연시킨다.
- ⑤ 현재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을 통해 내적 갈등을 고조한다.

27.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것일 수도, 인물의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소재를 대비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화산택이」는 시골과 도시, 자연과 문명 세계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영위되는 삶의 양식을 대비한 작품이다.

- ① 짚세기 : 고무신
- ② 초가집 : 적산집
- ③ 토벽 : 흰가루 벽
- ④ 갈자리 방 : 다다미방
- ⑤ 수채 : 뒷간

S# 29 궁궐 외각의 작은 문(밤)

㉠ 보쌈 한 박 나인을 들고 가는 일단의 나인들. 역시 은밀하고 기민한 동작이다. 불안한 얼굴로 보자기를 하나 들고 뒤따라가는 한 나인.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 몸도 마음도 진정시키기가 어렵다.

S# 30 산 계곡 은밀한 곳(밤)

보쌈을 풀고 나오는 박 나인. 나인 하나가 눈과 입을 풀어 주면 앞의 전경이 보인다. 가운데 최고 상궁인 최 상궁이 떡 버티고 서 있고 옆엔 기미 상궁, 그리고 나인들 예닐곱 명이 서 있다. 그 가운데 불안한 눈빛의 최 나인, 그리고 한 나인, 또 한 나인이 들고 있는, 보자기를 벗긴 술병까지. 이윽고 바닥에 꿰러지는 박 나인. 박 나인,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한 나인.

박 나인 : (영문을 모르는 채 두려움에 떨고)

최고 상궁 : 네 죄를 인정하겠느냐?

박 나인 :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최고 상궁** : 다시 묻겠다! 네 죄를 인정하느냐?

박 나인 : (더욱 안타까워) 마마님, 무엇이옵니까? 무슨 연유로 이리 하시는지 알려 주시옵소서.

한 나인 : …….

(중략)

S# 47 암자 안(밤)

들어오는 천수, 보편 박 나인이 한삼으로 입을 막은 채 토악질을 하고 있다. 천수, 얼른 들어와,

㉢ **천수** : 막지 마시오! 토악질을 해야 살아난다고 했소.

하고는 얼른 박 나인의 옆으로 가 등을 쓰다듬고, 두드려 주며 토악질을 돕는다. 한참을 그러고 나니, 잠시 토악질을 멈추는 박 나인. 힘없이 누우려는데, 박 나인이 누웠던 곳에 작은 쪽지 하나가 있다. 쪽지를 발견하는 천수. 박 나인에게 말없이 쪽지를 건넨다. 박 나인, 받아 들어 펴 본다. 수라간에서 급히 썼는지, 종이에 간장으로 쓴 한 나인의 옛 한글 **서찰**이다. 보는 박 나인의 눈에 금방 눈물이 맺히고, 천수도 같이 보게 되나 천수의 얼굴은 복잡하다.

한 나인 : (E*) 명이야, 살았느냐? 살았느냐? 지금 너를 죽일 약병을 들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S# 48 수라간(회상*, 밤)

급히 들어오는 한 나인. ㉣ 이리저리 휘돌아보다가 선반 옆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급히 찾는다.

한 나인 : (E) 순간,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독할 수 있다는 네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았느냐, 명이야 …….

이윽고 녹두물 그릇을 찾은 듯 급히 품에 넣고 나간다.

S# 49 암자 안(밤)

눈물을 흘리며 보고 있는 박 나인, 옆에서 보는 천수. 박 나인에게 연민과 동질감이 느껴질수록 마음이 복잡하다.

한 나인 : (E) 흑, 죽었거든 나를 용서치 말며 흑, 살았거든 내 말을 들어다오.

S# 50 수라간(회상, 밤)

급히 글을 쓰고 있는 한 나인의 모습. ㉤ 글을 쓰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다.

한 나인 : (E) 나도 일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 네가 남자와 통정했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기에 너는 다시 궁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그들의 눈에 띄어서도 안 된다. 멀리 도망가서 살아라. 살아다오! 그리해서 힘없이 너를 보낸 나를, 그들의 협박에 무릎 꿇은 나를 벌해 다오!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명이야…….

S# 51 암자 안(밤)

박 나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천수, 조용히 나오고.

- 김영현, 「대장금」 -

* E: 'Effect'의 약자로서 보통 효과음을 말함. 이 극본에서는 말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를 가리킴.

* 회상 :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을 말함. 이 극본에서는 지난 사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서찰 내용의 재현을 가리킴.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들이 활용되고 있다.
- ②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 ③ 시간적 배경에 의해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우호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 ⑤ 장소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8. **서찰**과 관련지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나인'은 '박 나인'의 생존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
- ② '박 나인'은 남자와 통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징벌을 당했다.
- ③ '한 나인'은 구체적인 증거물에 근거하여 '박 나인'이 결백하다고 보았다.
- ④ '박 나인'이 '한 나인'에게 알려 준 정보 덕분에 '박 나인'이 살 수 있었다.
- ⑤ '한 나인'은 '박 나인'을 살리려는 시도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 했다.

39. ㉠~㉣ 중 <보기>의 촬영 기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양각(仰角, Low-angle) : 주로 인물의 권위나 위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카메라를 인물보다 아래쪽에 설치하여 올려 찍는 기법.

- ① ㉠ ② ㉡ ③ ㉢ ④ ㉣ ⑤ ㉤

심청이 수궁에 머물 적에 옥황상제의 명이니 거행이 오죽하랴. 사해 용왕이 다 각기 시녀를 보내어 아침저녁으로 문안하고, 번갈아 당번을 서서 문안하고 호위하며, 금수능라 비단옷에 화용월태 고운 얼굴 다 각기 잘 보이려고 예쁜 모습 웃는 시녀, 암전하게 차린 시녀, 천성으로 고운 시녀, 수려한 시녀들이 주야로 모실 적에 사흘마다 작은 잔치, 닷새마다 큰 잔치를 베풀니, 상당에는 비단 백 필, 하당에는 진주 서 되었다. 이처럼 받들면서도 오히려 잘못하지나 않을까 조심이 각별했다.

이때 무릉촌 장 승상 댁 부인이 심 소저의 글을 벽에 걸어 두고 날마다 징험하되 빛이 변하지 아니하더니, 하루는 ㉠글 죽자에 물이 흐르고 빛이 변하여 검어지니, '심 소저가 물에 빠져 죽었는가?' 하여 무수히 슬퍼하고 탄식하더니, 이윽고 물이 건히고 빛이 도로 황홀해지니, 부인이 괴이히 여겨 '누가 구하여 살아났는가?' 하며 심분 의혹하나 어찌 그러하기 쉬우리오.

그날 밤에 장 승상 댁 부인이 제물을 갖추어 강가에 나아가 심 소저를 위하여 혼을 불러 위로하는 제사를 바치려 마음먹고 시비를 데리고 ㉡강가에 다다르니, 밤은 깊어 삼경인데 칙칙이 쌓인 안개 산골짜기에 잠겨 있고, 칙칙이 이는 연기 강물에 어리었다. 편주(片舟)를 흘리저어* 중류에 띄워 놓고, 배 안에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이 친히 잔을 부어 오열하며 소저를 불러 위로하니,

“아아! 슬프다, 심 소저야.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즐거워함은 인정에 당연케늘 일편단심에 양육하신 부친의 은덕을 죽음으로써 갚으려 하고, 한 가닥 쇠잔한 목숨을 스스로 끊으니, 고운 꽃이 흩어지고 나는 나비 불에 드니 어찌 아니 슬플쏘냐. 한 잔 술로 위로하니 응당 소저의 혼이 아니면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속히 와서 흠향함을 바라노라.”

하며 눈물 뿌려 통곡하니 천지 미물인들 어찌 아니 감동하리. 뚜렷이 밝은 달도 구름 속에 숨어 있고, 사납게 불던 바람도 고요하고, 용왕이 도왔는지 강물도 고요하고, 백사장에 놀던 갈매기도 목을 길게 빼어 꾸루룩 소리 하며, 심상한 어선들은 가던 돛대 머무른다. 뜻밖에 강 가운데로부터 한 줄 ㉢맑은 기운이 뱃머리에 어렸다가 잠시 뒤에 사라지며 날씨가 화창해지거늘, 부인이 반겨 일어서서 보니 가득히 부었던 잔이 반이나 없었으므로, 소저의 영혼을 못내 슬퍼하더라.

하루는 광한전 옥진 부인이 오신다 하니 ㉣수궁이 뒤놓는 듯 용왕이 겁을 내어 사방이 분주했다. 원래 이 부인은 심 봉사의 처 꺾씨 부인이 죽어 광한전 옥진 부인이 되었더니, 그 딸 심 소저가 수궁에 왔다는 말을 듣고, 상제께 말미를 얻어 모녀 상봉하려고 온 것이었다.

심 소저는 뉘신 줄을 모르고 멀리 서서 바라볼 따름이었다. 오색구름이 어린 오색 가마를 옥기린에 높이 싣고 벽도화 단계화를 좌우에 벌여 꽂고, 각 궁 시녀들은 옆에서 모시고, 청학 백학들은 앞에서 모시며, 봉황은 춤을 추고, 앵무는 말을 전하는데, 보던 중 처음이더라.

이윽고 교자에서 내려 섬돌에 올라서며,

“내 딸 심청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모친인 줄 알고 왈각 뛰어 나서며,

“어머니 어머니, ㉤나를 낳고 초칠일 안에 죽었으니 지금까지 십오 년을 얼굴도 모르오니 천지간 끝없이 깊은 한이 겹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 와서야 어머니와 만날 줄을 알았더라면, 오던 날 부친 앞에서 이 말씀을 여쭙었다더라면 날 보내고 설운 마음 적이 위로했을 것을……. 우리 모녀는

서로 만나 보니 좋지만은 외로우신 부친은 뉘를 보고 반기시리까. 부친 생각이 새롭습니다.”

부인이 울며 말하기를,

“나는 죽어 귀히 되어 인간 생각 아득하다. 너의 부친 너를 키워 서로 의지하였다가 너조차 이별하니, 너 오던 날 그 모습이 오죽하랴. 내가 너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야 너의 부친 너를 잃은 설움에다 비길쏘냐. 분노라. 너의 부친 가난에 절어 그 모습이 어떠한냐. 응당 많이 늙었으리라. 그간 십수년에 흠아비나 면했으며, 뒷마을 귀덕 어미 네게 극진하지 않더냐?”

얼굴도 대어 보며, 수족도 만져 보며,

“귀와 목이 희니 너의 부친 같기도 하다. 손과 발이 고운 것은 어찌 아니 내 딸이라. 내 끼던 ㉥옥지환도 네가 지금 가졌으며, '수복강녕', '태평안락' 양편에 새긴 돈 붉은 줍치 청홍당사 별매듭도 애고 네가 찼구나. 아비 이별하고 어미 다시 보니 다 갖추기 어려운 건 인간 고락이라. 그러나 오늘날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너의 부친을 다시 만날 줄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광한전 맑은 일이 직분이 허다하여 오래 비우기 어렵기로 도리어 이별하니 애통하고 딱하나 내 맘대로 못하니 한탄한들 어이할쏘냐. 후에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하고 떨치고 일어서니, 소저 만류하지 못하고 따를 길이 없어 울며 하직하고 수정궁에 머물더라.

이때 심 봉사는 딸을 잃고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하여 근근이 살아갈 제, 도화동 사람들이 심 소저가 지극한 효성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일을 불쌍히 여겨 비석을 세우고 글을 새겼으며,

앞 못 보는 아버지 위해
제 몸 바쳐 효도하러 용궁에 갔네.
안개 어린 먼 바다에 마음도 푸르니
봄풀에 해마다 한이 가없네.

강가를 오가는 행인이 비문을 보고 아니 우는 이가 없고, 심 봉사는 딸이 생각나면 그 비를 안고 울더라.

- 작자 미상, 「심청전」(완판본, 71장) -

* 흘리저어 : 배 따위를 흘리하게 띄워서 저어.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월적 인물을 통해 주인공의 운명이 예고되고 있다.
- ②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획득하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사건 전개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사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독백과 대화의 반복적 교차로 인물의 내면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41.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심청의 생사 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징표이다.
- ② ㉡: 장 승상 댁 부인에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 ③ ㉢: 장 승상 댁 부인이 지닌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 ④ ㉣: 심청이 자신의 희생에 대해 보상을 받는 공간이다.
- ⑤ ㉣: 심청과 옥진 부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키는 징표이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심청전」 완판본(71장)에는 장 승상 댁 부인의 등장, 수궁에서의 모녀 상봉, 삼입 시 등과 같이 경판본에 없는 대목이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사의 분위기 형성이나 인물의 성격 구현, 주제 의식의 발현 등에 일정한 차이를 가져왔다.

- ① 옥진 부인의 등장은 심청의 위상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장 승상 댁 부인이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군.
- ③ 비석에 새겨진 시는 심청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세간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심청과 옥진 부인이 만나는 대목은 혈연의 친밀감을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군.
- ⑤ 옥진 부인이 심청에게 하는 말은 딸을 물에 빠지게 한 심 봉사의 어리석은 행위를 부각하고 있군.

43. ㉠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는?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물아일체(物我一體)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천우신조(天佑神助)

[앞부분의 줄거리] 뱃사공 삼바우는 전쟁터로 나가는 아들 용팔과 마을 청년 두칠, 천달을 배에 태워 강 건너로 보낸다. 얼마 후 두칠은 부상을 입어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용팔과 천달에게서는 아직 소식이 없다.

첫서리가 보얗게 내린 어느 날 아침나절, 읍으로부터 오는 길에 멀리 자전거가 한 대 나타났다. 삼바우는 나룻배를 몰아 물가에 갖다 대 놓고, 가까워 오는 자전거를 기다렸다. 그것은 안면이 있는 자전거였다. ㉠ 빨간 자전거였다. 편지가 오는구나, 삼바우는 가슴이 뛰었다. 혹시 용팔이한테서나…… 자전거에서 내리는 배달부는 낮이 선 사람이었다.

“여보이소, 저 마을이 강동리 이구 맞지요?”
 “야, 맞구마. 편지 어디서 왔능교?”
 “양봉재라는 사람 있능계?”
 “야, 있구마, 천달이 저거 어르신네구마. 어디서 왔능교?”
 “에에…….”
 배달부는 편지를 뒤집는다.
 “천달이한테서 왔능교?”
 “아니요, 군수한테서 왔구마.”
 “군수라니요?”
 “군수도 모르능계? 고을 원님 말이구마.”
 “구운수?”
 삼바우의 두 눈은 통방울처럼 휘둥그레진다.
 “정말로 카능계? 부러 카능계?”
 “이 양반 보소. 내가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장난하로 댕기는 사람인 줄 아능계? 허허…….”

“하야, 군수한테서…….”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듯 삼바우의 벌어진 입은 쉬 다물리지 않는다. 배달부의 자전거를 번쩍 들어 배에 올려 주며,
 “나한테는 없능교, 편지? 배(裵)삼바우구마.”
 “그 집 하나뿐이구마.”
 서운했다. 그러나 삼바우는 노를 저으면서도, 군수한테서 편지가 오다니, 양 생원 인제 팔자 고치는 거 아니가? 곧장 감격스러웠다.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양 생원한테 군수라니…… 너무 당치가 않아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다.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물론 양 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에 마을은 발각 뒤집히었다. 순녀의 피나는 ㉡ 울음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꿰었다. 대열이도 덩달아 뻘뻘이 소리를 질렀다. 천달이가 뭐 어찌고…… 뻘뻘이 뭐 어찌고 어찌고……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마을은 ㉢ 밤이 되어도 뒤송송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 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끊임없이 울락 한이 없었다. 뒤 언덕 도토리나무 잎새를 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별나게 스산하기만 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양 생원네는 강을 건너 ㉣ 읍내로 들어갔다. 삼바우는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순녀의 등에 업힌 대열이는 곧장 엄마에게,

“엄마야, 우이 어디 가노?”
 “읍내 간다.”
 “읍내가 머꼬?”
 “……”

“양? 엄마.”
 “읍내가 읍내지 뭐까 봐. 저어기 가면 읍내라고 있다.”
 “머 하로 가노?”
 “……”
 “양?”
 “……”

[A]

순녀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어지럽기만 했다. 엄마의 대답이 없으니, 대열이는 할아버지를 돌아본다.

“……”
 “하부이! 우리 머 하로 가노?”
 “……”
 “하부이 니도 모르나?”
 “……”

벌그레 부어 오른 두 눈을 무겁게 내리감을 따름, 할아버지 역시 아무런 대꾸가 없다.

대열이는 울상이 되어 킁킁 칭얼거리다가 그만 엄마의 등짝을 마구 때려 준다.

그날 저녁답은 왜 그렇게 하늘이 타는지 몰랐다. ㉤ 벌건 불길이 구름을 태우며 온 벌판으로 쏟아져 내렸다. 강물도 꽃자주색으로 출렁거리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붉은 빛깔이 물들어 있었다. 이처럼 무섭게 저물어 가는 황혼 속으로 양 생원네는 돌아왔다. 양 생원은 목에 띠를 걸고 네모반듯한 상자를 하나 받쳐 안고 있었다. 상자는 하얀 보에 싸여 있었다.

(중략)

빌어먹을 세상이지, 하필 와 남의 집 외동아들을 잡아가노 말이다. 이런 소리를 주워섬기는 노인도 있고, 어떤 노파는 관שמ보사알 하고,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기도 했다. 갑분이의 탐스런 얼굴에도 그들이 서리었고, 두칠이의 도깨비 같은 얼굴도 오늘은 거기 섞여 있었다. 그러나 두칠이만은 입 언저리에 알갛은 웃음을 띠고 있다. 흥, 유골이라! 저 안에 든 것이 천달이 뼈다귀라 그 말썹이지, 흥! 흥! 목덜미로 흘러내린 뻘뻘 들한 살점이 곧장 실룩거리다. 누렁이란 놈도 물가에 내려서서 주둥이를 하늘로 쳐들고 킁킁 킁킁 짓어 댈다.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는 잠시 견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양 생원의 손목을 가서 붙잡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하고 한숨을 짓는 노인. 위로를 한답시고 떠들어 대는 노파들. 순녀의 울음을 달래며 찢끔찢끔 눈물을 짜는 아낙네가 있는가 하면, 옷고름에 물코를 푸는 큰애기가 있고, 우는 아이가 있고, 짓는 개가 있고……. 그러나 두칠이는 연방 얼굴을 실룩거리며,
 “머 보통이지, 보통이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의 하나 남은 눈썹에도 눈물은 어리어 있었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

1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와 독백적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 서술하여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⑤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마을 밖의 소식을 전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 ② ㉡: 천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순녀의 기대가 좌절되었음을 의미한다.
- ③ ㉢: 불길한 일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을 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 ④ ㉣: 천달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공간이다.
- ⑤ ㉤: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마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15. [A]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이 없는 어른들을 아이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군.
- ② 철없는 아이와 권위적인 어른들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군.
- ③ 어른들의 침묵을 통해 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아이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 ⑤ 지속적으로 어른들에게 질문하는 아이를 통해 작중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군.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쟁 소설은 전쟁의 비극성을 다각도로 드러낸다. 전쟁의 비극성은 전쟁을 체험한 인물의 정신적 상처로 구체화된다. 특히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상처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인물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 ① 군수의 편지, 유골 상자 등은 전쟁의 비극성과 관련된 소재군.
- ② 하나만 남은 두철의 눈은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하겠군.
- ③ 천달의 유골을 보며 중얼거리는 두철의 모습은 전쟁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④ 천달의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터가 들끓은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천달의 유골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두철의 모습은 그가 마을 공동체에 동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가) 1

㉠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A]
[B]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C]
[D]
[E]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32. ㉠~㉣ 중 <보기> ㉥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보 기>

마을의 한 아이에게 천자문을 주어 읽게 했더니 그 녀석이 읽기를 싫증 내고 짜증을 부리며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을 나타내는 ㉥ ‘천(天)’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으니 읽기에 싫증이 나는 것이죠.”라고 함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창힐(蒼頡)을 애타고 괴롭게 만듭니다.

- 박지원, 「창애(蒼厓)에게」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34. [A]~[E]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그룩'보다는 '그릇'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 ② [B]: '그릇'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룩'이라는 말은 발견된 것이라는 뜻이군.
- ③ [C]: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 ④ [D]: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 ⑤ [E]: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가)

[1] 풀은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향한다. 다들 바람 부는 대로 쓸리는데 굳이 따르기를 피하려 할 이유가 있겠는가?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내 몸을 따르고 내가 외치면 메아리가 내 소리를 따른다. 그림자와 메아리는 내가 있기에 생겨난 것이니 따르기를 피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서 한평생을 마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는 법이다.

[2] 어째서 상고 시대의 의관을 따르지 않고 오늘날의 복식을 따르며, 중국의 언어를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라의 발음을 따르는 것일까? 이는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며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온갖 넷물이 각자의 모양대로 흐르며 땅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같은 도리이다.

[3] 물론 일반적인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천성과 사명을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 천하가 모두 주나라를 새로운 천자의 나라로 섬기게 되었음에도 백이와 숙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모든 풀과 나무가 가을이면 시들어 떨어짐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여전히 푸른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렇지만 우 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었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르지 않았던가! 성인(聖人)도 모두가 함께 하는 부분을 위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4]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이치를 따라야 한다.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다.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물어보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이치가 허락한 것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이치가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한다면 무엇을 따르든 모두 옳바르고 하늘의 법칙에 절로 부합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만 따르다 보면 운명과 귀신도 모두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 이용휴, 「수려기(隨廬記)*」 -

* 수려기 : '따르며 살리라'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

(나)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달는 대로

㉢ 좋은 일도 그뿐이요 그른 일도 그뿐이라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와서들랑

꽃빛일랑 곱게 보고 새소리는 좋게 듣고

밝은 달은 예사 보며 맑은 바람 시원하다

좋은 동무 좋은 놀음에 서로 웃고 놀아 보소

㉣ 사람 눈이 이상하여 제대로 보면 관계찮고

고운 꽃도 새겨 보면 눈이 캄캄 안 보이고

귀도 또한 별일이지 그대로 들으면 괜찮은걸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네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

꽃은 절로 피는 거요 새는 예사 우는 거요

달은 매양 밝은 거요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마음만 예사 태평하면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

보고 듣고 예사하면 고생될 일 별로 없소

앉아 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

텐동어미 말 들으니 말씀마다 개개 옳아

이내 수심 풀어내어 이리저리 부쳐 보세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 자로 부쳐 두고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
 밤이나 낮이나 술한 수심 우는 새나 가져가게
 일촌간장 쌓인 근심 도화유수로 씻어 불가
 천만 첩이나 쌓인 설움 웃음 끝에 하나 없네
 구곡간장 깊은 설움 그 말끝에 슬슬 풀려
 삼동설한 쌓인 눈이 봄 춘 자 만나 슬슬 녹네

[A]

- 작자 미상, 「텐동어미화전가」 -

* 황연대각 : 환하게 모두 깨달음.

* 화용월태 :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

하물며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리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배도 가던 길 앞에 있네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

[B]

- 이황, 「도산십이곡」 -

* 초야우생 : 시골에 묻혀 사는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

3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39.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는 풀, 그림자, 메아리 같은 자연 현상으로부터 사람 역시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음을 유추했다.
- ② [2]에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결국은 천지의 법칙을 따르는 것임을 별의 운행과 넷물의 흐름을 들어서 밝혔다.
- ③ [3]에서는 우임금과 공자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제시하여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④ [4]에서는 자문자답을 반복하는 형식을 취하여 마음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였다.
- ⑤ 글의 중간 중간에 '따름'의 여러 측면을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하였다.

40.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텐동어미는 계획적인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② 텐동어미는 본격적으로 화전놀이를 떠날 준비를 하겠군.
- ③ 텐동어미는 청춘과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군.
- ④ 청춘과부는 자연의 변화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 버렸군.
- ⑤ 청춘과부는 가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군.

41. [A]와 [B]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감정 이입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② [A]는 대화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 ③ [B]는 자연물의 속성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을 의미한다.
- ② ㉡은 하늘의 별이 지상의 존재들에게 등불이 되어 준다는 의미이다.
- ③ ㉢은 마음이 상황에 따라 동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④ ㉣은 성숙한 인간이 가진 안목을 의미한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09

이윽고 백 소부가 백 소저에게 명하여 가로되,
“오늘 너를 위해 좋은 배필을 얻었으니 지극한 소원을 이루
었도다. 아버지의 명을 사양치 말고 이 시에 화답하여 맹약을
정하라.”

하니, 백 소저가 얼굴에 수줍은 빛을 띠고 오래 주저하다가 화
선지 한 쪽에 ㉠오언 절구 두 수를 쓰더라.

봉황새가 단산(丹山)에서 나왔거늘
깃들인 곳 벽오동 아니로다.
날개가 꺾어짐을 탄식지 말지니
마침내 하늘에 오름을 보리라.

무성함은 고송(高松)의 자질이요
푸르름은 고죽(孤竹)의 마음이라.
사랑스럽다, 세한(歲寒)의 절조여!
바람과 서리에도 굴하지 않네.

백 소부가 여러 번 낭독하다 감탄하여 가로되,
“시의 격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 가히 소선의 시와 더불어
서로 백중(伯仲)이 될 만하다. 만일 남자였다면 마땅히 장원
급제하리로다. 그러나 시의 뜻이 스스로 송죽의 절조에 비함
은 어 된 일이뇨? 후에 시참(詩讖)*이 되지 않을까 두렵노
라.”

이때 김소선은 대면한 백 소저의 용모를 보지는 못하나, 시
구를 듣고는 그 청아함을 사랑하고 품은 뜻에 감복하여 크게
감탄하더라. 백 소부가 김소선의 시를 화선지에 베껴 백 소저
에게 주며 가로되,

“반드시 이 시를 깊이 간직하였다가 후에 신물(信物)을 삼으
라.”

하고, 또 소저의 쓴 시를 김소선에게 전하여 가로되,

“그대 또한 이 시를 간직하였다가 부귀하게 되면 이 자리의
맹약을 잊지 마시게.”

하니, 소선과 소저가 절하고 명을 받더라.

[중략 줄거리] 세력가인 배연령의 아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정혼
사실을 알면서도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한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외
삼촌 석 시랑을 통해 그 뜻을 전하나 백 소부는 단호히 거절한다.

석 시랑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물러나와, 배득량에게 가
백 소부의 말을 자세히 전하니 득량이 낙담하더라. 이윽고 배
연령에게 간청하여 세력으로 억지로 혼인하고자 하더라. 배연
령이 평소 득량을 가장 사랑한 고로 말만 하면 들어주지 아니
하는 것이 없더니, 이에 석 시랑을 불러 가로되,

“우리 집이 그의 제부와 벼슬을 함께 하는 우의가 있고 문벌
도 서로 걸맞으니, 혼인을 맺어 가문의 친밀함을 더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리오? 그는 나를 위해 백 소부에게
말하여 혼약을 이루고 속히 좋은 결과를 전할지이다.”

시랑이 이튿날 다시 백 소부의 집에 가 배연령의 말을 전하
여 가로되,

“누이 말을 들은즉 생질녀와 정한 배필은 눈먼 폐인이라 하
더이다. 아름답고 어진 생질녀를 두고 반드시 이런 폐인을
사위로 삼고자 하니 어찌 사려 깊지 못한 것이 아니리오?
이는 아름다운 옥을 구덩이에 버리고 상서로운 난새를 까

[A] 막까지의 짝으로 삼음과 같으니, 깊이 애석하도다. 지금 배
승상은 가장 천자의 총애를 입어 위세와 복록을 이루어 그
권세가 두려울 만하거늘, 생질녀의 어짙을 듣고 그 아들
득량을 위하여 반드시 혼약을 맺고자 하니 그 호의를 저버
려서는 안 될지라. 바라건대 다시 깊이 헤아려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소부가 듣자마자 크게 노하여 가로되,

“어찌 식견 없는 말을 내는고? 배연령이 아무리 하늘을 태울
기세가 있고, 바다를 기울일 수완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노라. 더구나 딸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
은즉, 폐인이며 폐인이 아님을 논할 것 없이 자네가 간여할
바가 아니로다.”

시랑이 크게 부끄러워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 배연령
을 뵈어 가로되,

“백 소부의 뜻이 이미 굳건하니, 온갖 구실로 설득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거늘 연령이 노하여 꾸짖어 가로되,

“백문현이 어떤 존재이기에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는가?”

드디어 공부 좌시랑 황보박을 부추겨서, 평장사 백문현이 비
밀히 변방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피한다고 무
고(誣告)하게 하니, 천자가 크게 노하여 백 소부를 형리에게
부쳐 장차 죽이고자 하더라. 여러 대신이 교대로 상소를 올려
지극히 간하니 천자의 노여움이 누그러져서 소부의 작위를 거
두고 애주 참군으로 강등시켜 당일로 압송케 하니라. 조명(詔
命)*이 한번 내리매 만조백관이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 간하지
못하고, 백 소부의 집은 상하가 다 통곡함을 마지아니하더라.

- 서유영, 「육미당기(六美堂記)」 -

* 시참 : 우연히 지은 시가 이상하게도 뒷일과 꼭 맞는 일.

* 조명 : 천자의 명령을 적은 문서.

4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부모의 개입 없이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② 개인의 혼사 문제가 가문의 성쇠와 관련되고 있다.
- ③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 ④ 대신들 간의 다툼으로 천자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 ⑤ 간신들이 오랑캐와 결탁하여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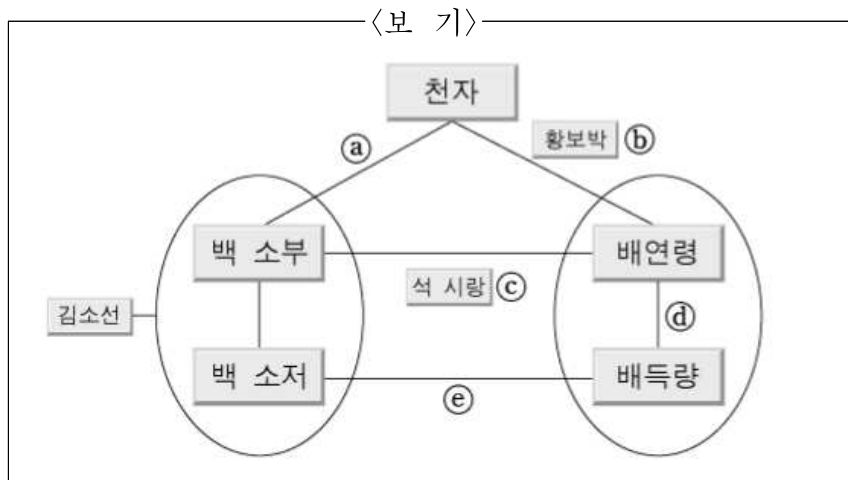
44. ㉠과 관련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김소선과 백 소저의 관계가 긴밀
해지고 있다.
- ② 시의 내용으로 보아 백 소저가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시에 대한 백 소부의 평으로 보아 백 소저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시를 주며 맹약을 잊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 소부가 김
소선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백 소부가 ‘시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아 장차 백 소
저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5.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석 시량은 생질녀의 용모와 인품을 치켜세우고 있다.
- ② 석 시량은 생질녀와 혼약을 맺은 상대를 폄하하고 있다.
- ③ 석 시량은 비유를 활용하여 백 소부의 성품을 미화하고 있다.
- ④ 석 시량은 권력자의 위세를 두려워하며 그에 편승하고 있다.
- ⑤ 석 시량은 장차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암시하며 백 소부를 설득하고 있다.

46. 윗글의 인물 간 관계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백 소부는 천자의 노여움을 사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② ㉡: 황보박은 배연령과 천자 사이에서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있다.
- ③ ㉢: 백 소부와 배연령은 석 시량을 통해 막역지우(莫逆之友)가 되었다.
- ④ ㉣: 배득량은 배연령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다.
- ⑤ ㉤: 배득량은 백 소저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에 놓여 있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2.11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되,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웬일인데 어찌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두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허 오누?”

“인전 어머니서꺼 서울로 모셔 갈 채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테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것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여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낱알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 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

[A] 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얇한 것, 얇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둑에 선 느르나문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현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가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번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되지 않드라.”

“…….”

- 이태준, 「돌다리」 -

13. 윗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 ①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하다.
- ②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가다.
- ③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 ④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⑤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
-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15.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을 통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의 진심이 드러난다.
- ②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함으로써,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 드러난다.
- ④ 건물의 일부에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을 통해, 배려심 많은 '창섭'의 성격에 개연성이 더해진다.
- ⑤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창섭'의 말투를 실감 나게 표현하여,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를 제시한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소애(場所愛)'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인 장소에 애착하는 심성이다.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이 대표적인 장소애의 대상이었으나, 근대 이후 도시 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 ① '창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아버지'에게 돌다리 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 ③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가) 정(鄭)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에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이라 했다. 나이 마흔에 손수 교정해 낸 책이 만 권이었고, 또 구경(九經)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이었다. 천자가 그의 행의(行義)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이름을 사모했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그 고을 몇 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과부지러(東里寡婦之間)'라 했다.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들 다섯을 두었으니,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姓)을 지녔다.

(나) 어느 날 ㉠밭, 다섯 아들이 서로 말했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밭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곽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다섯 형제가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엔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북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솔과 세발솔은 무얼 본떠 만들었나.

흥(興)이라.”

(다) 이에 다섯 아들이 서로 수군댔다.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곽 선생은 어진 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들으니, 우리 고을의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 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둔갑하여 사람 시늉을 할 수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게다.”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내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기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길길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머리를 왼편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영영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훥(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

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 자리에 서웁니다.”

범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듣건대, 유(儒)*란 것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듣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웁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밭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건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려.”

- 박지원, 「호질」 -

* 유(儒): 선비.

* 유(諛): 아침하다.

2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다.
- ② (나)에 비해 (다)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된다.
- ③ (다)는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④ (라)는 행위에 의해,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 갈등이 해결된다.
- ⑤ (마)는 (가)와 구조 면에서 호응하여 작품의 완결성을 높여 준다.

2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② ㉡: 북곽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 ③ ㉢: 북곽 선생의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 ④ ㉣: 북곽 선생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 ⑤ ㉤: 북곽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에서 다섯 아들은 북곽 선생을 여우로 여기고 있다. 이는 북곽 선생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하여 작가가 마련한 설정으로, 그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은 북곽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 ① '여우가 사람 시늬를 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진정한 선비가 아님을 암시한다.
- ②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부를 이용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 ③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농부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를 예고한다.
- ④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린다'는 말은 북곽 선생이 범 앞에서 비위를 맞추려는 행위와 연결된다.
- ⑤ '여우를 잡아 죽이자'는 말은 북곽 선생이 봉변을 당할 것임을 시사한다.

28. (라)~(바)에 나타난 북곽 선생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자화자찬(自畫自讚)
- ② 감언이설(甘言利說)
- ③ 임기응변(臨機應變)
- ④ 대경실색(大驚失色)
- ⑤ 전전긍긍(戰戰兢兢)

(가)

차레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쭉쭉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짜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박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A]
[B]
[C]
[D]
[E]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서 남풍 불 제 나는 좋테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서 남풍 불 제 나는 좋테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꿇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 영 : 고개.

(다)

얕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빛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돌려 상시(常時)과저*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찾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단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 이광명, 「북찬가(北竄歌)」 -

* 꿈을 돌려 상시과저 :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학발자안 : 머리가 하얗게 센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안족서신 :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일반고사 :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 내고 있다.
- ⑤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32.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보리'와 (나)의 '보리'는 두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동일함을 알려 준다.
- ② (가)의 '꿈'과 (다)의 '꿈'은 출세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 ③ (가)의 '강물 소리'와 (나)의 '노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나)의 '남풍'과 (다)의 '추풍'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와 화자를 매개한다.
- ⑤ (나)의 '구름'과 (다)의 '구름'은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때 ㉠ 동리 사람들, 들것에 복조 송장을 태워 들어온다. 물이 똑똑 떨어진다. 복실과 분 어미, 의아하여 잠시 보고 있더니 달려들어 목 놓고 운다. 동리 사람들, 소리를 낮춰 힐끔힐끔 운다.

간(間)

처 (부엌에서 나오며) 왜들 우니?

분 어미와 복실 어머니, 복조예요.

동리 사람 3 ㉡ 쇠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 범바위 틈에 꺾습디다.

처 물에서 죽은 놈이 복조뿐인가? 어떻게 복조라고 장담해. (아무 관계없는 듯이 부엌으로 들어간다.)

(노어부를 석이와 윤 침지가 양편에서 짝 붙들고 들어온다.)

노어부 와. 두고 볼 거 아니야.

윤 침지 참어. 참는 데 복이 있다네. 그저 참는 것이 제일이야. 참을 인(忍) 자가 셋이면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말이 있지 않나.

석이 (그제야 들것과 사람들을 보고) 누나, 이것이 작은형이요? (붙들고 운다.)

윤 침지 찾았으니 다행이군. (눈물을 씻는다.)

노어부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눈물을 닦으며 서러운 소리로 똑똑히) 몇 해 전에는 배도 서너 척 있었고, 그물도 동리에 뛰어나게 가졌드랬지. 배 팔고 그물 팔고 나머지는 뭐냐? 내 살덩이밖에 없었어. 그것도 다 못해서 다리 한쪽 뺏겼지. 고기잡이 3년에 자식 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윤 침지…….

윤 침지 …….

노어부 나를 두고 하는 말이야. 두고 보고 바랄 것이 인제는 하나도 없어. (별안간 부엌 뒤로 퇴장. 들어가더니 썩이를 들고 나온다. 뒤따라 처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부지 썩이로 노어부의 머리를 후려 때린다. 노어부 쓰러진다.)

처 (썩이를 잡아 뺏으며) 이 썩이가 무슨 썩인 줄 알아?

노어부 (덤벼려다가 처의 너무도 헬썩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돌려 복조를 붙들고 운다.)

처 내가 맑은 물 떠 놓고 수신께 빌었거든. 이것은 우리 복조 아니야. 내 정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전신을 파먹히게 안 했을 거야. 지금쯤은 너구리섬 동녘에 있는 시퍼런 깊은 물속에. 참 거기는 미역 냄새가 향기롭지. 그리고 백옥 같은 모래가 깔렸지. 거기서 팔다리 쭉-뻗고 눈감았을 거야. 나는 지금 눈에 완전히 보이는 걸. 복조 배 위로 무지개빛 같은 고기가 쭉- 지나갔어.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물리치는 듯이 손으로 앞을 가리며) 눈감은 얼굴이 너무도 쓸쓸하군. 이렇-게 (시늉을 하며) 원망스러운 얼굴이야. 불만스러운 얼굴이야. 다문 입이 너무도 쓸쓸해.

간(間), 울음소리

통창으로 가야지. 서남풍이 자고, 동풍이 불면 나를 만나러 올지도 몰라. 아니야 꼭 올 거야. 저녁물 아니면 내일 아침물 그도 아니면 모래 아침물. 산수자리를 골라놓고 동쪽을 보고 기대려야지. (일동을 보고 픽 웃으며) 뭣 때문에 울어들? (썩이를 들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

석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속이 타서 발을 구르며) 아버지, 얼른 가서 어머니 좀 붙드세요. 얼른 얼른 아버지.

노어부 내 알 것 아니야.

석이 (어머니, 어머니 부르며 뒤따라 퇴장)

㉢ (멀리서 처의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번갈아 들린다.)

노어부 (일어서며) 윤 침지, 복망산으로 가지.

복실 촛불 하나 안 키고 관도 없이 어텔 가요?

분 어미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싼가. 뒤란에 검부락지 쓸어가듯 휩쓸어 가면 고만이야.

윤 침지 장성한 사람을 그럴 수 있나.

분 어미 (일어서며) 난 항구로 가겠다. 더 있는댔자 가슴만 줄이지. 울며 웃으며 한세상 살다 그럭저럭 죽을 때 되면 죽지. (언덕을 넘어 퇴장)

노어부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왜, 과부 수절하기가 싫으냐?

석이 (울면서 등장) ㉣ 어머니가 갯가에서 썩이로 물을 파며 통곡을 하시다가는 별안간 허파가 끊어진 것처럼 웃으며 (복실의 가슴에 안겨) 누나야. 어머니는 한세상 참말 헛사셨다. 왜 우리는 밤낮 울고불고 살아야 한단든?

복실 (머리를 쓰다듬으며) 굴뚝에 연기 한 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도 없었지.

석이 (울음 섞인 소리로, 그러나 한 마디 한 마디 똑똑히) 왜 그런지를 난 생각해 볼 테야. 긴긴 밤 갯가에서 조개 잡으며, 긴긴 낮 신작로 오가는 길에 생각해 볼 테야.

복실 (바다를 보고) 인제 물결이 자는구나.

윤 침지 ㉤ 먼동이 트는군. (나가면서)

(노어부를 보고) 사람 삼키더니 물결이 얼음판 같아졌지. 자네 한 잔 쭉- 들이키고 수염 닦는 듯이. 어서 초상 준비나 하게. 상엿집에 행하니 다녀올 테니.

— 막 —

- 함세덕, 「산허구리」 -

37.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복조'와 '복실'은 평소에 친했던 이웃이다.
- ② '석이'는 형의 죽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③ '윤 침지'는 '노어부'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 ④ '분 어미'는 친정이 있는 항구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 ⑤ '복실'은 행복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38. ㉠~㉤을 통해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관객에게 전달되고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알려 주고 있다.
- ② ㉠과 상반된 ㉡의 정보로 인해, ㉡에 대한 관객들의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 ③ ㉢은 무대 밖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청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④ ㉣은 무대 밖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추후에 알려 주지만, ㉢과 연관되면서 무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환기하기도 한다.
- ⑤ 관객은 ㉤을 통해 시간의 경과를 분명하게 인지하여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39. <보기>의 ㉠~㉥ 중 [A]의 **꺽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꺽이는 '복조'가 사용하던 것으로, 사건 진행과 인물의 정서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도구이다. 처음에 꺽이는 관객이 볼 수 없는 부엌 뒤에 놓여 있었는데, ㉠ '노어부'가 무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관객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이후 꺽이는 ㉡ '처'가 '노어부'를 뒤따라 움직이는 계기를 제공하고, ㉢ '처'가 '노어부'와 충돌하게 만드는 매개체 구실을 하며, ㉣ '처'가 내면 심경을 직접 토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 관객들은 꺽이에 대한 '처'의 집착을 지켜보면서 '처'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
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
한 하늘을 스치는 ㉢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
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
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나)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बाट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बात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무뚝개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뉘 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बात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A]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을 떠 있다

- 장석남, 「배를 매며」 -

(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
에 달이 쫓아 베개 말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
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땠다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걸어 놓고 공작(孔雀)
을 둘러 두니 가뜰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

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어 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 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출시고. 산
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
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열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건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
니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어 내
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져. 누 위에 걸어 두고 팔황(八荒)
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낮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
고처(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 하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
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져.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져.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건어 해 저문 대
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입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썰
꼬.

- 정철, 「사미인곡」 -

* 양금 : 원앙을 수놓은 이불. 혹은 부부가 함께 덮는 이불.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④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가)와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조가 유사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에 통
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
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가)는 제5행에서, (나)는 제3연에서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
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현재 상황을 자연 현상과 대비하며
시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
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알 수 없어요」를 비롯한 한용운의 시는 '절대자'라는 궁극적 존재를 탐구하는 시이다. 동시에 그것은 역설에 의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 또는 자기 극복의 시이기도 하다. 「알 수 없어요」에서는 이런 점이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강화되어 나타난다.

- ① ㉠: '바람도 없는 ~ 오동잎'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누구'로 표현된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군.
- ② ㉡: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변뇌와도 같은 것이군.
- ③ ㉢: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와 짝을 이루어,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⑤ ㉤: '타고 남은 ~ 됩니다'와 관련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자기 정립에 대한 화자의 열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군.

16.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랑을 갈구하는 화자의 행동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화자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
-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어.
- ④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
- ⑤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어.

17. (나)의 '부딪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딪가'는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시련의 공간, '수막'은 이별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 ② '부딪가'는 익명의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동체적 공간, '수막'은 타인들로부터 은폐된 개인적 공간이다.
- ③ '부딪가'는 화자가 회귀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간, '수막'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현재의 공간이다.
- ④ '부딪가'는 사랑하는 대상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⑤ '부딪가'는 화자가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공간, '수막'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남성 작가가 자신의 분신으로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우리 시가의 한 전통이다. 궁궐을 떠난 신하가 임금에 그리워하면서 지은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

- ① '옷'을 지어 '백옥함'에 담아 임에게 보내려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 ② 지상의 화자가 천상의 '달'과 '별'을 매개로 임을 떠올린 것은 군신 사이의 수직적 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에서 시적 화자와 청자가 실제로는 신하와 임금의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 ⑤ 긴긴 겨울밤을 배경으로 차가운 '앙금'을 통해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로 치환한 결과이다.

(가) 그맘쯤에 웬 난데없는 비렁뱅이 가객(歌客) 하나이 구부러진 등에 거문고 엇비슷이 메고 진창에 맨발을 축축 담그면서, 제가 아직 어찌 될 줄 모르고서 저자의 가운뎃길로 하염없이 내려왔던 것이었다. 거문고를 메었으니 노래라도 할 줄 알겠구나 싶었으되, 꼬락서니가 내 사촌이 틀림없었다. 나는 다리 아래 쪼그리고 앉아 이제 막 살얼음이 풀리기 시작한 또랑물 속으로 짜락눈이 떨어져 녹아 사라지는 모양을 내려다보는 중이었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 이상한 가락이 내 어깨 위에 미풍같이 나부끼며 었히고, 다시 목덜미로 깊숙이 꽃히더니 정수리에서 발뒤꿈치로 뚫고 들어와 땀돌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직하고 힘찬 목소리가 가락 위에 턱 걸쳐서는 이 싸늘하고 구죽죽한 저자를 따뜻하게 덥히는 것만 같았다. 나만 일어섰는가? 아니다. 내가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안달을 온 몸에 싣고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자의 술집 창문마다 가게 빈지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끄집어내어지는 중이었다. 다리 위에서 비렁뱅이 가객은 거문고를 무릎에 올려 놓고 앉아서 고개를 푹 숙여 머리가 없는 자처럼 땅속에 다 소리를 심고 있었다. 술 먹던 사람들과 수다쟁이 떡장수 아낙네며 나들이 나온 처자들이 모두 한두 발짝씩 모여들어 다리 위에는 음률에 끌린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소리로구나. 저런 소리는 이 저자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 들었다.”

한 곡조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제각기 허리춤을 끄르고 돈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돈이 떨어지는 소리가 잦아질 제 나는 새암과 선망으로 이를 악물었고 다음에는 저 신묘한 소리로 돈을 벌게 하는 거문고를 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

“하나 더 해라.”

“이번에는 긴 것을 해 보아라.”

사람들이 제각기 아우성을 치는데, 가객은 고개를 가슴팍에 콕 처박고 잠잠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부지깽이처럼 길고도 여원 손을 뻗쳐서 무릎 근처에 흩어진 돈들을 긂어모아서는 제 자리 밑에다 쓸어 넣는 것이었다.

“노래를 한 가지밖에 모르느냐.”

“얼굴을 들고 해라, 안 보인다.”

“고개를 들어라.”

내던진 밑천을 뽑으려고 주변에 웅기중기 모여 앉은 사람들은 비렁뱅이 가객의 얼굴을 보려고 자꾸만 재촉했다. 고개를 처박고 있던 그가 작심했다는 듯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제 앞에 모인 사람들을 한 바퀴 휘이 둘러보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회가 동했을 때처럼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가객은 이 세상에서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그 더러운 얼굴은 더욱 흉하게 일그러져 가락의 신묘한 아름다움은 그 추한 얼굴에 씌워 사그라지고 말았다. 눈도 코도 입도, 제자리에 붙어 있건만, 어쩐지 얼굴이 자아내는 분위기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증오는 곧 심한 역증이 나게끔 했다.

[중략 줄거리] 가객 ‘수추’는 저자를 떠나 강을 건너간 뒤, 시냇가에서 음률을 완성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나) 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 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률을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수추는 그럴수록 노래를 끝없이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수추는 강 건너편 광야에서 몇 날 몇 밤을 짐승들이 일시에 몸서리치면서 달아났다가, 다시 밤이 되면 그의 노래를 들으려고 모여들고, 또 해가 떠오르면 그의 곁에서 달아나는 일을 헤일 수도 없이 겪었다. 그는 이러한 애증(愛憎)에 시달려서 자꾸만 여위어 갔다.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흰한 대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얽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만이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수추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 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였다.

- 황석영, 「가객」 -

2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역전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하여 그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두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인물이 겪는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 ③ (가)와 (나)에 내재되어 있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나)에서 해소되고 있다.
- ④ (나)에 비해 (가)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 ⑤ (가)의 저자 사람들과 (나)의 짐승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모여 들고 있다.

28. ㉠과 ㉡의 공통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추의 자기 확인을 매개한다.
- ② 수추가 처한 고난을 상징한다.
- ③ 수추의 과거 회상을 유도한다.
- ④ 수추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한다.
- ⑤ 수추의 불가피한 운명을 암시한다.

29.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속의 '예술가·작품·사회·수용자'의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예술 작품의 수용은 예술가와 작품, 예술가와 수용자, 작품과 사회, 작품과 수용자 사이의 관계와 작품 자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① 다리 아래에서 '수추'의 첫 노래를 들은 '나'는 수용자로서 작품 자체에 자극받아 예술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군.
- ② '수추'의 첫 노래를 듣고 저자 사람들이 돈을 내던지는 것을 본 '나'는 작품이 수용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깨닫고 있군.
- ③ '수추'의 얼굴을 보고 난 뒤에 그의 두 번째 노래를 들은 저자 사람들은 작품을 예술가와 연계하여 수용하고 있군.
- ④ 강을 건너간 뒤에 노래를 부르는 '수추'는 자기 작품 속에 형상화된 사회에 대해 수용자가 보인 반응을 의식하고 있군.
- ⑤ 강을 건너간 뒤에 거문고를 부숴 버린 후, '수추'는 예술가인 자신의 용모와 자기 작품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06

이때 동래 부사 송정이 사신 온다는 공문을 보고 웃으며 왈,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늘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 이
 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
 하더니 하인이 보하되,
 “사명당 행차 온다 하오니 어찌 접대하리이까.”
 송정이 분부 왈,
 “상례로 대접하라. 제 비록 부처라 한들 어찌 곧이들으리오.”
 하고 심상히 여기거늘, 하인 분부를 듣고 나와 부사의 말을 이
 르고 왈,
 “지방관의 도리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을 가버이 여기거니
 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
 하더니 자연 삼일 만에 이르렀는지라. 대접하는 도리와 수용하
 는 일이 가장 소홀하거늘 사명당이 대로하여 객사에 좌기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송정을 잡아 계하에 꿇게 하고 이르되,
 “네 벼슬이 비록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내 비록 중이나 일국
 대사마장군이요 봉명 사신이어늘 네 한갓 벼슬만 믿고 국명
 을 심상히 여겨 방자함이 태심하니 내어 배어 국법을 엄히
 하라.”
 하고 즉시 나라에 장문하여 선참후계(先斬後啓)*하고 인하여
 길을 떠날 새 순풍을 만나 행선하니라.

[중략 줄거리]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하자 왜왕은 사명당의 신통력
 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채만홍이 주왈,
 “신의 소견은 철마를 만들어 불같이 달구고 사명당을 태우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왜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풀무를 놓고 철마를 지어 만
 든 후 백탄을 피같이 쌓고 철마를 그 위에 놓아 불같이 달군
 후에 사명당을 청하여 가로되,
 “저 말을 능히 타면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 납관을 쓰고 조선 향산을 향하여
 사배하더니 문득 서녘에서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천지가 희미하
 거늘 사명당이 마지못하여 정히 철마를 타려 하더니 홀연 벽력
 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눕는 듯하고 태풍이 진작하여 모래 날리
 고 돌이 달음질하고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사람이 지척
 을 분변치 못하는지라. 경각 사이에 성중에 물이 불어 넘쳐 바
 다가 되고 성 외의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
 하되 사명당 있는 곳은 비 한 방울이 아니 젖는지라. 왜왕이
 경황실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오.”
 예부상서 한자경이 주왈,
 “처음에 신의 말을 들었사오면 어찌 오늘날 환이 있으리이
 까. 방금 사세를 생각하옵건대 조선에 항복하여 백성을 평안
 히 함만 같지 못하나이다.”
 ㉠ 왜왕이 자경의 말을 듣고 마지못하여 항서를 써 보내니
 사명당이 높이 좌하고 삼해 용왕을 호령하더니 문득 보하되,
 “네 나라 항복받기는 내 손아귀에 있거니와 왜왕의 머리를
 베어 상에 받쳐 들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일본을 떨하
 여 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네 돌아가 왜왕에게
 자세히 이르라.”
 사자 돌아가 전말을 고하니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
 이고 능히 할 말을 못하거늘 관백이 주왈,

“전하는 모름지기 옥체를 진중하소서.”
 왕이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남은 백성이 살기를 도모하여 사
 면팔방으로 헤어져 우는 소리, 유월 염천에 큰비 오고 방초 중
 의 왕머구리 소리 같은지라. 왕이 이 광경을 보니 만신이 떨려
 능히 진정치 못하거늘 관백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 사명당께 드
 리니 사명당이 항서를 보고 대책 왈,
 “네 왕이 항복할진대 일찍이 항서를 드릴 것이어늘 어찌 감
 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하고 용왕을 불러 이르되,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
 용왕이 공중에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고 소
 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운무 중에 몸을 드러내니 사명당이 관백
 에게 왈,
 “네 빨리 돌아가 왜왕에게 일러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
 관백이 돌아가 그대로 고하니 왜왕이 창황 중 눈을 들어 하
 늘을 치밀어 보니 중천에 삼룡이 구름을 피우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었으니 형세 산악 같고 고기비늘이 어지러이 번쩍여 일
 광을 바수고 소리 벽력같아 천지진동하는지라. 이진걸이 주왈,
 “본국 보화를 다 바치고 항표(降表)를 올려 애걸하소서.”
 왕이 즉시 이진걸을 명하여 항표를 올린대 사명당이 대로
 왈,
 “네 나라 임금의 머리를 베어 들이라 한대 마침내 거역하니
 일본을 무찔러 혈천을 만들리라.”
 하고 인하여 육환장을 들어 공중을 향하여 축수하더니 문득 뇌
 성벽력이 진동하여 산악이 무너지는 듯 천지 컴컴한지라. 왜왕
 이 이때를 당하여 삼훈(三魂)이 흩어지며 칠백(七魄)이 달아나
 니라.

- 작자 미상, 「임진록」 -

* 봉명 사신 :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던 사신.
 * 선참후계 : 군율을 어긴 자를 먼저 처형한 뒤에 임금에게 아뢰
 던 일.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과장된 비유를 활용하여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5.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제삼자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 ②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 ④ 사명당의 종교적 신념과 송정의 윤리적 신념의 충돌에서 비롯
 된다.
- ⑤ 사명당은 명분과 직위를, 송정은 신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
 롯된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역사에 허구를 더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보상하면서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기도 했다.

- ① 사명당의 복수를 통해,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있군.
- ②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모습을 부각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통해,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④ 왜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전란으로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군.
- ⑤ 양반 대신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37.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울며 겨자 먹기
- ② 구리 찢러 절 받기
- ③ 울려는 아이 뺨 치기
- ④ 미련한 사람 곰 잡기
- ⑤ 뱀이 용 되어 큰소리하기

[앞부분의 줄거리]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매몰 사고가 발생한다. 마침 현장에 있던 홍 기자는 특종을 예감하며 보도에 나선다.

9. 현장

홍 기자 여기는 동진 광업소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갱구 매몰로 11명의 광부의 목숨을 빼앗은 광산 사고는 올 들어 두 번째 큰 사고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김창호 씨가 무려 열하루째 지하 1천5백 미터 아래서 구출의 손길이 닿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갇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고가 난 동5 갱구입니다. 먼저 김창호 구조위원회 회장이시며 동진 광업소 소장이신 권오창 선생님께 구조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

소장 (마이크 앞에 선다) 에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구조대는 지주공 2명, 조수 2명, 감독 1명, 신호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6시간씩 교대하여 불철주야 김창호 씨 구출에 온갖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앞으로 구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 애초 예상과 달리 갱목 철근 등의 장애물이 많은 데다 갱내에 물이 쏟아져 작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2, 3일 더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 기자 감사합니다.

비서관, 수행원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한다.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수행원, 경찰.

홍 기자 (기자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각계각층에서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기자1 대단합니다. 전 국민의 성원이 이렇게 뜨겁고 클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2 현지 주민들이 기자 숙소로 옥수수와 감자들을 삶아 갖고 와서 김창호 씨를 꼭 구해 달라고 호소할 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홍 기자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젖어 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홍성기 기자 말씀드렸습니다. (쪽지 보며)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 느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

10. 사무소와 갱내

전화벨 울리며 갱내를 비춘다. 지친 듯 쓰러져 있던 김창호, 간신히 몸을 움직여 전화를 받는다. 사무실엔 비서관, 수행원, 의사, 경찰 서장이 전화 거는 것을 지켜본다.

김창호 네?

소장 나 소장이오. 지금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서관을 보내셨습니다. 받아 보시오.

비서관 (전화 바꾼다)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 회장님께서 김창호 씨가 어서 구출되어 나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꼭 구출될

겁니다.

김창호 ㉠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

비서관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중략)

14. 기자 회견 석상

김창호, 주치의의 호위하에 단상에 앉는다. 기자들, 카메라맨, 카메라를 들이대자 김창호, 얼굴을 가린다.

카메라맨 김창호 씨, 얼굴 좀.

주치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시력이 약화돼서 카메라 플래시에 견디질 못합니다.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김창호에게 씌운다)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

플래시 터진다. ㉢ 김창호, 움찔거리지만 참고 견딘다.

홍 기자 김창호 씨, 우리 기자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환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가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김창호 씨가 구출되기까지 쭉 지켜보았던 한일 매스컴센터의 홍성기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창호 ㉣ (당황)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난 집에 가고 싶습니다!

주치의, 귀에 대고 뭐라고 한다.

김창호 ㉤ 저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자1 16일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 견디셨는데 어디서 그런 인내력이 나셨는지요?

김창호 예?

주치의, 쉽게 설명해 준다.

- 윤대성, 「출세기」 -

* 인터셉트 : 화면에 다음 화면을 끼워 넣음.

3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고 당사자 대신 다른 인물들을 통해 사고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 ②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상반된 견해를 드러내어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영상을 통해 구경꾼들의 태도를 드러내어 사건의 심각성과 대비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 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와 작위적인 이름으로 극적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있다.

39.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흥 기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달하고 있군.
- ② 소장은 취재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비서관은 현장에 등장하면서 언론을 의식하고 있군.
- ④ 기자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군.
- ⑤ 주치의는 기자 회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글의 제목 「출세기」의 ‘출세’는, 간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의 ㉠ 출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된다는 의미의 ㉡ 출세이기도 하다.

- ① ㉠에는 ㉡뿐만 아니라 ㉢를 확신하는 주인공의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 ② ㉡에는 주인공이 ㉠를 계기로 ㉢로 나아가는 상황에 대한 주변 인물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③ ㉢에는 ㉠에 대한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를 계기로 ㉢에 이르고자 하는 주인공의 집념이 드러나 있다.

“여보 장모! 춘향이냐 좀 보아야제?”
 [A]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
 리까?”

향단이 여짜오되,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를 치거든 가사이다.”

이때 마침 바라를 땡땡 치는구나. 향단은 미음상 이고 등
 룡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간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사정에도 간곳없네.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
 관(金冠)이요 몸에는 홍삼(紅衫)이라. 상사일념(相思一念) 끝
 에 만단정회(萬端情懷)하는 차라,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나 있을쏘냐.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 보소.”

“모르는 말이오. 예서 동헌이 마주치는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 염문(廉問)할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무어 어때, 염문이 무엇인고? 내가 부를게 가만있소! 춘향
 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B]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
 다.”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담락(氣絶膽落)할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C]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몹쓸 딸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
 방(天方地方) 다니다가 낙상(落傷)하기 쉽소. 이홍량은 오
 실라 마옵소서.”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잡잡하여 나 죽겠소! 일러 주오. 꿈 가운데 입을 만나 만단
 정회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
 식 왔소? 벼슬 띠고 내려온단 노문(路文) 왔소? 애고, 답답
 하여라!”

[D]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입
 을 생시에 본단 말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며,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相思不
 見) 그린 입을 이리 쉬이 만날쏘냐?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
 에 ㉠ 자나 누우나 임 그리워 일구월심(日久月深) 한(恨)일
 러니, 이내 신세 이리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려
 와 계시오?”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 보니, 어찌 아니 한심
 하라.

[E]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설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설위 마라.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쏘
 냐?”

춘향이 저의 모친 불러,

“한양성 서방님을 칠 년의 큰 가뭄에 백성들이 비 기다린들
 나와 같이 자진(自盡)턴가.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하릴없이 되었구나. 어머니,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략) 만수
 운환(漫垂雲鬢) 흐트러진 머리 이렇저렇 걷어 엮고 이리 비
 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샅군인 척 달려들
 어 둘러엮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 부용당(芙蓉堂)의
 적막하고 요직한 데 누어 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殮襲)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
 가,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지도 돌라 말고 육
 진장포(六鎭長布) 다시 염하여 조출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제,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라다가 ㉢ 선산(先山)밭치에 묻어 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守節冤死)* 춘향지묘(春香之墓)’라 여덟
 자만 새겨 주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해는 내
 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신원(伸冤)*이나 하여 주오. 애고 애고, 내 신세야.”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

* 수절원사 : 절개를 지키다 원통하게 죽음.

* 신원 :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의 삽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의 성격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대해 토의하였다.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절 및 신분 상승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은 춘향과 어사또의 사랑이 싹튼 곳이니까 두 사람의 추억
 이 어린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② ㉠을 춘향의 혼백이 위로받는 장소로 본다면 춘향이 어사또
 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③ ㉡은 수절원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춘향의 정절에 대한 보상
 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④ ㉡은 춘향의 한이 풀어지는 장소이자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 ⑤ ㉡은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
 판 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라 할 수 있어.

22. [A]~[E]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어사또'와 '춘향 모친'은 높임말로 서로에게 존대하고 있다.
- ② [B]: '춘향'은 자책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춘향'은 불평하는 말로 '모친'에 대한 원망(怨望)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춘향 모친'은 비꼬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 ⑤ [E]: '춘향'은 자문자답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23.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병상련(同病相憐)
- ② 오매불망(寤寐不忘)
-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 ④ 조변석개(朝變夕改)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낯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굽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태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2」 -

* 형형한 :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A)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B)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C)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각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
에는 (D)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E)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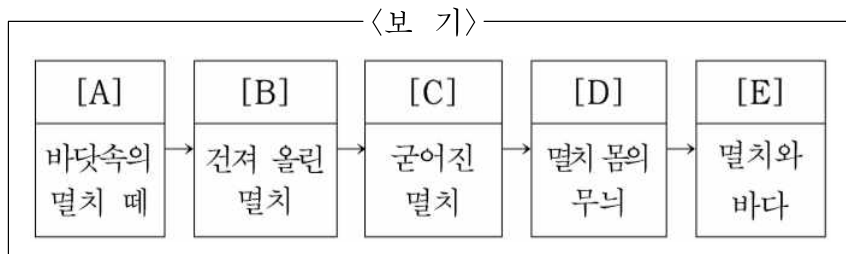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29.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D]는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가)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샤
 홀륭한 군자들이 님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들 이 없을 건 다만 이건가 여기노라
 이제는 소 빌 이* 맹세코 다시 말자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련만
 두세 이랑 발 눈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노라
 내 빈천 싫게 여겨 손을 저어 물러 가며
 남의 부귀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라
 인간 어느 일이 명(命) 밖에 생겼으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A]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소 빌 이 : 소 빌리는 일.

* 빈이무원 :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음.

(나)

천심절벽(千絶絶壁) 섰난 아래 일대 장강(一帶長江) 흘러간다.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 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
 두어라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는 몰라 하노라.

[B]
 <제2곡>

공산리(空山裏) 저 가는 달에 혼자 우는 저 두견(杜鵑)아.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백조(百鳥)*야 한(恨)하지 말아 내곳* 설워 하노라.

[C]
 <제4곡>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 어조 생애 :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생활.

* 백조 : 모든 새.

* 내곳 : 내가.

(다)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江上)의 어객인 양하고 나선 판에 그래도 그럴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 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라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쟁취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한묵(翰墨)*의 유희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

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틀리는 **소식** 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들어 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중략)

하도 답답하여 흑시 틈을 내어 강상의 어별(魚鱗)로 벗이나 삼을까 하여 틀에 어울리지 않는 낚싯대를 둘러메고 나가는 날이면 기껏해야 이따위 봉욕(逢辱)이나 당하고 돌아오기가 일쑤다.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란 언제나 이러한 것인가? 개구리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

아아!

잉어가 보고 싶다. 그 희멀건 눈을 번뜩거리며 깨끗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가, 연잎과 연잎 사이로 자유스럽게 유유히 왕래하는 현명한 신사 **잉어**가 보고 싶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 문한(文翰)과 필묵(筆墨)이라는 뜻으로,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3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있다.
- ② (나)는 정중한 어조로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 ③ (다)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구조를 통해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6. (가)~(다)의 소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죽'은 화자의 궁핍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② (나)의 '백구'는 화자가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다.
- ③ (다)의 '잉어'는 고상하고 순결한 존재를 의미한다.
- ④ (가)의 '풍월 강산'과 (나)의 '세간'은 풍류의 공간이다.
- ⑤ (나)의 '광풍'과 (다)의 '소식'은 화자를 번민하게 한다.

37. [A]부분에 <보기>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이본(異本)이 있다. <보기>가 추가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년 살라
 원헌(原憲)*이는 몇 날 살고 석숭(石崇)*이는 몇 해 살았나

* 원헌 : 춘추 시대에 청빈(淸貧)하게 산 학자.

* 석숭 : 진(晉)나라 때의 큰 부자.

- ① 여러 인물을 등장시켜 대화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② 새로운 공간을 더하여 사건의 선후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 ③ 이질적인 이야기를 삽입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사 속 인물을 끌어와 화자의 삶에 대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38. [B]와 [C]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의 초장은 수직과 수평 이미지를 통해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 ② [B]의 중장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의 초장은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④ [C]의 중장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B]와 [C]의 중장은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어옹'과 (다)의 화자를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그림은 바위에 앉아 낚시하고 있는 어옹(漁翁)을 그린 것이다. 어옹은 물고기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세상사를 넘어서서 홀로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 어옹은 세속의 명리(名利)를 떠나 자연 속에서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선비를 떠올리게 한다.

「한암조어(寒巖釣魚)」

- ① (다)의 화자는 '어옹'과 달리 현실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② (다)의 화자는 '어옹'과 달리 고기잡이를 통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③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잡으려는 대상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 ④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신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 ⑤ (다)의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연 속에서 함께 풍류를 즐길 벗을 원하고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 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 내기로 한다.

계연의 시뻘겑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는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빠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도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진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 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등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놓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킷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킷바퀴 위의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뻘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디 어찌겠냐.”

그리고 ㉡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

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쪽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엿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 빠꾸기는 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엿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나마 들어 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해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김동리, 「역마」 -

* 향라 적삼 : 명주, 모시, 무명실 따위로 된 한 겹의 윗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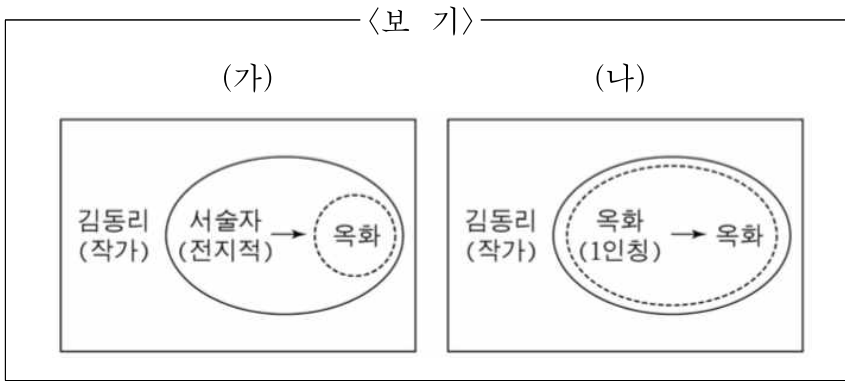
* 통정 : 통사정.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 명도 :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4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 ③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④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48. ㉠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점으로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②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③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으로 눈물로 씻었다.
- ④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 ⑤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엄마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49. ㉠과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향라 적삼’과 ‘고운 햇빛’은 모두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 ‘목소리’는 ‘뼈꾸기 울음’과 대조를 이루며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③ ㉡의 ‘햇빛’은 ‘유달리 맑게 갠’과 함께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고 있다.
- ④ ㉡의 ‘뼈꾸기’는 ‘화개 장터’와 연결되어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의 ‘버들가지’는 ‘또다시’와 연결되어 갈등이 재현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5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김동리는 「역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다.

ㄴ. 「역마」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 ① ㄱ에 따르면,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군.
- ② ㄱ에 따르면, 옛장수가 되어 떠나는 성기의 행동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군.
- ③ ㄴ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계연은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이군.
- ④ ㄴ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군.
- ⑤ ㄴ에 따르면,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이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11

막 씨 졸연 복통이 있어 마치 태중에 아이 놀 듯하여 점점 불러 오거늘 심히 괴이히 여겨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더니, 십삭에 미치는 산점*이 있어 ㉠ 초막(草幕)에 엎드렸더니, 해산하고 돌아보니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거늘, 막 씨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깨쳐도** 깨어지지 아니하거늘, 이에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보니 금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의심하여 집어다가 **깊은 물에** 들이치고 돌아오니 금방울이 물 위에 가볍게 떠다니다가 막 씨의 가는 양을 보고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지라.

막 씨 헤아리되,

‘나의 팔자 기구하여 이 같은 괴물을 만나 타일에 이로 인하여 반드시 큰 화근이 되리로다.’

하고 불 땀 때에 **아궁이**에 들이쳤더니, 닷새 후에 헤쳐 본즉 금방울이 뛰어나오되 상하기는커녕 새로이 금빛이 더욱 씩씩하고 ㉡ **향내** 진동하거늘, 막 씨 하릴없어 두고 보니 밤이면 품속에 들어 자고 낮이면 굴러다니며 혹 침때 **나는 새도 잡고** 나무에 올라 과실도 따 가지고 와 앞에 놓으니, 막 씨 자세히 본즉 속에서 실 같은 것이 온갖 것을 문혀 오되 그 털이 출입이 있어 평시에는 반반하고 뵈지 아니하거늘, 추위를 당하여도 방울이 굴러 품에 들면 조금도 춥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한데서 남의 방아를 쪼어 주고 저녁에 초막으로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막에서 내달아 반기는 듯 뛰놀거늘 막 씨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막 속으로 들어가니 그 속이 놀랍게 더우며 방울이 빛을 내어 밝기 낮 같거늘, 막 씨 기이히 여겨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 속에 두고 밤이면 품속에 품고 자더니, 방울이 점점 자라매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며** 진 데와 마른 데 없이 굴러다니되 몸에 흠이 묻지 아니하더라.

[중략 줄거리] 금방울을 탐내다 뜻을 이루지 못한 자가 금방울이 요괴롭다고 비방한다. 이에 고을 수령인 장 공은 막 씨를 잡아서 금방울을 제압하고자 하나, 오히려 금방울이神通력을 발휘하여 장 공은 먹고 자는 것조차 여의치 않게 된다.

부인이 막 씨 놓음을 권하니 장 공이 깨닫고 즉시 막 씨를 놓으니 그날부터 침식이 여전한지라. 장 공이 막 씨의 효행을 듣고 크게 뉘우쳐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 **정문(旌門)***을 세워 잡인을 금하고 달마다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

차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를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첩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전하소서.”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낮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

이로되 가늘게 썼으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씩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레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산점 : 해산의 기미.

* 정문 : 충신·효자·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월음 : 매달 주는 돈이나 물품.

* 수말 : 일의 처음부터 끝.

1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통해 불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⑤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막 씨의 당시 처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 ② ㉡ :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를 보여 준다.
- ③ ㉢ :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상징한다.
- ④ ㉣ :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 ⑤ ㉥ : 금방울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금방울전」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주인공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후, 방울을 깨고 사람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금방울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시련을 겪지만, 방울의 모습을 한 채로 자신의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 주인공이면서도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모습을 강하게 지닌다.

- ①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금방울의 변신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 ② 막 씨가 금방울을 '깊은 물'과 '아궁이'에 떨어뜨리는 행위는 어머니에 의한 금방울의 시련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막 씨가 금방울을 거둬 버려도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것은 금방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④ 금방울이 '나는 새도 잡고'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는 것 등은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금방울이 '보은초'를 구해 와 장 공의 부인을 살려 내는 것은 조력자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16.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구사일생(九死一生)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 ④ 순망치한(唇亡齒寒)
-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3.11

소년은 한길 한복판을 거의 설 사이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싶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차 뭇 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 보면 어떠냐고, 소년은 적이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든 그러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 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꿨다.

[A]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설 없이 뒤를 이어서 달리느냐. 어디 ‘장’이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사람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느냐. 이 층, 삼 층, 사 층…… 웬 집들이 이리 높고, 또 그 위에는 무슨 간판이 그리 유난스레도 많이 걸려 있느냐. 시골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이 불러 온 소년으로도, 어느 틈엔가, 제풀에 딱 벌려진 제 입을 어찌는 수 없이, 마분지 조각으로 고깔을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잇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수염 난 이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에도, 어린이의 마음은 건잡을 수 없게 들떴다.

(중략)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뭇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훗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잠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껍이나 재미스러웠다.

[B]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껄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서 뒹굴고, 그러는 깍정이* 때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일진댄, 그것들은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년은, 출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라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 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옹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의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지만,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은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애가 시골 아이다, 시골 아이야.”

철팔 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짝 아이들이,

“그래, 시골 아이야, 시골 아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열한두 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업혀 있는 두세 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가는 혀끝을 놀리어,

“시구라, 시구라.”

하고, 뻘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년은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붙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 ‘서울 아이’들이, “하, 하, 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싶게 한바탕을 웃었을 때, 소년은 귀밑까지 새빨개가지고 마음 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 저보다 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

“하, 하, 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러한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 번 끄떡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 가나 겁이 부쩍 나며, 그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 주고, ‘화신상’이나 구경시켜 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 데로 데리고 가 주고,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껍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 박태원, 「천변풍경」 -

* 임바네스 : 남자용 외투의 일종.

* 깍정이 : 거지.

1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심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 간 대화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의 관점에서 [A], [B]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문학 작품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해석한다.

- ① [A]: 소년의 의식과 행동의 특징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인물 유형을 분류해 본다.
- ② [A]: 소년과 아버지의 갈등에 주목하여, 그 갈등이 작품 전체의 주제로 발전될 가능성을 추론해 본다.
- ③ [A]: 여러 인물이 한 공간에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단서로 삼는다.
- ④ [B]: 작품 속 인물들의 외양에 주목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창작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 ⑤ [B]: 천변의 생활상에 주목하여, 당시 서울의 세태가 작품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본다.

19. ㉠~㉣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함께 ㉢, ㉣을 조롱하고 있다.
- ② ㉠은 ㉡과 달리 ㉣을 무시하고 있다.
- ③ ㉢은 ㉡에 기대어 ㉣에게 조언하고 있다.
- ④ ㉢은 ㉡이기는 하지만 ㉣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 ⑤ ㉢은 ㉠, ㉡, ㉣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이들은 자신의 꿈과는 다른 현실에 직면하여 심리적 혼돈 속에서 크게 위축된다. 도시는 문명의 화려함을 내세워 그들을 매혹하지만 안정된 삶의 장소를 내주지는 않는다. 도시 문명에 가려진 도시의 이면적 풍경, 인정이 메마른 도시인의 초상, 그리고 도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이 어우러져 도시 소설의 한 줄기를 이룬다.

- ① '창수'가 '다리 밑' 풍경조차도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고 여기는 데서, 도시의 이면적 실상을 직시하지 못하는 인물의 의식을 엿볼 수 있군.
- ②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고 한 데서, 혼돈에서 벗어나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군.
- ③ '창수'가 '자전거 종소리'에 허둥대는데도 계속 놀림을 당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입성한 인물이 현실에 직면하여 처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창수'가, '어른같이' 묻는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장면에서, 도시에 처음 입성한 인물이 겪는 심리적 위축 상태를 볼 수 있군.
- ⑤ '창수'가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목을 통해,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혼란을 겪는 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있는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 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만의 얽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피하지 마라

㉢ 빈 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 순례 11」 -

(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참새 때 왓자히 내려앉는 대숲 마을의

노오란 초가을의 초가지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토란 앞에 후두둑 빗방울 스치고 가는

여름날의 ㉣ 고요 적막한 뒤란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쿵쿵 울리며 가는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빈 들길을 걸어 걸어 흰 옷자락 날리며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파르라한 웃고름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아늑한 상큼한 짙벼늘에 파묻혀

나를 부르는 소리도 잊어버린 채

까닭 모를 굶은 눈물 흘리던 그 어린 저녁 무렵에도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싸락눈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작디작은 ㉤ 수레바퀴 자국을 뒤에 남기며

- 이시영, 「마음의 고향 6-초설」 -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②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다.
- ③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④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낸다.
- ⑤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수영은 한때 자유를 이상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뛰어넘으려고 했고, 오규원은 '순례' 연작시에서 생성과 변화를 중시하면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하려고 했다. 오규원에게는 그것이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영은 위대성에 주목하면서 대상의 숭고한 면이나 뛰어난 점을 발견하려 했고, 오규원은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와 몸의 이미지를 포착하려 했다.

- ① (가)의 '고매한 정신처럼'에서는, 생활인으로서 시인이 지녔던 고뇌와 대비되는 대상의 위대성을 느낄 수 있어.
- ② (나)의 '슬픔 하나', '고독 하나', '고통 하나'가 '자기를 헤집고 있다'는 것에서는, 몸의 이미지를 통해 관념에서 탈피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느낄 수 있어.
- ③ (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 ④ (가)에 비해 (나)의 화자는 흔들리는 현상을 바탕으로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하고 있어.
- ⑤ (가)의 대상이 지닌 숭고한 면모와, (나)의 대상이 지닌 동적인 속성은 자유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34.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향에서의 삶과 관련된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고향의 특정 인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상을 반전시키고 있다.
- ④ 고향을 떠나올 때의 장면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⑤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내세워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폭포'의 낙하가 지닌 항상성을 나타낸다.
- ② ㉡: '폭포'가 지닌 긍정적 속성들이다.
- ③ ㉢: 화자와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는 공간이다.
- ④ ㉣: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낸다.
- ⑤ ㉤: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를 표상한다.

- 권섭, 「독자왕유희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

(가)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엿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거문고 줄을 엮어 **풍입송(風入松)*** 이었구나
손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구나
장공(長空)에 뜬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 월하(瑤臺月下)*에 행여 아니 만나신가
손이 **주인**더러 이르되 그대 그인가 하노라

- 정철, 「성산별곡」 -

- * 한기 : 책.
-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 기산의~씻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주겠다는 요임금의 말을 듣자, 이를 거절하고 귀를 씻었다는 고사.
- * 박 소리 핑계하고 : 허유가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고 핑계하고.
- * 조장 : 기개 있는 품행.
- * 풍입송 : 악곡 이름.
- * 요대 월하 : 신선이 사는 달 아래.

(나)

벗님네 ㉡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떠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흥동(動)***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고
우리는 ㉢ **중시(重試)**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건 망혜(幘巾芒鞋)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 **승유편(勝遊篇)*** 지어 후세 유전(後世流傳)하리라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 **창** 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 **양신 미경(良辰美景)***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라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옷을 훨훨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 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마는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命名)하여 주고 또 나 자신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솔잎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 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群俗)을 떠나 **고고(孤高)**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선골(仙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겁남을녀의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는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의 영일*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는 한 잡음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이양하, 「신록 예찬」 -

- * 문법 : 문법 강의 시간.
- * 영일 : 일이 없이 평화스러움.

4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고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대상들의 속성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시간적 배경에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가)~(다)는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한기'에서 '성현', '호걸'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을 헤아려 보고 있다.
- ② '시운'이 '일락배락' 하는 것에서 화자는 역사의 영광과 고난을 깨닫고 있다.
- ③ 고사를 들어 '고불'의 '조장'이 높다고 하면서 화자는 세상에 초연했던 '고불'의 인생관을 긍정하고 있다.
- ④ '손'과 '주인'이 어울려 '풍입송'을 연주하는 장면에서 화자의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
- ⑤ 화자는 '손'의 말을 빌려 '주인'을 '진선'에 비유하며 '주인'의 흥취 있는 삶을 흠모하고 있다.

48. (가)의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 중 시적 의미가 ㉡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는 작자가 문관(文官) 등과 남산에 놀이 가기로 약속했으나 그들이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혼자 가게 된 경위와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제1수부터 제5수까지 '작자 - 문관 - 작자 - 또 다른 인물 - 작자' 순으로 인물이 달리 등장하고 있다. 회곡에서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각각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상적 시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① 제1수에서 제5수까지 화자를 바꿔 가며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제1수의 요청과 제2수의 불응, 제3수의 요청과 제4수의 불응이 반복되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③ 제1수의 화자의 의도를 제5수에서도 드러내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제3수의 종장과 제4수의 초장에서는 일상적 관용 어구를 사용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제4수의 중장과 종장에서는 생활 속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0.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권'은 신록을 누리는 글쓴이의 기쁨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군.
- ② 신록이 '고고'한 모습을 지닌다는 점에서, '나의 자리'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월적 공간으로 보아야겠군.
- ③ '기쁨의 노래'는 신록의 속성을 비유한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을 부각한 것이군.
- ④ 글쓴이는 사람 곁을 떠나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군.
- ⑤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대상과 동화하려는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A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A]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래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읍아가며 슬피 읍니다.

- 김소월, 「접동새」 -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3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에서 '누나'의 울음은 '누나'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 ② 2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2연의 '누나'와 관련된 사연이 제시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누나'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4연에서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와 '누나'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김소월의 시에서 한(恨)은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예컨대 한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怨望)이 충돌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맺힌다.

- ①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 ②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 ③ '이 산 저 산' 떠도는 새의 모습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 ④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 ⑤ '오래동생'과 이별하는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홀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를 자책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A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덩축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속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 몰려 달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지푸러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랄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이삼 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십 전이나 십오 전에 박아 주던 징을, 오십 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 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없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었다.
 “웁아,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열 개를 박아 주고 오 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없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都家)들이 제 맘대로 재료 값을 올리던 것이었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오곱 십곱 비싸졌다. 그러니 ㉢ 신기료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댔자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 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엠병혈! 그놈에 경제겐 다 어디루 가 뒤어. 독립은 우라진다구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퀘짜 어깨에 멘 채 핫김에 막걸리청으로 들

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게걸거렸다.

[중략 줄거리] 영어 실력 덕에 미군 통역관이 된 방삼복은 권력을 얻는다. 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을 해방 이후에 모두 빼앗긴 백 주사는 방삼복을 만나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 달라고 부탁한다.

㉔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보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웬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 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㉕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 라면야 코빼뜰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여보게 미씨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 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 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냉기지 말구섬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일랑 목을 썰어 죽이구, 다른 놈들일랑 뺨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 주구. 꿍어얏히 구 항복 받구.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루 다 찾구. 집허구 세간 쳐부신 것 말끔 다 물리구…… 그렇게만 해 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씨다 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답이었다.

“진정인가?”

“머, 지금 당장이래두,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면 엠피가 백 명이구 천 명이구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 발을 만들어 놉니다, 쑥발을.”

“고마우이!”

백 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서연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덤쑥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 놀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렵하겠나.”

“훤말이 아니라 참 ○○○ 박사두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바리유.”

미스터 방은 그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 꿀쩍 양치를 한다. ㉖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작중 인물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서술자는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35.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㉑: 새로운 국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인물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한다.
- ② ㉒: 치안 부재의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인물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한다.
- ③ ㉓: 물가 상승으로 대표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다.
- ④ ㉔: 전통 윤리를 회복해 타락한 세태를 견뎌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를 표현한다.
- ⑤ ㉕: 새로운 생활 문화를 체험하며 나타나는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표현한다.

36. 다음 학습 활동에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감상의 길잡이

이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알아보자.
 - 해방 직후의 서울
2. 작중 인물의 태도를 살펴보자.
 - 방삼복은 해방된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임.
 - 백 주사는 몰락을 가져온 현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
 - 백 주사는 갑자기 출세한 방삼복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임.
3. 작중 인물과 시대 현실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 보자.

[A]

- ① 방삼복의 출세를 통해 해방 직후 사회의 부정적 단면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② 백 주사의 몰락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 변화의 부당함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③ 현실에 대한 백 주사의 부정적 태도를 통해 그의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④ 현실에 대한 방삼복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통해 그의 현실 인식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 ⑤ 방삼복에 대한 백 주사의 이중적 태도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37. ㉕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찜 먹고 알 먹는다.
- ②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④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AB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을까.
 ㉠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짘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붙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38.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심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며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
- ② ㉡: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시집 식구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제시해 며느리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 결혼 후의 용모 변화를 자연물에 빗대어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40.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입을 믿어 딴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날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속미인곡」 -

- ① [A]와 <보기>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보기>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보기>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A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양 승상(양소유)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숙한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京師)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다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각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다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써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에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性眞) 행자(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豐都獄)*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功名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처소에 나아가니,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육관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 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내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에 ‘㉣ 장주(莊周)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 사부는 설법(說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 김만중, 「구운몽」 -

- * 풍도옥 : 지옥을 이르는 말.
- * 출장입상 :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됨.
- * 공명신퇴 :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낸 후 물러남.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 ③ 묘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 ② 노승은 양소유가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③ 성진은 꿈속의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알게 된다.
- ④ 양소유는 팔 낭자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 ⑤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운몽」은 '회의(懷疑)와 부정(否定)'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 성진이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마지막 육관 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은 작품에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구운몽」의 주제를 한층 심화시킨다.

- ①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다.
- ②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과 '두 번째 회의와 부정'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 ③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 ④ ㉣은 '세 번째 회의와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 주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 ⑤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AB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 화려하고 찬란한 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은 인생의 끝없는 봄이다.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 있는 홀겉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고 고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 물 위에 호수가 따로 없듯이 과거를 떠나서 오늘이 따로 없는 것. 그러므로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

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많이 가져본 **봄이 또 하나 느끼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 때, 십 리고 이십 리고 가서 뒤를 돌아다보고는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다보는 경치가 걸어들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그것이 슬프다. 보잘것없는 내 과거가 항상 오늘을 슬프게 할 뿐이다.

뜰 앞에 한 그루 밀감나무가 서 있다. **동쪽 가지** 끝에 파릇파릇 싹이 움 돋기 시작한다. 굵은 가지에서도 푸른 생기가 넘쳐흐른다. 미구에 잎이 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안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그러나 서쪽 가지에서는 소식이 없다. 나무의 절반은 죽은 가지다. 죽은 가지에 봄이 올 리 없다. 지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등걸만 남았을 때, 혹 죽지나 아니했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나겠지 믿기도 했었다. 그러나 같은 나무 한 등걸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보라 추운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저 동쪽 가지의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겨울 석 달 동안, 마음속으로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 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열 번 가면 열 개의 봄을, 가을이 백 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 지낸다.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 봄이요,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 봄이란 또 몇 날이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 윤오영, 「봄」 -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자연을 상대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④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⑤ 소재에 대한 일상적인 통념에서 출발하여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4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늙은이의 봄'을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② '봄이 또 하나 느끼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
- ③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화려한 청춘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어.
- ④ 겨울을 이겨 낸 '동쪽 가지'를 주목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어.
- ⑤ '생활에 따라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에서 봄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있어.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06B

조옹이 엿드려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대경(大驚) 왈,
 “우리 모자는 죄인이라 마음이 늘 숲에 앉은 새 같거늘, 네
 나가서 무슨 죄를 짓기라도 한 것이냐?”
 하니, 웅이 두려워하여 일어나 위로 왈,
 “어찌 남에게 죄를 지었겠나이까? 모자시간에 불효막심한 일
 이 있삽나이다.”
 하고, 강호에 다다라 장 소저를 취한 곡절을 아뢰니 부인이 대
 희(大喜) 왈,
 “죄 지은 자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옳구나. 본디 겁먹은 마
 음에 무슨 죄라도 지었는지 미리 겁을 먹고 놀랐구나.”
 하고 다시 물어 왈,
 “장 소저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네 말을 들으니 진정 네
 짝이로다. 그 또한 하늘이 시키심이니 어찌 인력으로 취하였
 으리오? 그러나 우리 형세가 이러하니 어찌 예절을 기다리겠
 느냐? 죄 될 것이 없으니 조금도 두려워 마라.”
 하며 다시 그 동안의 일과 장 소저 가문을 물으니 웅이 일일이
 아뢰니, 부인과 제승(諸僧)이 다 듣고 기이히 여겨 칭하(稱賀)
 왈,
 “하늘이 인도하심이라, 어찌 기특지 아니하리오?”
 월경 대사 왈,
 “부인은 소송이 전에 드린 말을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시나
 이까?”
 부인이 칭찬 왈,
 “우매한 소견으로 어찌 대사의 신기함을 알겠나이까?”
 하고 대사에게 항복함을 마지아니하더라.

[A]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러
 구러 삼 년이 되었는지라,
 일일은 웅이 부인에게 여쭙되,
 “소자 처음에 이리로 올 적에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사
 오니, 이제 슬하를 잠깐 떠나 선생께서 실망하시는 탄식
 이 없게 하겠나이다.”
 하니, 부인이 새로이 슬퍼 왈,
 “여러 해 그리던 마음을 다 펴지 못하고 또 가려 하니,
 네 말은 당연하나 정리(情理)에 절박하고 또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하니 네 회환(回還)이 더딜진대 네 거처를 어디
 가서 찾으리오?”
 월경 대사 왈,
 “부인은 추호도 염려치 마소서. 공자의 거처는 소송이 알
 고 있나이다.”
 부인이 이미 대사의 신기함을 아는지라, 부인 왈,
 “만일 대사가 아니면 객지에서 어찌 우리 모자가 서로 의
 지하리오?”
 하고 웅에게 왈,
 “부디 네 선생을 보고 속히 돌아오라.”
 당부하니, 웅이 하직하고 말을 달려 수일 만에 관산에 이
 르니 이전에 보던 산천이 모두 반기는 듯하더라.

[B] 달려들어 바로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리
 왼손으로 칼을 잘 쓴들 우편으로 범하니 기운이 줄어드는
 지라. 삼십여 합에 승부를 결치 못하였으나 강장의 형세가
 급한지라, 원수가 진전에서 두 장수의 싸움을 보고 칼을 들
 고 내달아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리 재주가
 용한들 어찌 창을 한 손으로 쓰리오. 이십여 합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더니 문득 강장의 창이 번뜻대며 삼대의 탄 말
 을 찢러 말이 거꾸러지니 삼대도 땅에 떨어지는지라. 원수
 가 달려들려 하니 삼대가 공중으로 솟아 달려들어 싸울새,
 원수가 강백과 더불어 급히 치니 삼대가 견디지 못하여 달
 아나더라. 원수가 말을 달려 급히 따르며 칼을 들어 삼대의
 창 든 손을 치니 삼대가 놀라 창을 버리고 공중으로 날아
 달리거늘 원수가 솟아올라 삼대의 목을 치더라.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문득 진전에 푸른 안개 일어나고 두 줄 무지개가
 공중에 뻗치거늘, 원수가 괴이하게 여겨 살펴보니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돋쳐 있더라.

삼대의 죽음을 보고 ㉠ 적진이 대경 황망하여 일시에 도망하
 거늘 원수와 강장이 본진에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니 여러 장수
 와 군졸이 치하하며 모두 즐기더라.

- 작자 미상, 「조옹전」 -

* 경적 : 적을 압복.

[중략 줄거리] 조옹은 이후 군대의 원수가 되어 황위를 찬탈한 이
 두병 세력과 전쟁을 벌이며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황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원수가 창으로 찌며 삼대의 우편으로 달려들며 집전하니
 삼대는 항상 왼손으로 칼을 날리며 좌편으로 달려들거늘 원수

가 계속 피하여 우편을 범하니, 이날 팔십여 합에 승부를 정하
 지 못하고 각각 본진으로 돌아오니라. 삼대가 크게 의심 왈,
 “조옹이 필연 무슨 아는 일이 있는가 싶으니 괴이하도다.”
 하고 행여 천기를 누설할까 두려워하더라. 원수가 본진으로 돌
 아와 강백더러 왈,
 “삼대는 용맹이 실로 범상한 장수가 아니라, 쉽사리 잡지 못
 할 것이니 내일은 강장이 먼저 나아가 싸우라. 내 기세를 타
 함께 싸우리라.”
 또 이르되,
 “삼대의 좌편을 범치 말고 부디 경적(輕敵)*지 말라.”
 하더라.

이튿날 삼대가 창을 들고 말을 내달아 크게 외치며 왈,
 “오늘은 맹세코 네 머리를 베어 분함을 씻으리라.”
 하고 진전(陣前)에 횡행하거늘 강백이 또 창을 들고 진전에 나
 서며 크게 외쳐 왈,
 “무지한 삼대는 들어라. 네 두 형의 혼백이 우리 진중에 간
 히어 나가지 못하고 주야로 울며 애통하되 ‘소장의 동생 삼
 대의 머리를 마저 바치울 것이니 가공한 혼백을 놓아 주옵소
 서.’ 하며 주야로 가공한 소리 진중에 낭자하거늘 네 아무리
 살리고자 한들 어찌 살리리오?”

[B] 달려들어 바로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리
 왼손으로 칼을 잘 쓴들 우편으로 범하니 기운이 줄어드는
 지라. 삼십여 합에 승부를 결치 못하였으나 강장의 형세가
 급한지라, 원수가 진전에서 두 장수의 싸움을 보고 칼을 들
 고 내달아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리 재주가
 용한들 어찌 창을 한 손으로 쓰리오. 이십여 합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더니 문득 강장의 창이 번뜻대며 삼대의 탄 말
 을 찢러 말이 거꾸러지니 삼대도 땅에 떨어지는지라. 원수
 가 달려들려 하니 삼대가 공중으로 솟아 달려들어 싸울새,
 원수가 강백과 더불어 급히 치니 삼대가 견디지 못하여 달
 아나더라. 원수가 말을 달려 급히 따르며 칼을 들어 삼대의
 창 든 손을 치니 삼대가 놀라 창을 버리고 공중으로 날아
 달리거늘 원수가 솟아올라 삼대의 목을 치더라.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문득 진전에 푸른 안개 일어나고 두 줄 무지개가
 공중에 뻗치거늘, 원수가 괴이하게 여겨 살펴보니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돋쳐 있더라.

삼대의 죽음을 보고 ㉠ 적진이 대경 황망하여 일시에 도망하
 거늘 원수와 강장이 본진에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니 여러 장수
 와 군졸이 치하하며 모두 즐기더라.

- 작자 미상, 「조옹전」 -

* 경적 : 적을 압복.

34.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사건의 압축적 제시와 대화 장면의 제시를 통해 사건
 전개에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② [B]는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상상과 현실 사이의 대립을
 부각하고 있다.
 ③ [A], [B] 모두 회상을 통해 사건의 면면을 제시하고 있다.
 ④ [A], [B] 모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
 내고 있다.
 ⑤ [A]는 세속적 공간을, [B]는 초월적 공간을 통해 인물의 내
 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백'은 의도적으로 '삼대'의 감정을 자극했다.
- ② '조웅'은 신의보다는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이끌렸다.
- ③ '삼대'는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여 '조웅'의 방심을 유도했다.
- ④ '부인'은 '조웅'이 고백하기 전에 그의 불효한 죄를 알고 있었다.
- ⑤ '월경 대사'는 '조웅'의 정해진 운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웅전」에는 흥미를 이끌어내는 요소로 '결연' 모티프와 '군담' 모티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연' 모티프는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긴장 관계 속에서 남녀간의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단위인데, 천명에 따르거나 주체적 의지에 따라 결연하는 주인공, 결연에 반대하거나 동의하는 부모, 결연을 합리화하는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군담' 모티프는 개인의 영웅적 능력이 국가적 위기에서 발휘되는 과정을 묘사한 이야기 단위인데, 조력자의 개입, 강력한 적수의 등장, 역동적 전투 장면 등으로 구성된다.

- ① '조웅'은 '부인'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결연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② '부인'은 '조웅'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여 아들의 결연을 합리화하고 있군.
- ③ '월경 대사'는 '조웅'의 수련을 돕는 것으로 보아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조웅'이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여 싸우는 역동적 장면은 서사적 흥미를 더하는 장치이겠군.
- ⑤ '삼대'에게 날개가 돋쳐 있는 모습을 서술하여 '삼대'가 '조웅'의 강력한 적수였음을 보여 주고 있군.

37.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혼비백산(魂飛魄散)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 ④ 분기탱천(憤氣撐天)
-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가)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
 ㉠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 손잔등이 발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푹푹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 백석, 「팔원(八院)-서행시초(西行詩抄) 3」 -

* 내임 : 냐. '배웅'의 평안 방언.

(나)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꺾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 하중오, 「동승」 -

38.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어린', '하나'는 화자가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다.
- ② ㉡에서 '발고랑'에 비유된 '손잔등'은 계집아이의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
- ③ ㉢에서 '삼백오십 리', '백오십 리'는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나타낸다.
- ④ ㉣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강조한다.
- ⑤ ㉤에서 '눈을 씻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

40.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시선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 평가의 의미를 띠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 ①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겠군.
- ②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겠군.
- ③ '저이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 ④ '나'가 황급히 '고개 돌렸'던 것은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행위겠군.
- ⑤ '동승'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 담긴 것이겠군.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하고 떡목판에 얹드러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든지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韜晦)*, 비굴(卑屈)……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쌓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둘러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유품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거나 상관없는 일이지마는, 아마 묘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꽤들 문젯거리, 화젯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껄껄 웃어 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다우.”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킁킁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둘러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서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루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

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綾羅紬衣)*를 입히고 백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든 말시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이든 쓴다는 말시오.”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차례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깎살릴* 것 다 깎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늙둥이 수작이 아니오? 허허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 자를 붙들고 한참 꾸짖음을 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 도회 :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

* 능라주의 : 비단옷과 명주옷.

* 깎살리다 :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호지부지 다 없애다.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2.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공동묘지 법’ 시행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 ② ‘나’는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나’는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의 목적이 묘지를 없애 집터를 넓히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 ⑤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 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 ①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에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젯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 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A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너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 [A]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 [B]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 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계절의 흐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사물의 의인화를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관념적인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과거 회상을 통해 반성적으로 화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밑둥'과 [B]의 '개울'은 실존적 위기감을 상징한다.
- ② [A]의 '한 계절'과 [B]의 '지는 해'는 극한 상황을 비유한다.
- ③ [A]의 '새순'과 [B]의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환기한다.
- ④ [A]와 [B]에는 모두 현실 부정의 비판적인 어조가 반복되고 있다.
- ⑤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33. 다음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활동 목표 : 시에 쓰인 어구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해 보자.

활동1 : 시상을 고려하여 ㉠과 관련된 어구를 시에서 찾아 표에 넣어 보자.

활동2 : 위의 어구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적어 보자.

활동3 : 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의 다양한 시적 의미를 해석해 보자.

활동 1의 탐구 결과	활동 2의 탐구 결과	활동 3의 탐구 결과
갈대	흔들리는 존재	㉠
하늘	초월적인 공간	㉡
바람	막을 수 없음	㉢
밤	부정적인 상황	㉣
손	만남의 대상	㉤

- ① ㉠: 1연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음을 보면, ㉠은 굳건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뜻하겠군.
- ② ㉡: 1연과 3연에서 '하늘'의 아래를 반복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은 초월적인 공간에 대응되는 현실적인 공간을 뜻하겠군.
- ③ ㉢: 3연에서 '바람'은 막을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은 영원한 운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을 뜻하겠군.
- ④ ㉣: 3연에서 '밤'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 ㉣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을 뜻하겠군.
- ⑤ ㉤: 3연에서 '손'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은 희망이 예비된 공간을 뜻하겠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A

그의 고객은 왜정 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썸속에 드는 측들이어야만 했다.

㉠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무테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묻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다.

아무튼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백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1·4후퇴 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셋방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오십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이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전문의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 윤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썸속이었지만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라는 의젓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 조끼 호주머니에서 십팔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두 시 사십 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이십 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왕진 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이기도 한 것이다.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 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통장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 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삼십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이십 대 흥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 시대,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의 ㉢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십칠 석.’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쩍쩍거리고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의 그의 가느다란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가 서리는 것이었고, 그 속에서는 각모(角帽)와 쓰메에리(목단이) 학생복을 벗어 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 주는 충동을 금할 길 없는 것이었다.

(중략)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숨을 헐레벌떡이며 이야기하는 혜숙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벅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

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인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혜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 하고 바깥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들을 끄집어내었다.

國語常用(국어*상용)의 家(가).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박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들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몇몇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측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 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 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술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 주었기에 이 종잇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 소리가 떠올랐다.

㉥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 전광용, 「꺼삐딴 리」 -

* 월삼 : 미국 시계 회사 '월삼'.

* 국어 : 일본어를 가리킴.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인 수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인 지성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사소한 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빈틈없고 까다로운 인물을 보여 준다.
- ② ㉡: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의 사려 깊은 자세를 보여 준다.
- ③ ㉢: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 기쁜 마음을 감춘 채 사태를 주시하는 주인공의 침착한 태도를 보여 준다.
- ④ ㉣: 시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⑤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자상한 모습을 보여 준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일제 강점기부터 6·25 한국전쟁 이후까지 격동기를 살아온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독자에게 인물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작품 이해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① '왕진 가방'은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로서 유랑 생활의 고단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를 형상화한 소재이다.
- ② 인생의 반려로 비유된 '시계'는 역사적 흐름을 한 인물의 삶에 담아 표현해 줄 수 있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이다.
- ③ '비상용 캐비닛'은 주인공의 성격을 형상화해 주는 소재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주인공의 주도면밀함을 보여 주는 사물이다.
- ④ '신사복'은 주인공이 사회생활의 시작 단계에서 가졌던 희망찬 기대를 표상하는 소재이다.
- ⑤ '라디오'는 소련군의 입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전달하는 소재로, 주인공이 새롭게 직면하게 된 변화된 정세를 제시해 준다.

37. ㉠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 ② 내우외환(內憂外患)
-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 ④ 사생결단(死生決斷)
- ⑤ 생사기로(生死岐路)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AB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겼구나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들어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제3수〉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侵擄)하니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뜻이야 앗을쏘냐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 옥인금차 : 미인의 비녀.

* 빙자옥질 :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아치고절 :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 백설양춘 :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3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매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제3수는 제1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6수는 대상이 시련을 겪는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제8수는 다른 자연물과 대상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제6수와 제8수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① '거문고와 노래'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 ② '잔 들어 권할 적에'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③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이다.
- ⑤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A

백선군이 잠깐 주막에서 조는데 ㉠ 문득 숙영낭자가 몸에 피를 흘리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선군의 곁에 앉아 슬프게 울며 말하기를,

“낭군이 임신양명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시니 기쁘기 측량 없사오나, 첩은 시운이 불행하여 세상을 버리고 황천객이 되었습니다. 전에 낭군의 편지 사연을 듣사온즉 낭군이 첩에게 향한 마음에 감격하오나, 첩은 천생연분이 천박하여 별 [A] 씨 유명을 달리하였으니 구천의 혼백이라도 한스럽습니다. 첩이 원혼이 된 사연을 아무쪼록 깨끗이 풀어 주시기를 낭군께 부탁하오니, 낭군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시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신이 될까 합니다.”

하고 간 데 없었다. ㉡ 선군이 놀라 깨어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심신이 떨려 진정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곁절을 헤아리지 못하여 인마를 재촉하여 여러 날 만에 풍산촌에 이르러 숙소를 정하였으나,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밤이 새기를 기다렸다. 문득 하인이 와서,

“상공(相公)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알렸다. 선군이 즉시 밖에 나가 부친께 문안을 드리고 방으로 되시고 들어가서 가내 안부를 여쭙었다. 상공이 주저하며 가족들이 잘 지낸다고 알리고, 선군이 장원하여 높은 벼슬을 하게 됨을 물어 기뻐하다가 이윽고 선군에게 은근한 말로,

“㉢ 장부가 출세하면 두 부인을 두는 것은 예부터 혼한 일이었다. 내 들으니 이 마을 임 진사의 딸이 매우 현숙하다 하기로 내가 이미 구혼하여 임 진사에게 허락을 받았다. 이왕이 곳에 왔으니 내일 아주 성례하고 집으로 돌아감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권하였다. 선군은 숙영낭자가 꿈에 나타난 뒤로 반신반의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던 차에 부친의 이런 말을 듣고 생각하되, ‘㉣ 낭자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나를 속이고 임낭자를 취하게 하여 훗날을 도모하고자 함이로다.’ 하고 이에 아뢰되,

“아버님 말은 지당하시나, 제 마음이 아직 급하지 아니합니다. 나중에 성혼하여도 늦지 아니하오니 그 말씀은 다시 이르지 마옵소서.”

하였다. 상공은 아들이 변심치 아니할 줄 알고 다시 말하지 못하고 밤을 지냈다. 첫닭이 울자마자 선군은 인마를 재촉하여 길에 올랐다.

(중략)

㉤ 선군이 소매를 걷고 빈소에 들어가 이불을 헤치고 보니, 낭자의 용모가 산 사람 같아서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선군이 부촉하여 이르기를,

“백선군이 왔으니, 이 칼이 빠지면 원수를 갚아 낭자의 원혼을 위로하리라.”

하고 몸에서 칼을 빼니, 칼이 문득 빠지며, 그 구멍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오며,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다시 파랑새가 한 마리가 또 나오며,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그제야 선군이 시비 매월의 소행인 줄 알고, 화를 이기지 못하여 급히 밖에 나와 형구를 벌이고 모든 노복을 차례로 신문하였다. 간악한 매월이 매를 견디지 못하여

승복하여 울며 가로되,

“상공께서 숙영낭자를 의심하시기로 제가 마침 원통한 마음이 있던 차에 때를 타서 감히 간계를 행하였으니, 함께 일을 꾸민 놈은 돌이로소이다.”

하거늘, 선군이 크게 노하여 돌이를 또 때리니 돌이가 매월의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노라 승복하였다. 선군이 이에 매월을 죽여 숙영낭자를 위한 제물로 삼고 제문을 읽었다.

[B] “성인도 속세에 노닐고, 숙녀도 험한 구설을 만남은 예부터 없지 않았으나, 낭자같이 지극 원통한 일이 어디 다시 있리오. 슬프다! 모두 나 선군의 탓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오늘날 매월의 원수는 갚았으나 낭자의 화용월태를 어디 가 다시 보리오. 다만 선군이 죽어 지하에 가 낭자를 좇을 것이니, 부모에게 불효가 되어도 어찌할 수 없으리이다.”

제문 읽기를 마치매 신체를 어루만지며 통곡한 후 돌이를 본읍에 넘겨 먼 절도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이때 상공 부부는 선군에게 바로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일이 이같이 탄로 남을 보고 도리어 무색하여 아무 말도 못하거늘 선군이 화평한 얼굴로 재삼 위로하였다.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41.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꿈’이라는 상황을 활용하여 원혼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제문’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위로의 진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A]는 원혼이 산 자에게 보내는 전언이고, [B]는 산 자가 원혼에게 보내는 응답이다.
- ④ [A]와 [B]는 상대방의 처지를 환기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
- ⑤ [A]와 [B]는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42. 윗글의 매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월이 죄를 자백한 것은 선군의 회유 때문이다.
- ② 매월에 대한 신문은 비현실적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 ③ 매월은 숙영낭자가 누명을 쓰게 되는 간계를 꾸몄다.
- ④ 매월이 간계를 꾸미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원통함이 자리잡고 있다.
- ⑤ 매월이 돌이를 사주하여 꾸민 일은 상공의 집안에 갈등을 초래하였다.

4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과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 처음에 과제를 부여받은 주인공은 왜 자신에게 그런 과제가 주어졌는지 의심한다. 더구나 방해자가 나타나 주인공의 과제 수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과제 수행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명감을 갖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행위를 적극 실행하여 과제를 완수한다. 이로써 주인공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다.

- ① ㉠은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낭자와 선군의 관계가 과제 수행의 전제임을 알 수 있어.
- ② ㉡은 과제 제시의 까닭을 의심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낭자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선군이 꿰뚫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은 과제 수행이 방해받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부자간의 갈등과 화해가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은 과제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아버지의 의사에 부응하여 도리를 다하려는 선군의 태도를 알 수 있어.
- ⑤ ㉤은 과제 해결이 완수된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낭자의 원한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어.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까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즐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 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펴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님이 돌아오세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툄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툄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 이근삼, 「원고지」 -

4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여 장남의 말과 배치되는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을 제시하여 교수가 처한 상황과 교수의 신분을 관객이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교수의 '비명' 같은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는 장녀의 대사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지는 효과를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교수와 처의 연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 ⑤ '철쇄'를 풀어 주는 처의 행위를 통해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이근삼 희곡에는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하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해설자는 관객들에게 인물·사건·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대에서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설자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을 극중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 ① 장남의 대사는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장남은 극중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 ③ 장녀는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준다.
- ④ 장녀는 해설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수·처와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 ⑤ 장녀는 관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극중 상황에 몰입하도록 인도한다.

[A]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이다. 그 조상은 농서(隴西) 출신이다. 90대(代) 선조였던 모(牟)가 후직(后稷)을 도와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모(牟)가 처음에는 숨어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받을 갈아 먹으리라.” 하며 밭이랑에서 살았다. 임금이 그의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며 각 고을에 명하여 후한 예물을 보내라 하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찾아가도록 해 결국 절구와 절굿공이 사이에서 귀천 없는 교분을 맺고, 자신을 덮어 감추고 세상과 더불어 화합하게 되었다.

(중략)

순은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 ㉠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창파(萬蒼波) 같으며, 맑게 하려 해도 더는 맑아질 수 없고 뒤흔든대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런 풍류 취향이 한 시대를 풍미하여 자못 사람의 기운을 일으켜 주었다.

일찍이 섭법사(葉法師)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하였는데,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탄복하여 쓰러지자, 드디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호를 ‘국(麴) 처사’라 하며 공경 대부분으로부터 머슴에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접하는 이마다 순이 오지 아니하면 모두 슬퍼하여 말하기를,

[B] “국 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했다. 그가 당시 세상에서 사랑받음이 이와 같았다.
산도(山濤)라는 이는 감식안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는 감탄하여 말했다.

㉡ “어떤 늙은 할미가 이토록 잘난 기린아를 낳았을까? 하지만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

관부(官府)에서 순을 불러 청주종사(靑州從事)*를 삼았으나,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라 하여 다시 평원독우(平原督郵)*를 시켰다. 얼마 후 탄식하기를,

㉢ ‘내가 이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받고, 이 따 시골 아이들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내 마땅히 술잔과 술상 사이에 곧추 서서 담론하리라.’

그 무렵 관상을 잘 보는 이가 있어 말했다.
“그대의 얼굴엔 불그레한 기운이 감돌고 있소.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높은 벼슬을 얻게 될 것이니, 마땅히 좋은 자리를 기다렸다가 벼슬에 나아가시오.”

진 후주(陳後主) 때에 임금이 그의 그릇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다 하여 광록대부 예빈경의 자리로 옮겨 주었고, 공(公)의 작위에 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무릇 군신의 회의에는 임금이 꼭 순으로 참여케 하니, 그 나아가고 물러남과 그 수작이 거슬림이 없이 뜻에 들어맞았다.

㉣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대접하며,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곁에서 모실 수 있었을 뿐, 아무리 임금과 가까운 신하여도 참여할 수 없었다.

[C] 이후로 임금은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은 ㉤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앞에서 간언할 줄 몰랐다. 그리하여 예법을 지키는 선비들은 그를 마치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은 매양 그를 감싸고

돌았다.

순은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므로, 사람들이 그를 친하게 여겼다. 임금이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소?”

하니, 순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돈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나이다.”

했다. 임금이 크게 웃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번은 조정에 들어가 임금 앞에 마주 대하고 아뢰었는데, 순이 본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고, 이에 임금이 싫어하며 말했다.

“경이 나이 들고 기운도 없어 나의 부림을 못 견디는구료!”

그러자 순은 마침내 관을 벗고 물러나면서 아뢰었다.

㉦ “신(臣)이 높은 벼슬을 받고 남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면 망신이 될까 두렵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왕의 명으로 좌우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온 순은 갑자기 병이 나 하룻밤 사이에 죽고 말았다.

[D] 자식은 없고 먼 친척 가운데 아우뻘 되는 청(淸)이, 훗날 당 나라에 출사(出仕)*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

사신(史臣)은 이게 말했다.

[E] “국 씨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고, 청백한 기상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울창주(鬱鬯酒)는 주나라에서 칭송이 하늘에 닿을 듯했으니, 가히 그 조상의 기풍이 있다 하겠다. 순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높은 벼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어 술 단지와 술상 사이에 서서 담론하게 되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산도(山濤)의 말을 죽히 믿을 만하다.”

- 임춘, 「국순전」 -

* 청주종사 : 배꼽 밑까지 시원하게 넘어가는 좋은 술. ‘높은 벼슬’을 뜻함.

* 평원독우 : 명치 위에 머물러 숨이 막히는 좋지 않은 술. ‘낮은 벼슬’을 뜻함.

* 출사 : 벼슬에 나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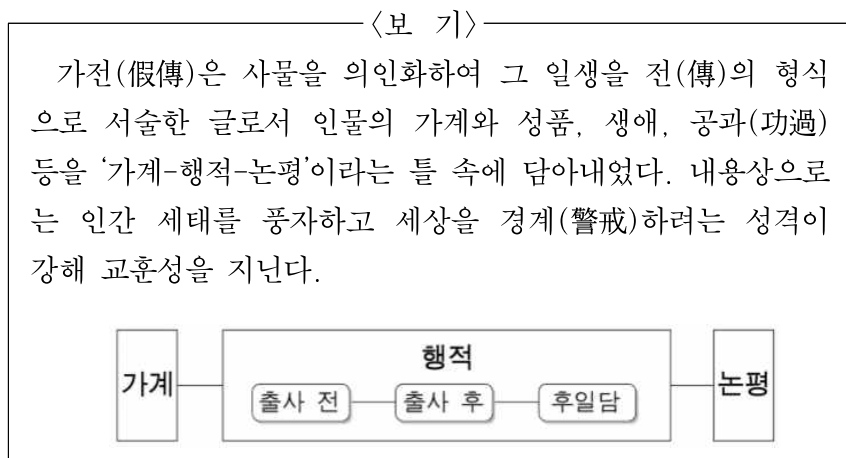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권위 있는 인물의 중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국순의 성품을 바다에 비유한 것으로, 넓고 깊은 국순의 마음을 의미한다.
- ② ㉡은 국순의 장래를 예언한 것으로, 국순이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경고한다.
- ③ ㉢은 불만족스러운 처지와 이를 넘어서려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국순의 자존심을 나타낸다.
- ④ ㉣은 국순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맡았던 소임을 기술했 것으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순의 면모를 부각한다.
- ⑤ ㉣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로, 선조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난 국순의 의지를 드러낸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가문 내력을 소개하는 가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주인공이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알려 주고 있군.
- ② [B]와 [C]는 주인공의 행적을 구분하여 [B]에서는 주로 주인공의 과오를, [C]에서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기술했고 있군.
- ③ [C]에서 형상화된 주인공의 행적으로부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E]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D]는 후대의 가문 내력을 기술했어 국순 가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E]는 사신(史臣)이 논평하는 객관적 형식을 활용하여 인간 세태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군.

37. ㉠을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함구무언(緘口無言)
- ② 중언부언(重言復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 ⑤ 어불성설(語不成說)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B

(가)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 영겁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 회한(悔恨)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

* 허적 : 아무것도 없이 적막함.

(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 달달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 이까짓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

[A]

[B]

[C]

- 신경림, 「농무」 -

3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나)는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를 통해 대상의 이면을 보여 준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대구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여운을 강화한다.

⑤ (가), (나)는 모두 시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워 이상향에 대한 화자의 동경을 드러낸다.

39. (가)의 [나]와 ㉠~㉤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 ② ㉡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 ③ ㉢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④ ㉣은 생명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가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 ⑤ ㉤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낸 표현이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 「농무」는 1970년 전후의 농촌의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다. 당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농촌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를 소재로 하여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독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 ① [A]에서 화자는 농무를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 오히려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②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은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줬다.
- ③ [C]에서 화자가 신명을 느끼는 것은 농무의 신명에 힘입어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줬다.
- ④ ㉠과 ㉡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어.
- ⑤ [C]에서 화자의 물음은 앞날을 낙관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던지는 자조적 물음으로도 이해될 수 있어.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9B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중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긐하고 웃겠지.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찡끔찡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책책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절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결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 눈에 보여 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중립국.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땅. 하루 종일 거리를 싸다난대도 어깨 한번 치는 사람이 없는 거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던지도 모를뿐더러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위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 최인훈, 「광장」 -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실제 공간의 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회상을 통해 대조적 체험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에 양상을 다면화하고 있다.

42. 난파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에 집착하는 존재이다.
- ② 정주할 곳에 도달한 존재이다.
- ③ 환상이 허황됨을 알아차린 존재이다.
- ④ 속세를 떠난 구도자가 되려는 존재이다.
- ⑤ 현실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존재이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4·19 직후에 발표된 최인훈의 「광장」은 당대에 금기시되던 이념 대립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친 점에서 전후 분단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 간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만이 아니라 각 체제 내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이념의 이름으로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광장」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①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처한 이의 심정이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 선택을 마치고 난 후에 보인 반응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② 개인의 이익보다 이념을 택하는 당대 지식인의 실천적 의지가 드러나 있어, 개인의 행복한 삶을 마다하고 낯선 땅으로 가려는 주인공의 선택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③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기에 급급한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나 있어, 미래에 대한 환상으로 사람들을 피는 마술사의 속임수를 비꼬듯 이야기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④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이들을 격리하려는 권력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어, 항구를 차지한 이들이 바다에서 돌아온 이들을 감금하려 한다는 대목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 ⑤ 이념적 대립 구도에 갇힌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적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드러나 있어, 주인공이 중립국에서 누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기술한 데에서 이를 엿볼 수 있지.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11A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이형기, 「낙화」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조적 표현을 통해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성어를 활용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③ 영탄과 독백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 하고 있는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⑤ ㉤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잊고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는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낙화」는 인간사의 이별을 꽃의 떨어짐에 비유함으로써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시련에 부딪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

- ① 제1연과 제3연의 '가야 할 때'는 이전과는 달라진 상황을 인식한 때라는 점에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로 할 수 있군.
- ② 제2연의 '봄 한철'과 제5연의 '꽃답게 죽는다'는 청춘기의 열정을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③ 제3연의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는 이별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수용이 자아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제6연의 '헤어지자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이별을 수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와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인정하려는 자아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⑤ 제7연의 '내 영혼의 슬픈 눈'은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시련을 통해 새로워지는 자아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11A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뛰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분열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것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 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찢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장이가 간다”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중략 줄거리] 아버지는 병들고 지쳐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나’, ‘영호’, ‘영희’는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말없이 집을 나간다.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팬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 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튕겨 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주 예뻐 보였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삼층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뭐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애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에 반전을 피하고 있다.
- ③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액자 구조를 통해 상이한 이야기가 갖는 유사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35. '어머니와 관련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② ㉡: '어머니'가 처한 현실과 상반된 지명이 현실의 모순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어머니'에게 닥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 ④ ㉣: 생활의 의지마저 포기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⑤ ㉤: '어머니'의 고조된 음성이 상황의 절박함을 암시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등장인물은 '지섭'을 통해 '죽은 땅'과 '달나라'라는 상징적 공간을 설정하여 '난장이' 일가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죽은 땅'은 '욕망'과 '불공평'이라는 속성으로, '달나라'는 '사랑'과 '남을 위한 눈물'이라는 속성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과 이상 세계를 향한 낭만적 풍경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불공평'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공고문'은 불평등한 현실의 문제를 들춰내는 소재이겠군.
- ② '욕망'을 '죽은 땅'의 속성으로 볼 때, '난장이' 가족의 어려움은 '욕망'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달나라'가 '죽은 땅'과 대조되는 것으로 볼 때, '달나라'에 대한 동경은 '죽은 땅'에 대한 '지섭'의 비판적 인식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사랑'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자신의 욕망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사는 '죽은 땅'에서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 ⑤ '남을 위한 눈물'을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지섭'은 '난장이'가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겠군.

37.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11AB

(가)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업고
내 마음 들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 왕방연 -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으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 임재 -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 홍안 :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 만월대 : 고려의 왕궁 터.

* 목적 : 목동의 피리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고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업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물도 내 안 같아서'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구나.
- ③ (가)의 '밤길 가는구나'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잔(盞)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風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山林)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夕陽)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야단스럽다.

- 정극인, 「상춘곡」 -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11A

〔앞부분의 줄거리〕 흥 판서와 시비 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다가 부친께 호부호형을 허락받고, 집을 나와 활빈당 활동을 벌여 조정과 대립하다가 병조판서 벼슬을 받는다.

음력 구월 보름에 임금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으실새, 문득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청아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주상 앞에 엎드렸다. 임금이 놀라 묻기를,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니뇨?”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옵니다.”

상이 놀라 또 묻기를,

“네가 어찌 심야에 왔느냐?”

길동이 대답해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아들여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문(文)으로는 홍문관 벼슬이 막히고 무(武)로는 선전관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이런 까닭에 활빈당으로 더불어 사방을 멋대로 떠돌아다니며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정에 죄를 지었던 것이운데, 이는 전하로 하여금 아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벼슬을 내리어 신의 소원을 풀어 주셨으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더니 공중에 올라 아득히 날아가거늘, 임금이 그 저주를 못내 칭찬하였다. 그 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으니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고 무기 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은 풍족하게 되었다.

(중략)

상주 인형이 자세히 보니, 곧 길동이라 붙잡고 통곡하며, “아우야, 그 사이 어디 갔더냐? 아버지께서 평소에 유언이 간절하셨는데, 이제 오니 어찌 자식의 도리어겠느냐?”

하며, 손을 이끌고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母夫人)을 뵈옵고 춘섬을 상면하여 한바탕 통곡하였다.

“네가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느냐?”

하니, 길동이 대답했다.

“소자가 조선을 떠나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지술(地術)을 배웠습니다. 이제 부친을 위하여 좋은 터를 구했으니, 모친은 염려 마소서.”

인형이 크게 기뻐 말하였다.

“너의 재주 기이한지라, 좋은 터를 얻었으면 무슨 염려가 있으리오.”

[A] 다음날 길동이 운구하여 제 모친을 모시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지휘해 놓은 대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올라 화살같이 빨리 저어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이 수십 척의 배를 대어 놓고 있었다. 서로 반기며 호위하여 가니 그 광경이 대단하였다. 어언간 산 위에 다다르매,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가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내 탄복하였다. 일을 마치고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 백씨와 조씨가 시어머니와 시숙을 맞아 뵈옵는 한편, 인형과 춘

섬은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탄복하였다.

여러 날이 되자, 인형은 길동과 춘섬을 이별하면서 산소를 극진히 모시라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하고 출발했다.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옵고 전후 사실을 고하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 길동이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 삼년상을 마치매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쓰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도 풍족했다.

남쪽에 울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기름진 평야가 수천 리나 되며 덕화(德化)가 행해지니 실로 살기 좋은 나라라, 길동이 매양 생각해 오던 바였다.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울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라.”

하고는 그날로 진군하였다.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숙으로 후군장을 삼아,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울도국 철봉산에 다다라 싸움을 걸었다. 울도국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사가 이름을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내달아 싸웠다. 길동이 이를 맞아 싸워 한 번에 김현충을 베고 철봉을 얻어 백성을 달래어 위로하였다. 정철로 철봉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지휘하여 바로 도성을 칠새, 격서(檄書)를 울도국에 보냈으니, 내용은 이러하였다.

“의병장 홍길동은 글을 울도왕에게 부치나니,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다. 내 하늘의 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키며, 먼저 철봉을 깨뜨리고 물밀듯 들어오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왕이 보기를 마치자 크게 놀라,

“우리나라가 철봉을 굳게 믿었거늘, 이제 잃었으니 어찌 대항하리오.”

하고는,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항복했다.

길동이 성중에 들어가 백성을 달래어 안심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울도왕을 의령군에 봉했다. 마숙과 최철로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고, 나머지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하례하였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삼 년에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주워 갖지 않으니, 태평세계라고 할 만하였다.

- 허균, 「홍길동전」 -

4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임금은 그를 선동으로 오해했다.
- ② 인형은 부친의 장례식에 나타난 길동을 동생으로 대했다.
- ③ 길동은 잘 훈련된 정예병을 이끌고 울도국을 공격했다.
- ④ 울도국 태수는 길동이 보낸 격서에 놀라 항복했다.
- ⑤ 길동은 부하들에게 벼슬을 주고 울도국을 다스렸다.

42.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친의 삼년상을 길동이 영웅들을 모아 함께 치르는 과정에서, 길동과 부하들 간의 유대감이 공고해지고 있다.
- ② 부친의 생전에 호부호형을 허락받았던 길동이 부친의 사후에는 산소를 모시게 됨으로써,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 ③ 부친을 운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게 참여함으로써, 부친의 평소 넓은 인간관계가 사회적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 ④ 부친을 산소에 모시는 자리에 모부인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부친 사후 모부인을 중심으로 길동의 가족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 ⑤ 부친을 위해 좋은 터를 마련하고자 지술을 배운 길동을 모친이 염려하는 데서, 주술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가족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자 홍길동의 인생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드러난다. 즉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동은 부당한 사회와 충돌하기도 하고, 개인적 욕망 성취를 위해 사회 부조리와 타협하거나 명분과 괴리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다.

- 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길동의 벼슬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폐쇄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
- ② 신분 차별에 저항했던 길동이 벼슬을 반자 자신의 행적을 '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길동이 욕망 성취 과정에서 당대의 사회 제도와 타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봉건 체제의 상징인 임금이 당대 사회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하여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분란을 일으킨 길동에게 임금이 벼슬을 내려 길동의 불만을 달랠 뿐 그 근본 원인은 해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 ⑤ 길동이 울도국을 침략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스스로를 '의병장'이라 부르며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길동의 욕망 성취 과정에서 행위와 명분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11AB

암소의 뿔은 수소의 그것보다도 한층 더 검혀하다. 이 애상적인 뿔인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걸 풀밭에 누워도 좋다. 나는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反芻)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심리(審理)하였으리라. 그러나 오분 후에는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하였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놓는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에 지질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을 다시 게워 그 시금털털한 반소화물(半消化物)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향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오?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

(중략)

그렇건만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는 날이 새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밤 저쪽에 또 내일이라는 놈이 한 개 버티고 서 있다. 마치 흉맹한 형리(刑吏)처럼—나는 또 그 형리를 피할 수 없다. 오늘이 되어 버린 내일 속에서 또 나는 질식할 만치 심심해 해야 되고 기막힐 만치 답답해 해야 된다.

그럼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지냈던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냥 자자! 자다가 불행히—아니 다행히 또 깨거든 최 서방의 조카와 장기나 또 한판 두지, 웅덩이에 가서 송사리를 볼 수도 있고—몇 가지 안 남은 기억을 소처럼—반추하면서 끝없는 나태를 즐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불나비가 달려들어 불을 끈다. 불나비는 죽었는지 화상을 입었으리라. 그러나 불나비라는 놈은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다. 불을 보면 뛰어들 줄을 알고—평상에 불을 초조히 찾아다닐 줄도 아는 정열의 생물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암흑은 암흑인 이상 이 좁은 방 것이나 우주에 꼭 찬 것이나 분량상 차이가 없으리라. 나는 이 대소 없는 암흑 가운데 누워서 숨 쉴 것도 어루만질 것도 또 욕심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모르는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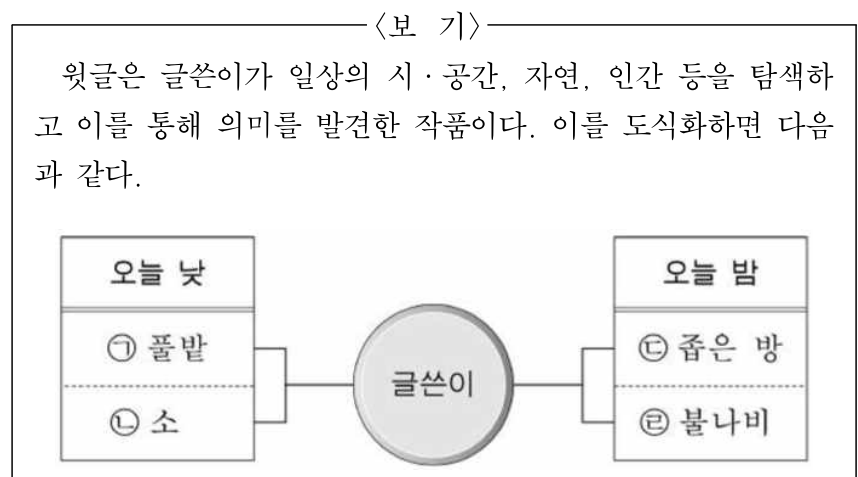
- 이상, 「권태」 -

* 등대 : 미리 준비하고 기다림.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우화를 제시하여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글쓴이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며 글쓴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권태에 빠진 글쓴이에게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라면, ㉡은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글쓴이에게 도피처를 의미하겠군.
- ② 글쓴이는 ㉠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다가 마침내 그 원인을 ㉢에서 찾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군.
- ③ 글쓴이는 ㉡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에 주목하여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군.
- ④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도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군.
-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 ㉣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게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군.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벌을 받은 문창성은 꿈을 꾸어 인간 세상에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천상에 함께 있었던 제방옥녀, 천요성,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성도 인간 세상에서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나 양창곡과 결연을 맺는다. 양창곡은 벼슬하고 공을 세워 연왕에 오른다. 그 뒤 부친 양현, 모친 허 부인, 다섯 아내, 자식들과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날 밤에 강남홍이 취하여 취봉루에 가 의상을 풀지 아니하고 책상에 ㉠ **의지하여** 잠이 들었더니 홀연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정처 없이 떠돌아 일처에 이르매 한 명산이라. 봉우리가 높고 험준하거늘 강남홍이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한 보살이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錫杖)을 짚고 있다가 웃으며 강남홍을 맞아 왈,

“강남홍은 인간지락(人間之樂)이 어떠한가?”

강남홍이 ㉡ **망연히** 깨닫지 못하여 왈,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 보살이 강남홍을 ㉢ **인도하여** 무지개를 밟아 공중에 올라가더니 앞에 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리었는지라. 강남홍이 문 왈,

“이는 무슨 문입니까?”

보살 왈,

“남천문이니 그대는 문 위에 올라가 보라.”

강남홍이 보살을 따라 올라 한 곳을 바라보니 일월(日月) 광채 ㉣ **회황한데** 누각 하나가 허공에 솟았거늘 백옥 난간이며 유리 기둥이 영롱하여 눈이 부시고 누각 아래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쌍쌍이 ㉤ **배회하며** 몇몇 선동(仙童)과 서너 명의 시녀가 신선 차림으로 난간머리에 섰으며 누각 위를 바라보니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난간에 의지하여 취하여 자는지라. 보살께 문 왈,

“이곳은 어느 곳이며 저 선관, 선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살이 미소 지으며 왈,

“이곳은 백옥루요 제일 위에 누운 선관은 문창성(文昌星)이요 차례로 누운 선녀는 제방옥녀(諸方玉女)와 천요성(天妖星)과 홍란성(紅鸞星)과 제천선녀(諸天仙女)와 도화성(桃花星)이니,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前身)이니라.”

강남홍이 속으로 놀라 왈,

“저 다섯 선녀는 다 천상에서 입도(入道)한 선관이라. 어찌 저다지 취하여 잠을 잡니까?”

보살이 홀연 서쪽을 보며 합장하더니 시 한 구를 외워 왈,

정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정이 생기도다.
정이 다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만 가지 생각이 함께 텅 비는구나.

강남홍이 듣고 정신이 상쾌하여 문득 깨달아 왈,

“나는 본디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계(下界)에 내려온 것이로다.”

(중략)

강남홍 왈,

“그러하면 저도 또한 천상의 별이라, 이미 여기 왔으니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갈 마음이 없나이다.”

보살이 웃으며 왈,

“하늘이 정한 인연을 인력으로 할 바 아니다. 그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빨리 돌아가라. 사십 년 후에 다시 와 옥황상제께 조회하고 천상지락(天上之樂)을 누릴지어다.” 강남홍이 문 왈,

“보살은 뉘십니까?”

보살이 웃으며 왈,

“빈도(貧道)는 남해 수월암 관세음보살이라. 부처의 명을 받아 그대를 지도하러 왔노라.”

보살이 말을 마치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오색 무지개 일어나며 홀연 우렛소리 울리거늘 강남홍이 놀라 깨어 보니 몸이 취봉루 책상 앞에 누웠는지라.

강남홍은 꿈속 일이 의아하여 연왕과 윤 부인, 황 부인, 벽성선, 일지련에게 낱낱이 말하니 그들 또한 같은 꿈을 꾸었는지라. 서로 탄식하며 의아해 하더니 허 부인이 듣고 강남홍더러 왈,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無子)하여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왕을 낳았으니 그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이라.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갚지 못하였더니 이제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佛事)를 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듣자 하니 벽성선의 부친 보조국사께서 자개봉 대승사에 계신데 불법(佛法)에 정통하다 하니 청하여 옥련봉 돌부처를 위하여 일개 암자를 짓고 한편으로 대승사에 백일 동안 재(齋)를 올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공덕을 갚고자 하노라.”

벽성선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보조국사를 청하여 재 올리기를 시작하고 재물을 후히 보내어 옥련봉에 암자를 장건하였더니, 과연 그 후 사십 년을 부귀를 누리다가 양현과 허 부인은 수(壽)를 팔십여 세 하고, 연왕은 다시 출장입상하여 또한 수를 팔십을 하고, 윤 부인 삼자 이녀(三子二女)에 수 칠십이요, 황 부인은 이자 일녀에 수 육십을 넘기고, 강남홍은 오자 삼녀에 수 칠십이요, 벽성선, 일지련은 각각 삼자 이녀에 수를 또한 칠십 세를 하니, 연왕의 자녀 합 이십육에 아들 십육 인은 각각 입신양명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딸 십 인은 왕공 부인이 되어 다자 다복(多子多福)하더라.

- 남영로, 「옥루몽」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두 인물을 배치하여 인물 간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순간적으로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의 환상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남홍’은 ‘명산’에서 ‘보살’을 처음 만났다.
- ② ‘보살’은 ‘석장’을 이용하여 ‘남천문’에 당도하였다.
- ③ ‘강남홍’은 선관, 선녀들과 ‘남천문’에서 재회하였다.
- ④ ‘보살’은 ‘강남홍’이 천상의 존재였음을 알려 주었다.
- ⑤ ‘허 부인’은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여 ‘양창곡’을 낳았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옥루몽」의 환몽(幻夢) 구조는 독특하다. 천상계에서 꿈을 통해 속세로 진입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에서 다시 꿈을 꾸어 천상계를 경험하는데, 이때 신이한 존재에 의해 자신의 정체를 깨달으며 꿈에서 깨어나게 된다. 꿈에서 깨어난 남녀 주인공들은 속세로 돌아와 천수를 누린 뒤에야 천상계에 복귀한다.

```

    graph LR
      A[천상계] -- 입몽 --> B[속세]
      B -- 입몽 --> C[천상계]
      C -- 각몽 --> D[속세]
      D -- 죽음 --> E[천상계]
  
```

- ①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꿈에 드는 것으로 보아, '취봉루'는 천상계에서 속세로 입몽하는 공간이군.
- ② '강남홍'이 '백옥루'를 보며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으로 보아, '백옥루'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는 천상계의 공간이군.
- ③ '보살'이 '강남홍'에게 인간 세상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보살'은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이군.
- ④ '허 부인'이 '보살'을 '옥련봉 돌부처'와 연관 짓는 것으로 보아, '암자'를 창건한 것은 신이한 존재에 대한 속세에서의 보답이군.
- ⑤ '양창곡' 일가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리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주인공이 속세에서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로 이루어졌군.

34.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대어
- ② ㉡: 멍하니
- ③ ㉢: 이끌어
- ④ ㉣: 눈부신데
- ⑤ ㉤: 어울리며

“도대체 박준은 어째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깃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엔 틀림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던 말입니다. 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깃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깃불이었던 말씀입니다. 환자에게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깃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깃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전깃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깃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깃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략)

—이 달의 화제작, 화제 작가.

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합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 냈다. 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기사는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찢어져 나간 조각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깃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깃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깃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깃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 이청준, 「소문의 벽」 -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36.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인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과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① '전깃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 ② '전깃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가)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성긴 빗방울
파초 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 조지훈, 「파초우(芭蕉雨)」 -

* 후두기는 : 후두둑 떨어지는.

(나)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툭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툭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A]

[B]

[C]

- 광재구, 「사평역(沙坪驛)에서」 -

4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시상이 전개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 ③ (가)는 하강의 이미지를, (나)는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실적 관심을 나타낸다.
- ④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나)는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하여 독백적 어조에 변화를 준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파초우」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로,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 ① 제1연: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제2연: '성긴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감각적으로 제시된다.
- ③ 제3연~제4연: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화자가 자연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 ④ 제4연: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와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제5연: '어디메'는 자연 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불빛, 눈 등을 바라보며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 ① [A]의 '한 줌의 톱밥'이 불을 피우는데 쓰여 추위를 견디게 해 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
- ②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개에 화자가 공감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③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 ④ [C]에서 화자가 지난날을 '호명'하며 '한 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고단한 현재를 견디어 내게 해 주는 힘이 과거의 추억처럼 소박한 데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어.
- ⑤ [A]에서 [C]로 전개되면서 화자가 '불빛 속에 '한 줌의 눈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 '한 줌의 눈물'은 삶의 고단함을 견디어 내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화자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6A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A]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 [B]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 [C]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 [D]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E]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31. 윗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어체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②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③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신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그중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 ② [B]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그중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③ [C]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그중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 ④ [D]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 ⑤ [E]는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중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33.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내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이 철학자와 벗하여 상(想)이 닦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거닐면서 매듭진 상을 풀라서 풀곤 했다. 생각이 웅색해도 이 그늘을 찾았고 독서와 붓놀음에 지친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을 찾았다. 실로 이 늙은 철학자 밤나무는 나에게 있어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였다.

이러한 씨앗터를 내 이제 떠나 살게 되니 해마다 벼들앞에 기름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진다. 인제 그 밤나무에도 잎이 아마 푸르렀겠지. 비바람에 고삭은 가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안부가 지극히 알고 싶어지고,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 보고 싶어진다.

더욱이 생각의 가난에 원고를 자꾸만 찢게 될 땐, 어쩐지 그 ㉡그늘 밑 자연석 위에 잠깐만 앉아 눈을 감아 보아도 매듭진 상의 눈앞은 흰히 트여질 것만 같게 그 품속이 생각난다.

- 계용목, 「울정기(栗亭記)」 -

- ① ㉠은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이고, ㉡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이다.
- ②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이다.
- ③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사색에 잠겼던 장소이고, ㉡는 필자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이다.
- ④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고, ㉡는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고민이 저절로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⑤ ㉠은 곁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는 떠난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장소이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6AB

나는 미안스런 생각으로 건우 어머니가 따라 주는 술잔을 받았다.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 버린 뒤,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법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A]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삿집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함 여성이라는 것을 고대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젊음이 한창인 열아홉부터 약지 세계 혼자서 살아왔다는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를 태워가면서까지 먼 일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농촌 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이 항시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렵히 안 그려려 싫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불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을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 —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 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장 위에는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잉크로써 굵직하게 등마루에 씌어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암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 봐!”

건우는 싫어도 무가내라 뿔아 오면서,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부끄러운 내색을 하였다.

“일기는 남의 비밀이니까 읽을 수가 없고,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배 주게.”

나는 책을 도로 돌렸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길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 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내가 본 국토」 속의 한 구절 —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어,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 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연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 배에 실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략)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

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 보호 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B] 1905년 —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탁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日人)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리 속에도 떠올랐다.

“척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맨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껌껌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룻배 통학생임더.”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듯 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①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 동척 : 일제 강점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준말.

* 불하 :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34.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②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준다.
- ③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낸다.
- ④ 구체적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
- ⑤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다.

3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은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알려 준다.
- ② '일류 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 준다.
- ③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의 단면을 보여 준다.
- ④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36.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S#98. 강둑 위 (오후,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 후)
E.L.S.*

건우 증조부 : (손에 쥔 종이를 움켜쥐고 부르르 떨며)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소년(건우 할아버지) : 이기 무슨 소림니꺼? 인자 우리 땅이 아니라니요, 조마이섬이 왜놈 땅이 됐다 카는 기 무슨 말씀입니꺼? (건우 증조부, 손에 쥔 종이를 갈기갈기 찢고, 집으로 달려간다. 소년 뒤따라간다.) O.L.

S#99. 나루터 선술집 (저녁)

건우 선생님 : (놀랍다는 듯이) 그러니까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시켰다가, 그걸 다시 팔아 먹었던 거군요?

건우 할아버지 : (증오의 눈빛으로) 거서 끝이 아니라고요. 아 마 건우 애비 중학 졸업하던 땐가 해방 됐다꼬 만세 부르고 와 보니, 이번엔 국회의원 손에 넘어갔다 카이.

윤춘삼 : 얼마 전부터는 하천 부지를 매립한다나 어쩐다 나…….

건우 할아버지 : 오늘은 시커먼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종이 조각을 빼 주며 그럽디다, 섬에서 나가는 기 좋을 끼라고, 내일은 결판을 낼 끼라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

* E.L.S. : 익스트림 롱 숏.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

- ① S#98에서 조마이섬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멀리서 섬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을 도입해야겠어.
- ② S#99에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대사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겠어.
- ③ S#99에서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이후 벌어질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어야겠어.
- ④ S#98~99에서 인물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마이섬의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등장인물을 넣어야겠어.
- ⑤ S#98~99에서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를 구사하도록 해야겠어.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모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 가미된 결과이다.

- ①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어.
- ②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 온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 ③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나'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 ⑤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38. 문맥상 ㉠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5.06A

홍부 마음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옥결이라. 성덕을 본 받고 악인을 저어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러하매 부귀를 바랄쏘냐? 홍부 아내 하는 말이,
 “애고 여복소. 부질없는 청렴 맑소. 안자의 가난함은 주린 염치로 서른에 일찍 죽고, 백이숙제는 주린 염치로 청루 소년이 웃었으니,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아주버님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읊소.”

[A] 홍부가 하는 말이,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리는데, 그 때를 뉘 아들놈이 맞는단 말시오?”
 “애고 동냥은 못 준들 쪽박조차 깨칠쏘냐.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나 본다고 건너가 봅소.”

홍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제, 치장을 불작시면, ㉠ 편자 없는 현 망건에 박쫓가리 판자 달고 물렛줄로 당끈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현 술띠를 흥복통에 눌러 띠고, 떨어진 현 고의에 훑 노끈 대님 매고, 현 짚신 감발하고, 세살 부채 손에 쥐고, 서 홉들이 오망자루 꿈무늬에 비스 차고, 바람맞은 병인 같이, 잘 쓰는 대비같이, 어슴비스 건너 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노적, 뒷노적, 멍에 노적 담불담불 쌓였으니, 홍부 마음 즐거우나 놀부 심사 무거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하니 홍부가 하릴없어 뜰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뉘고?”
 “내가 흥부요.”
 “흥부가 뉘 아들인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시오? 비읍니다. 형님 전에 비읍니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 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못 갚을까.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오.”

[B] 애걸하니, 놀부 놈의 거동 보소. 성난 눈을 부릅뜨고 불을 치며 호령하되,
 “너도 염치없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 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궤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랴.”

[중간 줄거리] 어렵게 살던 흥부는 어느 날 구렁이의 습격을 받아 다리가 부러진 제비 새끼를 구해 주고 박씨를 얻어 큰 부자가 된다.)

놀부 놈의 거동 보소. 동지선달부터 제비를 기다린다. 그물막대 둘러메고 제비를 몰러 갈 제, 한 곳을 바라보니 한 짐승이 떼서 들어오니 놀부 놈이 보고,
 “제비 인제 온다.”
 하고 보니, 태백산 갈가마귀 차돌도 못 얻어먹고 주려 청천에 높이 떠 갈곡갈곡 울고 가니, 놀부 눈을 멀정게 뜨고 보다가 하릴없어 동네 집으로 다니면서 제비를 제 집으로 몰아들이되 제비가 아니 온다.
 그달 저 달 다 지내고 삼월 삼일 다다르니 강남서 나온 제비 옛집을 찾으려 하고 오락가락 넘놀 적에 놀부 사면에 제비 집

을 지어 놓고 제비를 들이모니, 그중 팔자 사나운 제비 하나가 놀부 집에 흙을 물어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안으려 할 제, 놀부 놈이 주야로 제비 집 앞에 대령하여 가끔가끔 만져 보니 알이 다 꿩고 다만 하나 깨었는지라. 날기 공부 힘쓸 제 구렁 배암 아니 오니 놀부 민망 답답하여 ㉡ 제 손으로 제비 새끼를 잡아 내려 두 발목을 자끈 부러뜨리고 제가 깜짝 놀라 이른 말이,
 “가련하다, 이 제비야.” 하고 조기 꺾질을 얻어 찬찬 동여 뱃놈의 닳줄 감듯 삼층 열레 연줄 감듯 하여 제 집에 엮어 두었더니, 십여 일 뒤에 그 제비가 구월 구일을 당하여 두 날개를 펼쳐 강남으로 들어가니 강남 황제 각처 제비를 점고할 제, 이 제비가 다리 절고 들어와 복지하니, 황제 제신으로 하여금,
 “그 연고를 사실하여 아뢰라.”
 하시니, 제비 아뢰되,
 “작년에 웬 박씨를 내어 보내어 흥부가 부자 되었다 하여 그 형 놀부 놈이 나를 여차여차하여 절뚝발이가 되게 하였사오니, 이 원수를 어찌하여 갚고자 하나이다.”

[C] 황제가 이 말을 들으시고 대경하사 가라사대,
 “이놈 이제 전담 재물이 여유롭되 동기를 모르고 오류에 벗어난 놈을 그저 두지 못할 것이요, 또한 네 원수를 갚아 주리라.”
 하고 박씨 하나를 ‘보수표(報讐瓢)’*라 금자로 새겨 주더라.
 - 작자 미상, 「흥부전」 -

* 보수표 : 원수를 갚는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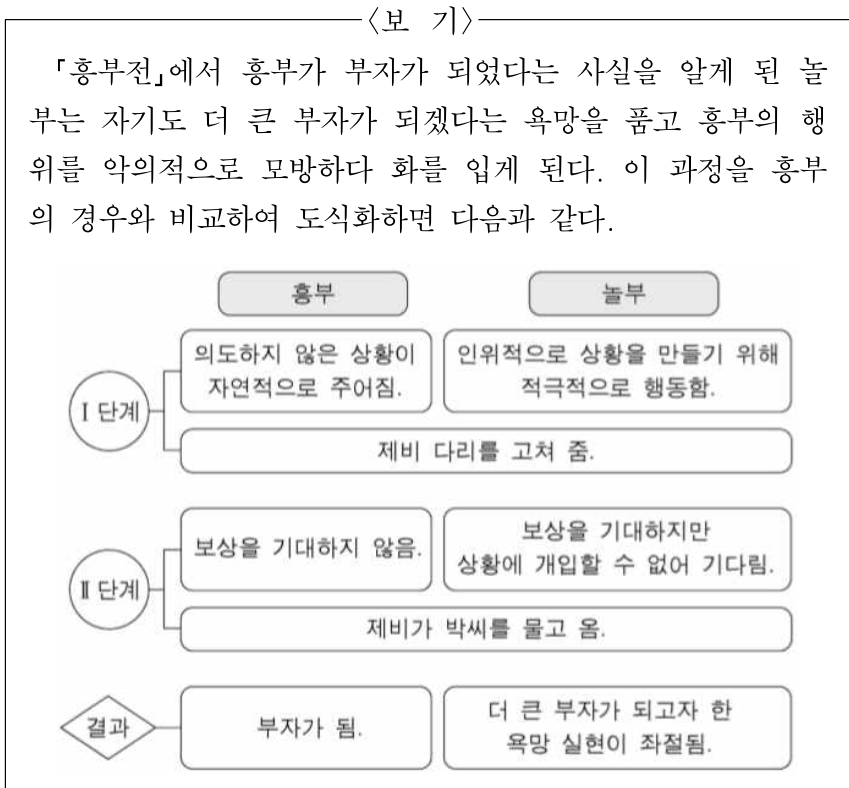
39.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문체를 사용하여 인물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③ 열거의 방식으로 인물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40.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서술자의 서술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흥부의 처지와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 놀부를 ‘놀부 놈’으로 서술하는 부분에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③ [C]에서 동물들이 대화하는 장면은 우화적 공간에서 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에서 흥부와 흥부 아내의 대화는 [B]에서 일어나는 흥부와 놀부의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 ⑤ [B]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은 [C]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놀부를 고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동지선달'부터 올 리 없는 제비를 찾는 놀부의 행동은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욕망 실현을 위한 놀부의 조급성을 보여 주는군.
- ② '갈가마귀'를 제비로 착각하는 놀부의 모습은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을 몰아내는 놀부의 적극적 행동을 보여 주는군.
- ③ '삼월 삼일'에 제비를 들이모는 놀부의 행위는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는 악의적인 모방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구월 구일'에 제비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보기>의 'I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상황에 개입할 수 없는 놀부가 욕망 실현을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군.
- ⑤ '보수표'가 제비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보기>의 'I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놀부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욕망 실현이 좌절될 것임을 보여 주는군.

42.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깜짝 놀라다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격이군.
- ② 자기 실수로 제비 다리가 부러졌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방귀屁 높이 성내는 격이군.
- ③ 자기가 구렁이를 대신하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것을 보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군.
- ④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치료를 해 주며 구해 주는 척하다니 병 주고 약 주는 격이군.
- ⑤ 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리어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 격이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6A

(가)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三月東風)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이정보 -

(나)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

(다)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寂寞荒田側	[A]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 누르고 있네.	繁花壓柔枝	
향기는 매우(梅雨)* 지나 희미해지고	香經梅雨歇	[B]
그림자는 맥풍(麥風)* 맞아 기우뚱하네.	影帶麥風欹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뉘가 보아 줄까?	車馬誰見賞	[C]
벌이나 나비들만 엇볼 따름이네.	蜂蝶徒相窺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自慚生地賤	[D]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 그저 한스럽네.	堪恨人棄遺	

- 최치원, 「축규화(蜀葵花)*」 -

- * 낙목한천 : 나뭇잎이 떨어지는 때의 추운 하늘.
- * 은한 : 은하수.
- * 자규 : 두견새.
- * 매우 : 매실이 누렇게 익을 무렵의 장맛비.
- * 맥풍 : 보리가 익어 가는 시절에 부는 바람.
- * 축규화 : 접시꽃.

43.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으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44.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네 홀로'에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
- ② (나)에서는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규'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동풍'이 불어오는 '삼월'이, (나)에서는 '은한'이 기우는 '삼경'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가)의 '오상고절'에는 굳건한 절개가, (나)의 '다정'에는 애상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 ⑤ (가)의 '너뿐인가 하노라'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의 '잠 못 들어 하노라'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최치원의 「축규화」는 삶의 현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에 투사하여 그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이룬 한문 서정시의 하나이다. 최치원의 삶을 고려할 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출신상의 한계로 인해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았다. 최치원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축규화'에 투사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자신을 크게 써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평범한 이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과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⑤ [A]에서는 '축규화'의 외양 묘사를 통해, [D]에서는 '축규화'의 내면 서술을 통해 화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6B

(가)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잠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에 있다

그 길에 ㉣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 천연(天然)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눈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어둠과 밝음의 대조를 통해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⑤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환기하고 있다.
- ② ㉡: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 ③ ㉢: 특정 시어를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여 시어의 의미와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다.
- ④ ㉣: 동일한 연결 어미를 반복하여 다양한 소재의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하나의 시어로 독립된 연을 구성하여 대상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30년대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균은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1950년 후반의 시적 경향을 보여 주는 박용래는 모더니즘의 기법에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결합했다. 그는 사라져 가는 재래의 것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복원하여 토속적 정취를 환기하고, 소박한 자연의 이미지를 병치하여 자연의 지속성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 ① (가), (나) 모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군.
- ② (가)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자연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③ (가)의 '무성한 잠초'는 인간과 문명의 불화에 따른 상심을, (나)의 '화초'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하고 있군.
- ④ (가)는 (나)와 달리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제시하고 있군.
- ⑤ (나)는 (가)와 달리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6B

호왕이 대로하여
 “네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경업이 왈
 ㉠ “병자년에 우리 주상께서 종사를 위하여 내게 항복하여 계시거니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내게 항복하리오.”
 호왕이 대로하여 무사를 명하여
 “내어 베어라.”
 하니, 경업이 크게 꾸짖어 왈
 “내 목숨은 하늘에 있거니와, 네 머리는 열 걸음 안에 있느니라.”
 하고 안색을 불변하여 무사를 보며
 “바빠 죽이라.”
 하니, 호왕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탄복하며 맨 것을 풀고 손을 이끌어 올려 앉히고,
 “장군이 내게는 역신(逆臣)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 내 어찌 충절을 해하리오. 장군의 소원대로 하리라. 즉시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이때 세자와 대군이 별궁에 계셔 임 장군을 주야로 기다리시더니, 문 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 장군이 천자께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았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꺼워하사 궁문 밖에 나와 기다리시더니, 경업이 나아와 울며 절하니, 세자와 대군이 경업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왕을 보더라.
 호왕이
 “경들을 임경업이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구하여 돌아가려하기로, 내 경업의 충절에 감동하여 경들을 보내나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가 정을 표하리라.”
 하거늘, 세자는 금을 구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인물을 청하여 어서 돌아가기를 원하니, 호왕이
 “각각 소원대로 하라.”
 하고 대군을 기특히 여기더라.

(중략)

세자와 대군이 급히 췌내에 들어가 대전께 뵈운데, 주상이 반기사 왈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은 언제나 오리오.”
 하시고 탄식하시며 또 가라사대
 “세자는 무슨 탐욕으로 금을 구하여 오느냐?”
 하시고 벼루로 내리쳐 치시고 둘째 대군으로 세자를 봉하시니, 이때는 을유년이라.
 이때에 호왕의 딸 숙모공주가 있으니 천하절색이라. 부마를 구하더니, 호왕이 경업을 유의하여 공주더러 이르니, 공주가 관상 보기를 잘하여 경업의 관상 보기를 청하거늘, 경업이 부마에 뽕헐까 두려워하여 신발 속에 숨을 넣어 키를 세 치를 둔 우고 들어갔더니, 공주가 엿보고 왈
 “들어오는 걸음은 사자 모양이요 나가는 걸음은 범의 형용이니 짐짓 영웅이로되, 다만 키가 세 치 더한 것이 애달다.”
 하거늘, 호왕이 마음에 서운하나 그와 방불한 자가 없는지라. 이에 장군더러 왈
 “장군이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림이 어떠하뇨?”
 장군이 사례하기를,
 ㉡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극히 황공하며 하물며 조

강지처가 있사오니, 존명을 받들지 못하리이다.”
 호왕이 재삼 권유하되 경업이 죽기로써 좃지 아니하니, 호왕이 안타까워하더라.
 경업이 돌아감을 청하니, 호왕이 미루고 허락하지 아니하거늘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절개 높고 충심이 깊은 사람을 두어 무익하고,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사오니, 의로써 보내면 조선이 또한 의로써 섬길 것이니 보냄이 마땅하리이다.”
 호왕이 그 말을 따라 큰 잔치를 벌여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보낼 새, 의주까지 호송하니라.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하는지라. 경업이 돌아오는 때문이 왔거늘, 자점이 해오되, ‘경업이 돌아오면 나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고 상계 아뢰기를,
 “경업은 반역 죄인이라,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치 아니하사 북경에 잡힌 바 되어 계교를 이루지 못하매, 하는 수 없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뒤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 죄인을 그저 두겠나이까!”
 상이 크게 놀라 왈
 “무슨 연고로 만고 충신을 해하려 하는가? 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점을 엄히 꾸중하사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그 무리와 의논하여 왈
 “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 오라.”
 하더라.
 이때 경업이 데려갔던 격군과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使者)가 와 이르되,
 “장군이 반역했다 하여 역률(逆律)로 잡아 오라 합니다.”
 하고 칼을 씌우며 재촉하니, 의주 백성들이 울며,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
 하거늘, 경업 왈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죄 없이 잡혀가노라.”
 하니 남녀노소 없이 무슨 연고인 줄 모르고 슬퍼하더라.
 - 작자 미상, 「임경업전」 -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군은 호왕의 배려에 따라 소원을 말하였다.
- ② 호왕은 적국의 임금인데도 강직한 임경업을 살려 보냈다.
- ③ 호국 신하들은 임경업을 귀국시켜도 호국에 무해하다고 아뢰었다.
- ④ 김자점은 세자와 대군을 귀국시키려는 임경업의 소원을 방해하였다.
- ⑤ 주상은 세자와 대군은 돌아오고 임경업은 함께 오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40. '임경업 부마 삼기'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사건이 성사되지 않음으로써 조선에서 호왕의 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무산된다.
- ② 이 사건의 주요 과정인 관상 보기에 대해 공주가 수동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공주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 ③ 이 사건의 당사자인 임경업이 천하질색이라는 공주의 외모에 관심을 둠으로써 그가 세속적 인물임이 드러난다.
- ④ 이 사건의 당사자인 공주가 임경업의 비범함을 인정했지만 혼사는 여전히 호왕이 주도하면서 왕실 내부의 갈등이 심화된다.
- ⑤ 이 사건은 임경업의 소원을 들어준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임경업에 대한 호왕의 호감에서 비롯됨으로써 사건 전개에 연속성을 강화한다.

41. 임경업이 말한 ㉠, ㉡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회유에 대해 대응하고, ㉡에서는 권유에 대해 반응한다.
- ② ㉠에서는 충신의 도리를, ㉡에서는 남편의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
- ③ ㉠에서는 과거의 사실을, ㉡에서는 현재의 처지를 언급하여 거절한다.
- ④ ㉠에서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에서는 상대의 권위를 인정한다.
- ⑤ ㉠에서는 죽음을 작정하고, ㉡에서는 억류를 의도하여 상대에 저항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후기 사대부 심노승의 문집 『효전산고』를 보면, 종로의 담배 가게에서 「임경업전」을 낭독하는데, 김자점이 장군에게 죄를 씌워 죽이는 데 이르자 분노한 어떤 이가 “네가 자점이더냐?”라고 외치며 벌떡 일어나 낭독자를 해쳤다고 한다. 여기서 보듯 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에게 작중 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일으킨다.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되고 사건은 보다 생생해져서, 청중은 낭독자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된다. 이 사건은 청에 대한 적대감, 임경업에 대한 흠모 의식에 바탕을 둔 「임경업전」에 청중이 얼마나 몰입했는지 보여준다.

- ① '임경업'이 '호왕'을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장군의 기개가 '호왕'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청에 대한 적대감을 지닌 청중은 통쾌해하겠군.
- ② 칼을 쓰고 잡혀가는 '임경업'을 보며 '의주 백성들이' 우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임경업'을 흠모하는 청중은 무슨 연고인 줄 몰라서 분노를 표출하겠군.
- ③ '주상'이 '세자'를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세자답지 못한 행동을 꾸짖는 '주상'의 분노가 느껴지면서 청중은 '세자'를 내리치는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받아들이겠군.
- ④ '사자'가 '임경업'에게 잡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낭독할 때, 이야기에 몰입한 청중에게는 마치 작중 인물이 되어 그 대화를 직접 듣는 듯한 극적 환상이 조성되겠군.
- ⑤ 임금과 백성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이 모해를 입는 장면을 낭독할 때, 간신에 대한 청중의 반감이 커지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6B

이런들 엇더흐며 저런들 엇더흐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리타 엇더흐료
흐믈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흐료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네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제2수>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죽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홀가 <제3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조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조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흐애 <제4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흐고 대하(臺下)에 유수(有水) | 로다
때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므음 두는고 <제5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흐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
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름과 흥가지라
흐믈며 어약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 순풍 : 순박한 풍속.
- * 피미일인 : 저 아름다운 한 사람. 곧 임금을 가리킴.
- * 교교백구 :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망아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 * 어약연비 운영천광 :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가리킴.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 ② 제2수에 나타난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3수에서는 사회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 ③ 제3수의 지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 ⑤ 제6수에서는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집약한다.

44.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하'와 '풍월'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갖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② '순풍'과 어진 '인성'은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 ③ '유란'과 '백운'은 화자가 심미적으로 완상하는 대상이다.
- ④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이다.
- ⑤ '화만산'과 '월만대'는 화자의 충만감을 자아내는 정경의 표상이다.

4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그곳(부친에게 물려받은 별장)에는 씨 뿌려 식량을 마련할 만한 밭이 있고, 누에를 쳐서 옷을 마련할 만한 뽕나무가 있고, 먹을 물이 충분한 샘이 있고, 딸감을 마련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내 뜻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가(四可)'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녹봉이 많고 벼슬이 높아 위세를 부리는 자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지만, 나같이 곤궁한 사람은 백에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네 가지나 마음에 드는 것을 차지하였으니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닐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물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천리를 가는 것도 문 앞에서 시작하니,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만일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세상일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리라. 그리고 밭을 갈고 배(腹)를 두드리며 성군(聖君)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 그 노래를 음악에 맞춰 부르며 세상을 산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으랴.

- 이규보, 「사가재기(四可齋記)」 -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지배층의 꾀박에서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자연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삶의 물질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야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을, <보기>는 자연에 있으면서 속세를 그리워하는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A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 - 나무로부터 봄 - 나무에로」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반복과 점층적 표현으로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④ 토속어를 통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심정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3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겨울-나무의 상승적 이미지가, [B]에서는 봄-나무의 하강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② [A]의 '뿌리 박고'는 겨울-나무의, [B]의 '부르터지면서'는 봄-나무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 ③ [A]의 '대가리 쳐들고'는 겨울-나무가, [B]의 '들이받으면서'는 봄-나무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속성을 드러낸다.
- ④ [A]의 '두 손'은 겨울-나무의 외양을, [B]의 '뜨거운 혀'는 봄-나무의 열정을 비유한 표현이다.
- ⑤ [A]의 '벌'은 겨울-나무의, [B]의 '싹'은 봄-나무의 고통을 상징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는 나무의 변화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생성은 나무 스스로의 내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단지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무 내부의 변화와 생성을 위한 전면적인 노력과 관련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 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는 나무가 변화를 지향하며 자기 부정을 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 ②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는 나무의 의지로 나무가 내적인 힘을 쏟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온몸이 으스러지도록'은 나무가 변화와 생성을 위해 기울이는 전면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 ④ '마침내, 끝끝내'는 겨울-나무가 마지막까지 겨울-나무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
- ⑤ '꽃 피는 나무'는 나무가 스스로의 변화를 거쳐 새로운 단계로 성장했음을 표상하는 것이다.

(가)

버스의 덜컹거림이 좀 덜해졌다. 버스의 덜컹거림이 더 하고 덜하는 것을 나는 턱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몸에서 힘을 빼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자갈이 깔린 시골길을 달려오고 있는 동안 내 턱은 버스가 꺾충거리는데 따라서 함께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턱이 덜그럭거리던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린 차창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갓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붙어 가는 유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粒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그 바람 속에는 신선한 햇살과 아직 사람들의 땀에 밴 살갓을 스쳐보지 않았다는 천진스러운 저온(低溫),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달리고 있는 길을 에워싸며 버스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산줄기의 저편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금기, 그런 것들이 이상스레 한데 어울리면서 녹아 있었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갓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海風)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지상(地上)에 있는 모든 약방의 진열장 안에 있는 어떠한 약보다도 가장 상쾌한 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조용히 잠들고 싶어 하고 조용히 잠든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제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했었다.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 났어요. 어머니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 총회에서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사생 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라고, 며칠 전날 밤, 아내가 나의 파자마 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엿소리로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었다.

내가 나이가 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이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었다.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도 아니었었다.

- 김승욱, 「무진기행」 -

(나)

S#4. 윤기준의 방 안 (저녁) (현재)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등이 차곡차곡 담겨진다. 챙겨 넣는 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담겨지곤 하던 중 액자에 든 남녀 사진 한 틀. (인서트*) 의젓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와 윤기준의 나란한 사진.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오는 윤기준, 로우브*를 벗는다. 넥타이를 매어 주는 아내의 손에 맡기고 목을 길게 하고 있는 윤기준의 상반신.

윤기준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

아 내 ㉥* 당신 요즘 안색 보면 제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아요. 어머님 성묘도 하실 겸 좋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주 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야 할 것 같으니……. 푹 쉬시다 오시면 대회사생 제약주식회사의 전무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S#5. 같은 방 창밖 풍경 (저녁) (현재)

가로등이 일제히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

(중략)

S#11. 시골 자동차길 (낮) (현재)

도망하듯이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고 있는 버스.

S#12. 버스 안 (낮) (현재)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주마등 같다. 가로수와 논, 밭 등을 뒤로 훑히 보낸다. 산 틈으로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 김승욱, 「안개」* -

* 인서트(Insert): 삽입된 장면. 장면과 장면 사이에 신문이나 편지, 사진 등이 끼이는 것.

* 로우브: 길고 품이 넓은 겹옷. 여기서는 목욕 가운.

* ㉥: 효과음(Effect).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함.

* 「안개»: 「무진기행」을 각색한 시나리오임.

34. (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면 의식의 서술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빈번히 제시하여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중심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역사적인 사건을 회고적으로 서술하여 시대 배경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에게 긴장을 풀고 공상에 빠지게 하는 존재이다.
- ② ㉡: 엉뚱한 공상을 하던 ‘나’에 대해 자조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 ③ ㉢: ‘나’의 무진행의 계기 중 하나로 작용한다.
- ④ ㉣: ‘나’에게 기대하는 ‘아내’의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아내’의 말을 긍정하며 그녀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의 태도를 드러낸다.

36. (나)는 (가)를 각색한 시나리오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서사 진행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회상의 방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아내'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을 비유적 표현으로 서술한 데 비해, (나)에서는 대사로 처리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아내'의 말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아내'의 말을 효과음으로 처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서술하여 제시하는 데 비해, (나)에서는 '윤기준의 방 안', '시골 자동차길', '버스 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버스의 덜컹거림이 주는 느낌을 서술자가 직접 서술해 주는 데 비해, (나)는 그 느낌을 버스가 자갈길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전달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장면(scene)은 시나리오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을 뜻한다. 장면은 주로 시간이나 공간이 변할 때 나뉜다. 구분된 장면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행동의 연속성이나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시선의 변화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담아내게 된다. 장면 속에 담긴 여러 표현들은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와 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 ① S#4에서 인서트된 사진은 인물의 분열된 의식을 보여 주기 위해 선택된 요소이다.
- ② S#4에서 등장하는 공간과 소품들은 주인공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된 요소들이다.
- ③ S#5의 창밖 풍경은 S#4의 공간과 대조되어 인물 간의 갈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 ④ S#4에서 S#5로의 전환은 방 안의 우울한 분위기가 도시 전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S#11에서 S#12로의 전환은 카메라의 시선이 버스의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AB

이때 천자가 옥새*를 목에 걸고 향서*를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가 보니, 뜻밖에 호통 소리가 나며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의 머리를 베어 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기를,

“적장 벤 장수 성명이 무엇이나?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천자 급히 물어 말하기를,

“그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여쭙되,

[A]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 리 밖에 있다가 아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퍽박을 당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귀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하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 와서 천자 곁에 앉아 있다가,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다.

[B]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에 되었으니,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그런 말을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맺어 갚으리라.”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얼굴을 보니,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 투구를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여 말하였다.

“소장이 아버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격절한 말을 폐하께 아뢰었으니 죄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아니합니다.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투구를 씌우고 대원수를 명하며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그대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하여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한 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중략 부분의 거리] 유충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다시 위기에 처했던 천자·황후·태후·태자를 구출한다. 이후,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은 후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십 리 뜰에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이어 호산

대가 떠나갈 듯하였으며,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 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와 태후가 가마에서 바삐 내려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의 예로써 천자에게 인사를 올리니, 천자와 태후가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였다.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옥문관으로 귀양 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과 부인 강 낭자를 만나 데려온 일은 모두 천추에 드문 일이다.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 어려운지라, 입이 열 개라도 어떻게 그 말을 다 하리오.”

태후가 유 원수를 치사한 후에 조카 강 승상을 부르시니, 강 승상이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천자가 내려와 강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기 바라오.”

한편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장 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에게 물러 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불효자 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 연왕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너의 모친이 어디 오느냐?”

이때 장 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남편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들어가니, 연왕이 부인을 붙들고 말하였다.

“멀고 먼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 있는가?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 왔느냐. 뉘 집 자손이 모셔 왔느냐. 충렬아, 네가 분명 살려 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 천리만리 호국 일당에 잡히어 죽을 줄 알았더니, 십 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갖은 고난을 겪은 충렬을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이야 꿈속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 작자 미상, 「유충렬전」 -

* 옥새 : 옥으로 만든,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
* 향서 : 행복을 인정하는 문서.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인다.
- ②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 ③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 ④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 ⑤ 전쟁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한다.

39.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가 '장수'에게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장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 ②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유심'이 죽었다며 원통해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 ③ '군사들' 중에 '유충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군사들'은 '유충렬'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다.
- ④ '유충렬'이 '천자'를 도와 전쟁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태자'의 말과 기상에 감화되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 ⑤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심'의 귀양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 ② [A]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
- ③ [B]에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견해를 옹호한다.
- ④ [B]에서는 보답의 의지를 표명하여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⑤ [B]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두 차례의 시련을 겪는다.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은 충신인 부친 유심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가족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와 관련된다. 이로 인해 유충렬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두 과업이 함께 해결되는가 하면 우연한 계기로 연이어 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충렬은 영웅으로 귀환한다.

- ① 유충렬이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고난을 겪은 것에서, 유충렬의 첫 번째 시련은 '유심'의 유배로 인한 가족의 이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천자'가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낸 것에서,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역적'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강희주'의 유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 ③ 유충렬이 '강희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것에서, 유충렬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유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난 것에서, 우연한 계기에 가족 위기의 해소가 국가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남적'을 소탕하고 금의환향하는 유충렬을 백성들이 환대하는 것에서, 유충렬이 영웅으로 귀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 ② 친구는 제 몸을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 ③ 형은 온갖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성공했다.
- ④ 우리 팀이 상대를 큰 차이로 이기고 우승했다.
- ⑤ 삼촌은 병을 이기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였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A

(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천 년을 외따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제6연>

- 작자 미상, 「정석가」 -

(나)

임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
 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전년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령통탕**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
 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날 꺾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어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 하였
 어라.

- 작자 미상 -

- * 거머희뜩 :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 곰비임비 : 거듭거듭 앞뒤로 계속하여.
- * 천방지방 :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 삼대 : 삼(麻)의 줄기.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② (나)는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 ④ (가)와 (나) 모두 걱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상황의 가정에서, (나)는 행동의 묘사에서 과장이 드러난다.

44. ㉠~㉤ 중 <보기>의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고려 시대에는 민간의 노래 가운데 풍속을 교화하는 데 적
 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시켰다. 궁중
 연회에서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
 위기와 잘 어울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군신 간의 충의
 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널리 불린 「정석가」가 궁중 연회의 노래로 정착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5.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
 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 화자의 착각, 실수,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행
 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지
 함, 진솔함, 애뜻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
 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①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
 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
 을 공감한다.
- ② 화자가 '임'이라 여긴 '거머희뜩'한 것을 향해 '워령통탕' 건너
 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
 을 공감한다.
- ③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전년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
 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뜻함을
 공감한다.
- ④ 화자가 처음 보는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임'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
 한다.
- ⑤ 화자가 '임'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으로 돌리는 모
 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
 한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다음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나 인수봉 같은
 높은 봉우리만이 열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흰 산은 차가운 수묵(水墨)으로 젖어 있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신록이나 단풍,
 골짜기를 피어오르는 안개로는,
 눈이라도 흰 산을 뒤덮는 적설(積雪)로는 드러나지 않는,

 심지어는 장밋빛 햇살이 와 닿기만 해도 변질하는,
 그 ㉡ 고고(孤高)한 높이를 회복하려면

 백운대와 인수봉만이 가볍게 눈을 쓰는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
 - 김종길, 「고고(孤高)」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어순의 도치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흑백의 대비를 통해 회화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과 김종길의 「고고」는 대상이 지닌 특정 속성을 통해 화자가 경험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에 소멸을 앞둔 대상을 통해, 「고고」에서는 겨울날 대상의 고고함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이 경험되고 있다. 한편, 전자는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에서 촉발된 주관적 정서의 표현에, 후자는 정서의 직접적 표현보다는 대상 자체의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 존속하는 속성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강화하고 있군.
- ③ (나)에서는 대상의 높이가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군.
- ④ (나)는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때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군.
- ⑤ (가)와 (나)는 각각 특정한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군.

33. ㉠, ㉡과 관련지어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을 나타낸다.
- ② (가)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의 경험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을 나타낸다.
- ③ (가)의 '찬란한 슬픔'은 ㉠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낸다.
- ④ (나)의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을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나타낸다.
- ⑤ (나)의 '가볍게 눈을 쓰는'은 ㉡을 경험하기 위한 대상의 요건을 나타낸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B

죽음을 거부하면서도 삶답지 못한 생존의 늪을 허우적거릴 때, 이 도시의 생활환경이 왜 자연을 파손시키느냐의 또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동진강 하구의 삼각주 개펄에서 새 떼를 만난 것이다. 실의의 낙향 생활로 술만 죽여 내던 내 갸름한 생활 안으로 나그네새의 울음소리가 화톳불처럼 살아나기 시작했다. 새가 내 머릿속으로 자유자재 날아다녔다. ㉠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 새 중에서도 동진강 하구에서 자취를 감춘 도요새였다. 나는 도요새를 찾아 헤매었다. 그중 중부리도요를 발견하기 위해 휴일에는 정배형과 함께, 그 외의 날은 나 혼자서 동남만 일대의 습지와 못과 개펄을 싸돌았다. 그러나 봄은 짧았고 곧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그때는 이미 물떼새목의 도요새과에 포함된 그 무리는 우리나라 남단부를 거쳐 휴전선 하늘을 질러 북상한 뒤였다. ㉡ 다시 도요새 무리가 도래할 시절을 만해의 입처럼 기다렸다. 그래서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의 툰드라에서 편도 일만 킬로미터를 날아 남으로 남으로 내려오는 그 작은 새 떼의 길고 긴 여정에 밤마다 동참했던 것이다. 나의 일상이 너무 권태스러울 정도로 자유스러우면서, ㉢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내 사고의 굳게 닫힌 문을 도요새가 그 날카로운 부리로 쪼며 밀려들었다. 그리고 떠남의 자유와 고통에 대해 여러 말을 재잘거렸다.

— 우리는 여름에 그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번식하여 가을이면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에 오른다.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안다. 얇은 햇살 아래 파르스름하게 살아있던 이끼류와 작은 떨기나무가 잿빛으로 시들고, 긴 밤이 북빙의 찬바람을 몰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여정의 준비를 차린다. 여름 동안 부쩍 큰 새끼들도 날개를 손질하며 출발의 한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여행은 자유를 찾기 위한 고통의 길고 긴 도정이다. 처음 떠날 때, 우리는 무리를 이룬다. 그러나 창공을 가로질러 쉬지 않고 날 때는 다만 혼자 날 뿐이다. 마라톤 선수가 사십이 점 일구오 킬로를 완주할 때는 오직 자기 자신의 극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했듯, 작은 심장으로 숨 가빠 하며 열심히 열심히 혼자 날아간다. 그렇다

[A] 고 방향이나 길을 잃는 법은 없다. 혼자 날지만 결코 혼자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각 떨어진 개체의 몸이지만 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행로가 분명하므로 우리는 낙오되거나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 오백만 년 전 신생대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런 고통의 긴 여행을 터득해 왔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하늘이 맞물려 있는 무공천지에 길을 열어 봄 가을 두 차례를 대이동으로 장식해 온 것이다. 오직 생활환경에 적응키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치부해 버린다면 인간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 사악하고 간사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권력욕에 차 있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끝내 너희들 스스로까지 파멸시키기 위해 기계와 조직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 나는 여름 내내 도요새의 이런 재잘거림을 꿈을 통해, 또는 환청으로 들어 왔다. 가을이 왔다. 그러나 이제 동진강 하류의 삼각주에서 중부리도요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니, 중부리도요보다 몸집이 좀 큰 마도요, 등이 불그스름한 민물도요도 볼 수가 없었다. 동진강은 이미 공장 지대에서 흘러내린 폐수로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많은 철새나 나그네새 중에 이제는 공해에 비교적 강한 몇 종류의 철새와 나

그네새만이 도래할 뿐이다. 바다쇠오리 청둥오리 등의 오리 무리와, 흰목물떼새 꼬마물떼새 등의 물떼새 무리가 그것이다.

나는 열 개의 미터글라스가 꽂힌 시험관꽃이를 들고 동진강의 지류로 수질 오염도가 아주 높은 석교천 독 위를 걷고 있었다.

(중략)

나는 시험꽃이를 들고 자갈밭으로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이제 석교천은 살아 있는 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석교천 물은 이미 죽어 버렸다. 아니, 악마의 혼으로 살아 있다. 이 폐유가 결국 동진강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강폭이 팔십 미터에 가까운 동진강은 몰라도 이 석교천에는 분명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크롬산이나 수은을 함량하고 있을 것이다. 또 석교천 주민 중 십 년이나 이십 년 뒤 육가크롬화로 앓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자갈밭에 앉아 양말을 신었다. “두고 보라. 내가 기필코 석교천은 물론 동진강까지 예전의 자연수 상태로 만들고 말테니.” 누가 들으란 듯 내가 말했다. ㉤ 나 자신도 수천 번을 반복하여 이미 자기 최면에 걸린 말이였다. 누가 이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헛된 집념이라고 나를 비웃을지도 몰랐다. 아니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지구의 절반을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건너다니는 그 작은 도요새의 고통보다는 그 일이 내게 결코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리숙한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워 진술의 해학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주인공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여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물의 의식이 대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 ② ㉡ : 인물이 대상과의 만남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
- ③ ㉢ : 인물의 의식이 대상에 의해 각성되고 있다.
- ④ ㉣ : 인물이 대상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 ⑤ ㉤ : 인물의 의지가 확고해진 상태에 이르렀다.

36.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요새들 간의 논쟁적 상황을 설정하여 도요새의 지혜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도요새의 말이라는 우화적 장치를 통해 인간 세계에 대한 비관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요새의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를 통해 도요새 무리의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도요새의 비행경로에 관한 관찰 결과를 제시하여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도요새의 습성과 인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37. 윗글의 [도요새]와 <보기>의 [매화]에 대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않았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축(燭) 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 안민영, 「매화사」 제2수 -

* 암향부동 : 그윽한 향기가 은근히 떠돌.

- ① '도요새'는 인물에게 자신감을 주고, '매화'는 화자에게 자존감을 상실하게 한다.
- ② '도요새'는 인물의 욕망을 대리 표현하고,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를 의미한다.
- ③ '도요새'는 인물에 종속된 존재를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에게서 독립된 존재를 상징한다.
- ④ '도요새'는 작지만 인물에게 교훈을 주고, '매화'는 어리지만 화자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 ⑤ '도요새'는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표상하고,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09B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때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식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A]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녀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거든
 삼청동리(三清洞裡)*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바람에 흘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B]
 흉중(胸中)에 쌓인 말씀 쓸커시 사되리라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가 태부(賈太傅)*의 녀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하니
 ㉤백구(白鷗)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입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오색(五色)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을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갚으리라
 백옥(白玉)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C]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일모 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사* [D]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E]
 약수(弱水)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 조위, 「만분가(萬憤歌)」 -

- * 삼청동리 : 신선이 사는 동네 안.
- * 초객 : 나라의 시인 굴원.
- * 가 태부 : 한나라의 태부 가의.
- * 일모 수죽 : 해 질 녘 긴 대나무.
- * 취수도 냉박할사 : 푸른 옷소매도 차디차구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④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경물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44.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 ② ㉡: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 ③ ㉢: 화자와 대상의 만남을 도와주는 매개
- ④ ㉣: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
- ⑤ ㉤: 화자가 교감을 나누는 존재

45.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戀君)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 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 문학의 대표작인 「속미인곡」 역시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만분가」의 형식을 계승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보기 2>—
 모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가]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바장이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여 풋잠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옥(玉) 같은 얼굴이 반(半)이 넘게 늙으셨네 [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삶자 하니 [다]
 눈물이 바라 나니 말씀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었으니
 방정맞은 계성(鷄聲)에 잠은 어찌 깨었는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곁에 일어나 앉아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라]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차라리 식어지어 낙월(落月)이나 되어 있어 [마]
 임 계신 창(窓)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 ① [A]와 [마]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B]와 [다]에는 마음에 담아 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 ③ [C]와 [나]에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 ④ [D]와 [가]에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
- ⑤ [E]와 [라]에는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11A

(가)
 해사살 피여
 이윽한* 후,

 머흘 머흘
 꿀을 읊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셋기우고.

차돌부리
축 축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얇은 새 갈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정지용, 「조찬(朝餐)」 -

* 이윽한 : 시간이 지난.

* 길경 : 도라지.

(나)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들은, 눈을 씻어 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며 듣는 이의 마음 위에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 ㉠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큰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젠 팔아 버리셔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올엔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건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뇨 그까짓 슬쩍 팔아 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풀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허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담이에 비 뿌리지 않게 쳇*이나 해 다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쳇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쳇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중시 객쩍은 소리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텨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 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담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났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 이태준, 「파초」 -

* 쳇 :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해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3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경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모든 연을 2행으로 구성하여 형태적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 ③ 제2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제2연에서 제3연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⑤ 제4연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32.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청각을 촉각으로, ㉡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시키고 있다.
- ② ㉠은 화자가 ‘구름’을, ㉡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은 ‘파초’와 ‘다른 화초’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화자가, ㉡은 ‘나’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지용은 「조찬」 같은 후기 시에서 자연을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으로도 나타난다. 한편 이태준은 「파초」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대해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 ①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나’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③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흰 밥알’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 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나)의 ‘쳇’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대상이군.
- ⑤ (가)에서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한 감각적 서술은 자연물에 대한 ‘나’의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11A

일일은 승상이 술에 취하시어 ㉠책상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문득 봄바람에 이끌려 한 곳에 다다르니 이곳은 승상이 평소 애고기도 낚으며 풍경을 구경하던 조대(釣臺)*라. 그 위에 상서로운 기운이 어렸거늘 나아가 보니 청룡이 ㉡조대에 누웠다가 승상을 보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지르고 반공에 솟거늘, 깨달으니 일장춘몽이라.

심신이 황홀하여 죽장을 짚고 월령산 ㉢조대로 나아가니 나무 베는 아이가 나무를 베어 시냇가에 놓고 버들 그늘을 의지하여 잠이 깊이 들었거늘, 보니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귀밑을 덮었으며 검은 때 줄줄이 흘러 두 뺨에 가득하니 그 추레함을 측량치 못하나 그 중에도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 승상이 깨우지 않으시고, 옷에 무수한 이를 잡아 죽이며 잠 깨기를 기다리더니, 그 아이가 돌아누우며 탄식 왈,

[A] “㉣형산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누가 보배인 줄 알아 보랴. 여상의 자취 조대에 있건마는 그를 알아본 문왕의 그림자 없고 와룡은 남양에 누웠으며 삼고초려한 유향숙의 자취는 없으니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

하니 그 소리 웅장하여 산천이 울리는지라. 탈속한 기운이 소리에 나타나니, 승상이 생각하되, ‘영웅을 구하더니 이제야 만났도다.’ 하시고, 깨우며 물어 왈,

“봄날이 심히 곤한들 무슨 잠을 이리 오래 자느냐? 일어났으면 물을 말이 있노라.”

“어떤 사람이관데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는가? 나는 배고파 심란하여 말하기 싫도다.”

아이 머리를 비비며 군말하고 도로 잠이 들거늘, 승상이 왈, “네 비록 잠이 달지만 어른을 공경치 아니하느냐. 눈을 들어 날 보면 자연 알리라.”

그 아이 눈을 뜨고 이윽히 보다가 일어났으며 고개를 숙이고 잠잠하거늘, 승상이 자세히 보니 두 눈썹 사이에 천지조화를 갈무리하고 가슴속에 만고홍망을 품었으니 진실로 영웅이라. 승상의 ㉤명감(明鑑)*이 아니면 그 누가 알리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승상은 아이(소대성)를 자기 집에 묵게 하고 딸과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지만, 승상이 죽자 그 아들들이 대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에 대성은 영보산으로 옮겨 공부하다가 호왕이 난을 일으킨 소식에 산을 나가게 된다.

한 동자 마중 나와 물어 왈,
 “상공이 해동 소장공 아니십니까?”
 “동자, 어찌 나를 아는가?”
 소생이 놀라 묻자, 동자 답 왈,
 “우리 노야의 분부를 받들어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노야라 하시는 이는 뉘신고?”
 “아이 어찌 어른의 존호를 알리이까? 들어가 보시면 자연 알리이다.”

[B] 생이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청산에 불이 명랑하고 한 노인이 자줏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 책상을 의지하여 앉았거늘 생이 보니 학발 노인은 청주 이 승상일러라. 생이 생각하되,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이곳에 계신가?’ 하는데, 승상이 반겨 손을 잡고 왈,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줄 것이 있어 그대를 청하였나니 기쁘고도 슬프도다.”

하고 동자를 명하여 저녁을 재촉하며 왈,
 “내 자식이 무도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의사를 두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하나 그대는 대인군자로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 모두 하늘의 뜻이라. 오래지 아니하여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

하고 갑주 한 벌을 내어 주며 왈,
 “이 갑주는 보통 물건이 아니라 입으면 내게 유익하고 남에게 해로우며 창과 검이 뚫지 못하니 천하의 얻기 어려운 보배라. 그대를 잊지 못하여 정을 표하나니 전장에 나가 대공을 이루라.”

생이 자세히 보니 쇠도 아니요, 편갑도 아니로되 용의 비늘 같이 광채 찬란하며 백화홍금포로 안을 대었으니 사람의 정신이 황홀한지라. 생이 매우 기뻐 물어 왈,

“이 옷이 범상치 아니하니 근본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는 천공의 조화요, 귀신의 공역이라. 이름은 ‘보신갑’이니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리라. 다시 알아 무엇 하리오?”

승상이 답하시고, 차를 내어 서너 잔 마신 후에 승상 왈,
 “이제 칠성검과 보신갑을 얻었으니 만 리 청충마를 얻으면 그대 재주를 펼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당당한 기운을 건잡지 못하리라. 하나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지금 적장은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이니 북방 호국 왕이 되어 중원을 침노하니 지혜와 용맹이 범인과 다른지라. 삼가 조심하라.”

“만 리 청충마를 얻을 길이 없으니 어찌 공명을 이루리까?”
 생이 묻자, 승상이 답 왈,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얻을 것이니 급히 공을 이루라. 지금 싸움이 오래되었으나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 없으며 황제 지금 위태한지라. 머물지 말고 바빠 가라. 할 말이 끝없으나 밤이 깊었으니 자고 가라.”

하시고 책상을 의지하여 누우시니 생도 잠깐 졸더니, 홀연 찬바람, 기러기 소리에 깨달으니 승상은 간데없고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 놓였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소나무 밑이라.

- 작자 미상, 「소대성전」 -

* 조대 : 낚시터.
 * 명감 :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능력.

34. [A]와 [B]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B]는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35. 윗글의 '승상'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곤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 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군.
- ② 나이 어린 '소쟁'에게 자신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허함을 볼 수 있군.
- ③ '소쟁'에게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군.
- ④ '청충마'를 이미 얻고 '동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쟁'에게 적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군.
- ⑤ 살아서는 '소쟁'을 도왔지만 죽은 몸으로 '소쟁'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남을 도우려는 한결같은 성품을 느낄 수 있군.

36. <보기>를 참고할 때,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에서 공간은 산속이나 동굴 등 특정 현실 공간에 초현실 공간이 겹쳐진 것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 초현실 공간이 특정 현실 공간에 겹쳐지거나 특정 현실 공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통 초월적 존재의 등·퇴장과 관련된다. 한편 어떤 인물이 꿈을 꿀 때, 그는 현실의 어떤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정신은 꿈속 공간을 경험한다. 이 경우, 특정 현실 공간이 꿈에 나타나면 이 꿈속 공간은 특정 현실 공간에 근거하면서도 초현실 공간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 ① '승상'은 ㉠에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정신은 봄바람에 이끌려 ㉡로 나아갔으니, 그는 현실의 한 공간에서 잠들어 꿈속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군.
- ② ㉢는 ㉣에 근거를 둔 꿈속 공간으로, ㉢에서 본 '청룡'은 ㉣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상징하는군.
- ③ ㉢와 ㉣는 모두 초현실 공간으로, ㉢는 '승상'을 '아이'에게로 이끌기 위해, ㉣는 '소쟁'과 초월적 존재인 '승상'의 만남을 위해 설정된 곳이군.
- ④ ㉣는 '승상'의 정신이 경험하는 꿈속 공간이고, ㉤는 '소쟁'이 자기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군.
- ⑤ '승상'이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에 ㉣가 겹쳐져 있었지만 '승상'이 사라지면서 ㉣도 함께 사라졌군.

37. ㉠의 화자에게 ㉡을 지닌 '승상'이 격려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굶餓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하듯이, 네 재주로도 할 일은 있을 터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라.
- ② '자루 속의 송곳'이라고 하듯이, 앞으로 너의 진가가 반드시 드러나 많은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게 될 거야.
- ③ '장마다 꼴뚜기가 나올까'라고 하듯이, 운수가 좋아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려 보아라.
- ④ '차면 넘친다'라고 하듯이, 지금 너의 괴로움은 욕심이 지나쳐서 생기는 것이니 욕심을 줄이면 나아질 거야.
-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듯이, 너의 용기는 무모하니 현실을 직시하면 성공할 날이 곧 올 거야.

[앞부분의 줄거리] 화랑도를 숭상하는 '유종'과 당나라를 숭상하는 '금지'는 내심 서로 못마땅해한다. 이런 가운데 '금지'는 아들 '금성'과 '유종'의 딸 '주만'과의 혼사를 진행하려 한다.

설령 금성이가 출중한 재주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혼인을 거절할밖에 없었으리라. 첫째로 금지는 당학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고. 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 명황(唐明皇)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빚어 내어 오랑캐의 말굽 아래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측나라란 두메 속에 오륙 년을 갇히어 있지 않았는가. 금지가 당대 제일 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이백이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간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 술에 감지덕지해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는 꿈에라도 생각 밖이 아니냐. ㉠ 그네들의 한문이란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든 이것을 좋아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해 낼 자이라.

“한 나이나 젊었다면!”

유종은 이따금 시들어 가는 제 팔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 더러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인제는 ㉡ 무 밀둥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속으로는 그의 주의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려만 당학파의 세력에 밀리어 감히 발설을 못 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도 젊은이 축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낼는지 모르리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 찾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닮는 이를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이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 이 늙은 향도(香徒)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벌써 수년을 두고 ㉣ 그럴 만한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 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이지 않았다.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보담 더 어려웠다. 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쭉 미끄러지는 듯이 털요 바닥 위에 누웠다. 금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삐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금지로 하여금 다시 입을 열지 못 하도록 ㉤ 다른 데 정혼을 해 놓아야 한다. 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삼한 통일 당년의 늙름하고 씩씩한 기풍(氣風)이 당학에 지질리고 문약(文弱)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중략 부분의 줄거리] '유종'이 사위를 구하는 가운데, '주만'이 부여의 천민 석공 '아사달'을 사모하고 있음이 알려진다. 한편 '아사달'은 자신을 찾아온 아내 '아사녀'가 끝내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 못에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못 속에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한다.

그러나 어느 결엔지 아사녀의 환영은 깜박 사라져 버렸다. 아까까지는 어렴풋이라도 짐작되던 그 흔적마저 놓치고 말았다. 아무리 눈을 닦고 돌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눈매까지는 그럴싸하게 드러났지만 그 아래로는 캄캄한 밤빛이 쌓인 듯 아득할 뿐. 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골머리만 부질없이 헝헝 내어 돌리었다. 그러자 문득 그 돌 얼굴이 굵실 움직이는 듯하며 주만의 얼굴이 부시도록 선명하게 살아났다. 마치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 모양으로.

그 눈동자는 때룩때룩 애원하듯 원망하듯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다.

[A] “이 돌에 나를 새겨 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

그 입술은 달싹달싹 속살거리는 것 같다.

아사달은 정을 켜 채로 머리를 털고 눈을 감았다. 돌 위에 나타난 주만의 모양은 그의 감은 눈시울 속으로 기어들어 오고야 말았다. 이 몇 달 동안 그와 지내던 가지가지 정경이 그림 등 모양으로 어른어른 지나간다. 초파일 탑돌이할 때 맨 처음으로 마주치던 광경, 기절했다가 정신이 돌아날 제 코에 풍기던 야릇한 향기, 우레가 울고 악수가 쏟아질 적 불꽃을 날리는 듯한 그 뜨거운 입김들……. 아사달은 고개를 또 한 번 흔들었다. 그제야 저 멀리 돈짜만 한 아사녀의 초라한 자태가 아른거린다. 주만의 모양을 구름을 헤치고 뚫고 뚫고 떠오르는 햇발과 같다 하면, 아사녀는 썰녘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밖에 없었다.

[B] 물동이를 이고 치마꼬리에 그 빨간 손을 씻으며 배시시 웃는 모양, 이별하던 날 밤 그린 듯이 도사리고 남편을 기다리던 앓음앓음, 일부러 자는 척하던 그 가늘게 떨던 눈시울, 버드나무 그늘에서 숨기던 눈물들…….

아사달의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도 흔들린다. 휘슬레를 돌리듯 핑핑 돌다가 소용돌이치는 물결 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지는 달그림자가 이내 한 곳으로 합하듯이, 두 환영은 마침내 하나로 어우러지고 말았다. 아사달의 캄캄하던 머릿속도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녀와 주만의 두 얼굴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아사달은 눈을 번쩍 떴다. 설레던 가슴이 가을 물같이 맑아지자, 그 돌 얼굴은 세 번째 제 원불(願佛)로 변하였다. 선도산으로 뉘엿뉘엿 기우는 햇발이 그 부드럽고 찬란한 광선을 던질 제 못물은 수멸수멸 금빛 춤을 추는데 흥에 겨운 마치고 정 소리가 자지러지게 일어나 저녁나절의 고요한 못 독을 울리었다. 새벽만 하여 한가위 밝은 달이 홀로 정 자리가 새로운 돌 부처를 비칠 제 정 소리가 그치자 은물결이 잠깐 헤쳐지고 풍하는 소리가 부근의 적막을 한순간 깨트렸다.

- 현진건, 「무영탑」-

* 당학 : 당나라의 학문.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④ 물신주의에 빠진 세태가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의 비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유종'이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이다.
- ③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④ ㉣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다.
- ⑤ ㉣은 '유종'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이다.

40. [A], [B]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 ③ [B]에는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다.
- ④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 자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무영탑」은 작가 현진건의 예술관, 민족주의적 태도, 현실 인식 등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석가탑 구성에 얽힌 인물들의 이야기를 펼쳐 내면서 숭고한 예술적 성취의 과정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예술적 성취는 석공 아사달이 자신의 고뇌를 극복하며 예술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 특히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 ① '유종'이 '이백'을 칭송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화랑도 사윳감을 구하려 하는 장면에서,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등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의 사랑과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금지'와 같은 '당학과'를 '나라를 줌먹게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는 장면에서,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④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한 장면에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군.
- ⑤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빚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군.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설화(「서석가탑」)뿐만 아니라, 현진건의 기행문(「고도 순례 경주」, 1929)과 그의 소설(「무영탑」, 1939)에도 나타난다.

[자료 1]
불국사 창건 시 당나라에서 온 석공에게 아사녀라는 여인이 있었다. 아사녀가 갑자기 와서 석공과 만나기를 요구하였으나, 큰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아사녀가 비루한 몸이라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아사녀가 남서쪽 십리쯤에 있는 연못을 내려다보면 석공이 보일 듯하여, 가서 살펴보니 정말 석공의 모습이 비쳤다. 그러나 탑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영탑이라 불렀다.
- 「서석가탑」 -

[자료 2]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은 다시금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였다. 그는 제 예술로 죽은 아내를 살리고 아울러 부처님에게까지 천도(薦度)하려 한 것이다. 이 조각이 완성되면서 자기 역시 못 가운데 몸을 던져 아내의 뒤를 따랐다. 불국사 남서방에 영지(影池)란 못이 있으니 여기가 곧 아사녀와 당나라 석공이 빠져 죽은 데다.
- 현진건, 「고도 순례 경주」 -

- ①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군.
- ②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군.
- ③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군.
- ④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군.
- ⑤ 윗글의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11A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양대(陽臺)에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 있다
청조(靑鳥)도 아니 오고 백안(白鴈)도 그쳤으니
 소식도 못 듣거늘 임의 모습 보겠는가
 ㉠ 화조월석(花朝月夕)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여겨
 나도 장부(丈夫)로서 모진 마음 지어 내어
 이제나 잇자 한들 눈에 절로 밝히거늘 설위 아니 그리워할쏘냐
 ㉡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삼 년 같도다
 원수(怨讎)가 원수 아니라 못 잇는 게 원수로다
사택망치(徙宅忘妻)는 그 어떤 사람이고
 그 있는 곳 알고자 진초(秦楚)*엔들 아니 가라
 무심하고 쉽게 잇기 배워나 보고 싶구나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주가 있을까마는
 임 향한 총명*이야 **사광(師曠)**인들 미칠쏘냐
 총명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질어 가니
 ㉢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
 수척한 얼굴이 시름 겨워 검어 가니
 취한 듯 흐릿한 듯 청심원 소합환 먹어도 효험 없다
 고황(膏肓)에 든 병을 **편작(扁鵲)**인들 고칠쏘냐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고 있노라
 ㉣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이리되자 맺었던가
비익조(比翼鳥) 부부 되어 연리지(連理枝) 수풀 아래
 나무 엮어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망정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동과 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다 늙었다
 예로부터 이른 말이 견우직녀를
 천상(天上)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마는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마는
 ㉤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시고
 -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

* 진초 : 진나라, 초나라 지역. 매우 먼 곳을 말함.
 * 총명 : 듣거나 본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풍자의 기법으로, 떠나간 임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태어를 나열하여,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으로, 임에 대한 애정이 식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즉 경치가 좋은 시절을 뜻하는 '화조월석'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하루'와 긴 시간을 나타내는 '삼년'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인 '밥'과 '잠'이라는 시어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이리되자'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임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존재를 나타내는 '은하'라는 시어를 통해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45. <보기>는 윗글에서 사용한 고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청조: 신녀 서왕모를 위해 음식물을 가져오고 소식을 전해주는 신화 속의 푸른 새.
 ㉡ 사택망치: 노나라 애공과 공자의 대화에 나오는 말로, 이사할 때 아내를 깜박 잊고 두고 가는 것.
 ㉢ 사광: 춘추 시대 진(晉)나라 악사로, 청각 능력이 우수하여 음률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에 뛰어났음.
 ㉣ 편작: 전국 시대의 명의로, 환자의 오장을 투시하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함.
 ㉤ 비익조: 암수가 각각 눈 하나와 날개 하나만 있어서 짝을 지어야만 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새.

- ① ㉠을 활용한 것은, '청조'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자와 임 사이에 소식이 끊겼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② ㉡을 활용한 것은, '사택망치'한 이가 차라리 부러울 정도로 화자가 임을 잇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③ ㉢을 활용한 것은, 화자가 임에 대한 기억을 떨쳐 낼 수 없음을 '사광'의 기억력에 견주어 말하려는 것이군.
- ④ ㉣을 활용한 것은,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편작'마저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매우 깊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⑤ ㉤을 활용한 것은, 화자와 임이 이별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익조'처럼 재회할 운명임을 말하려는 것이군.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괴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늬야 늣뎡던고
 ㉠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천하 엇찌호야 적닷 말고
 ㉡ 어와 더 디위를 어이호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호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원통골 7는 길로 사자봉을 츠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주야의 흘너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여
 외나모 뼈근 드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호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7티 플터이셔 뵈7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셔 고터 의논호게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호려니
 산중을 밧양 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 남여(籃輿) 완보(緩步)호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호니
 영롱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윈(怨)호는 듯
 - 정철, 「관동별곡」 -

[A]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엮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 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이었다. 주위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얇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찻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향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B]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웅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

[B]

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 최익현, 「유한라산기」 -

* 부상 : 해가 뜨는 동쪽 바다.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 과정이 힘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는 (가)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올은말이
 바다 밧근 하늘이니 하늘 밧근 므서신고
 궂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육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장천(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 일고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③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
- ③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군.
- ④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 산은 첩첩하고 물은 중중한데, 잠자려는 새들은 숲으로 들어가 객회(客懷)를 자아내니 숙향이 갈 데 없어서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문득 파랑새가 꽃봉오리를 물고 손등에 앉거늘 숙향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꽃봉오리를 먹으니 눈이 맑아지고 배가 불러 정신이 상쾌하며 몸에 향내 진동하더라.

일어나서 ㉡ 파랑새가 가는 대로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산골짜기에 한 궁궐이 있는데, 그 새가 큰 문으로 들어가거늘 숙향이 따라 들어갔다. 한 계집이 마중 나와 숙향을 안고 들어가 큰 전각(殿閣) 앞에 놓으니 한 부인이 머리에 화관(花冠)을 쓰고 황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숙향을 맞아 팔을 밀어 동편 백옥 의자에 앉기를 청하거늘 숙향이 어찌할 줄 모르고 다만 울 뿐이었다.

부인 왈,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었으니 정신이 바뀌어 전생 일을 모르나이다.”

선녀에게 명해 경액(瓊液)*을 드리라 한대 선녀가 만호잔에 호박대를 받쳐 이슬 같은 것을 부어 드리거늘 숙향이 받아먹으니 맛은 젓맛 같고 매우 향기롭더라. ㉢ 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되니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 즉시 일어나 부인에게 예를 표해 왈,

[A] “참은 천상에 득죄(得罪)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심하거늘 이다지도 불쌍히 여겨 대접하시니 지극히 감격하
나이다.”

“선녀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겠나이까?”

“인간 세상에 내려와 정신이 바뀌었사오니 자세히 아옵지 못 하나이다.”

“이 땅은 명사계(冥司界)요, 저는 후토 부인이니이다.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생을 겪었으며 접때 잔나비와 황새를 보내 도와 드렸고 이번에는 파랑새를 보내었삽더니 보셨나이까?”

“다 보았사오니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오니 부인의 시비나 되어 만분지일이나 갚사올까 바라나이다.”

부인이 정색하고 왈,

[B]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고생을 겪었으나 그런 말을 어찌 하시나이까? 선녀 가실 곳이 또한 머오니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겪을 것이오매 쉬어
내일 가소서.”

하고, 잔치를 배설하여 환대하니 음식과 보배 등이 극히 화려하더라.

숙향이 부인에게 왈,

“참이 전일 듣사오니 명사계는 시왕(十王)이 계신 데라 하더니 그러하오이까?”

“그러하여이다.”

“그러하오면 시왕전이 어디오이까?”

“멀지 아니하오이다.”

“인간 세상의 부모가 난에 죽었으면 시왕전에 왔사올 것이니 반가이 만나 볼 수 있겠나이까?”

[C] “그대 부모는 인간 세상에 반석같이 계시고 그들도 원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요, 봉래산 선관 선녀로서 인간 세상에 귀양 왔사오니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요, 이곳은 오지 아니하리이다.”

이선이 숙향이 보내 온 혈서를 보고 크게 놀라 통곡하고 그 편지를 숙모께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서 숙향과 함께 죽으려 하더니 숙부인 왈,

“아직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성급히 굴지 마라.”

하며 하인을 불러 할미 집에 가 보고 오라 하고, 그 고을의 이방 원통을 불러서 그 연고를 물으니 원통이 고하기를,

“㉣ 상서께서 명을 내리시어 숙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신 고로 원님이 상서 명을 거역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숙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집장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하여 죽이지 못하였사오니 원님이 오늘 죽이려 하옵고 큰 칼을 썩워 옥에 가두었나이다.”

숙부인이 듣고 크게 놀라 왈,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가 양자로 들였으며 선과 숙향이 혼사를 치르도록 했거늘,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나를 과부라 업신여겨 이러하니 내 황성에 들어가 상서에게 일러 듣지 아니하면 황후께 아뢰어 황제께서 아시게 하리라.”

하고 즉시 행장을 차려서 장안으로 가니라.

한편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며 숙향이 죽었으면 함께 죽으리라 하더라.

이튿날 김전이 숙향을 올리라 하니 이때 낭자가 옥 같은 두 귀 밑에 흐르나니 눈물이라. ㉤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니 반은 죽은 사람이라. 이를 보는 사람이 눈물 아니 짓는 이가 없더라.

김전이 왈,

“네 고향은 어디며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나 되며 누 집 딸이라 하나뇨?”

낭자 왈,

“오 세에 부모를 난중에 잃고 사방에 유리(流離)하옵다가 겨우 의탁한 몸 되었사오니 고향과 부모의 성명은 모르오되 나이 찬 후에 혹 듣사오니 김 상서의 딸이라 하오며 이름은 숙향이요 나이는 십육 세로소이다.”

김전의 아내 장 씨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김전에게 왈,

“그 여자의 얼굴을 보오니 죽은 우리 딸과 같삽고 연치(年齒) 또한 같사오되 다만 김 상서의 딸이라 하니 그 근본을 자세히 모르오나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으니 혹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다니는지 마음이 자연 비창(悲愴)하오니 아직 죽이지 말고 상서께 기별하여 스스로 처치하게 하오소서.”

김전이 부인의 말을 옹계 여겨 숙향을 도로 하옥하라 하고, 이 사연을 이 상서에게 회보(回報)하니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 경액 : 신선이 마신다는 신비로운 약물.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후토 부인'은 '숙향'을 명사계로 인도하여 전생에서의 '숙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 ② '이선'은 '숙향'이 처한 상황을 알고서 '숙향'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③ '숙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
- ④ '김전'은 '장 씨'의 말을 수용하여 '숙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루고 있다.
- ⑤ '장 씨'는 '숙향'을 보고서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숙향'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인물이 처한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인물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 초현실의 공간으로 진입해 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에서는 인물에게 갑자기 일어난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이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A]~[C]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소설 중에는 '천상'과 '선계'를 포함하는 '천상계'와 인간 세상인 '지상계'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들이 많다. 이 원리는 '천상계-지상계-천상계'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구현된다. 이 원리를 토대로 하여 인물에게 주어지는 처벌과 보상, 인물이 겪는 고난의 정도와 기한이 결정된다.

- ① [A]에는 지상계에서 고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천상계에서 지은 죄에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② [B]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모두 치르면 천상계의 신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③ [B]에는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인 인물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④ [C]에는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 ⑤ [C]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치르는 인물은 이미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꿰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젠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귀향이 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림의 ㉤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주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매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 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낡은 집」 -

* 예제로 : 여기저기로.

43.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함에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풀리는 강변 풍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꿈이 있던 시절을 함께 회상할 사람이 없는 아쉬움을 설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이리저리 떠돌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장꾼들의 설움을 독백조로 토로하고 있다.
- ④ ㉣: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객관화하여 지칭하고 있다.
- ⑤ ㉤: 썰렁한 집 안의 정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 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을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최종) -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③	1	14	①	3	27	⑤	1	40	④	2
2	③	2	15	④	2	28	②	2	41	⑤	2
3	④	2	16	③	2	29	③	3	42	②	2
4	②	2	17	①	2	30	④	2	43	⑤	2
5	①	2	18	④	2	31	②	2	44	①	1
6	④	2	19	④	2	32	⑤	2	45	②	2
7	③	3	20	④	2	33	③	2	46	②	2
8	⑤	2	21	③	2	34	⑤	3	47	⑤	2
9	⑤	1	22	④	3	35	①	1	48	①	2
10	⑤	2	23	①	2	36	②	2	49	②	2
11	③	2	24	③	2	37	②	2	50	④	2
12	②	2	25	③	2	38	①	2			
13	①	2	26	⑤	2	39	①	2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최종)차 -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③	1	14	④	2	27	①	2	40	③	2
2	④	2	15	④	2	28	②	2	41	③	2
3	④	2	16	⑤	2	29	②	2	42	④	3
4	①	2	17	②	2	30	③	2	43	②	1
5	⑤	2	18	③	2	31	①	2	44	②	2
6	②	2	19	②	2	32	④	2	45	③	2
7	④	2	20	①	2	33	①	2	46	⑤	2
8	①	2	21	④	2	34	②	3	47	⑤	1
9	⑤	2	22	④	2	35	⑤	2	48	①	2
10	③	3	23	④	3	36	⑤	2	49	⑤	2
11	③	2	24	①	1	37	③	2	50	③	3
12	⑤	2	25	②	2	38	⑤	2			
13	①	2	26	②	2	39	③	1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종 3차) - 언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문항번호	정답	배점	문항번호	정답	배점	문항번호	정답	배점	문항번호	정답	배점
1	⑤	1	14	④	3	27	①	2	40	⑤	2
2	①	2	15	②	2	28	③	2	41	②	2
3	④	2	16	④	2	29	④	2	42	⑤	3
4	④	2	17	⑤	1	30	①	2	43	④	2
5	①	2	18	⑤	2	31	②	2	44	③	2
6	①	2	19	①	2	32	③	1	45	④	2
7	④	3	20	②	2	33	③	2	46	③	2
8	④	2	21	①	2	34	②	2	47	②	2
9	③	2	22	①	2	35	⑤	2	48	④	2
10	①	2	23	③	2	36	③	2	49	②	2
11	③	2	24	③	1	37	⑤	2	50	②	1
12	⑤	3	25	③	2	38	④	2			
13	④	2	26	①	3	39	③	2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②	1	14	①	2	27	③	2	40	①	2
2	③	2	15	②	2	28	⑤	1	41	③	2
3	②	2	16	④	2	29	①	2	42	⑤	3
4	③	2	17	④	2	30	④	2	43	①	1
5	①	2	18	③	2	31	④	2	44	③	2
6	⑤	2	19	③	2	32	①	2	45	②	2
7	②	2	20	⑤	2	33	②	1	46	①	2
8	④	3	21	②	2	34	⑤	2	47	⑤	2
9	①	1	22	③	2	35	⑤	2	48	③	2
10	③	2	23	⑤	2	36	④	2	49	②	3
11	⑤	2	24	②	3	37	④	2	50	④	2
12	③	2	25	④	2	38	③	2			
13	④	3	26	⑤	2	39	②	2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최종) -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번호	정답	배점	문항번호	정답	배점	문항번호	정답	배점	문항번호	정답	배점
1	⑤	1	14	③	2	27	①	2	40	③	2
2	③	2	15	④	2	28	①	2	41	③	1
3	①	2	16	⑤	2	29	④	2	42	③	2
4	②	2	17	①	1	30	⑤	3	43	②	2
5	④	2	18	②	2	31	⑤	2	44	④	2
6	②	2	19	①	2	32	④	3	45	③	2
7	①	2	20	④	3	33	⑤	2	46	①	2
8	②	2	21	③	1	34	④	2	47	③	2
9	⑤	2	22	④	2	35	⑤	2	48	②	2
10	③	3	23	③	3	36	⑤	2	49	①	2
11	①	2	24	③	2	37	③	2	50	②	1
12	⑤	2	25	②	2	38	②	2			
13	①	2	26	④	2	39	④	2			

답지번호 빈도표

번호 내용	①	②	③	④	⑤	계
빈도	10	9	12	10	9	50

문항배점별 문항수 빈도표

배점 내용	1	2	3	계
문항수	5	40	5	50
점수	5	80	15	100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③	1	14	②	2	27	②	2	40	②	2
2	④	2	15	②	2	28	①	2	41	②	2
3	①	2	16	⑤	2	29	②	2	42	①	3
4	④	2	17	④	2	30	①	2	43	③	1
5	①	2	18	⑤	1	31	⑤	2	44	④	2
6	③	2	19	①	2	32	③	2	45	④	2
7	⑤	3	20	④	3	33	④	2	46	①	2
8	④	2	21	③	2	34	⑤	3	47	⑤	2
9	③	2	22	⑤	2	35	③	2	48	①	2
10	①	2	23	③	2	36	⑤	2	49	⑤	3
11	④	2	24	②	2	37	③	2	50	①	1
12	②	2	25	③	2	38	②	2			
13	⑤	1	26	⑤	2	39	④	2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최종) -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⑤	2	14	①	2	27	③	2	40	②	2
2	③	2	15	③	3	28	①	1	41	③	2
3	②	2	16	⑤	1	29	④	3	42	①	2
4	⑤	1	17	⑤	2	30	④	2	43	②	2
5	④	2	18	④	2	31	⑤	2	44	①	2
6	②	2	19	①	2	32	④	2	45	③	2
7	④	2	20	⑤	2	33	⑤	1	46	①	3
8	③	3	21	②	2	34	②	2	47	①	2
9	④	2	22	⑤	2	35	⑤	2	48	⑤	3
10	②	2	23	③	2	36	⑤	2	49	④	2
11	⑤	2	24	④	2	37	①	1	50	①	2
12	②	2	25	②	2	38	②	2			
13	④	2	26	③	2	39	③	2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어 영역 정답표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㉔	2	14	㉔	2	27	㉓	2	40	㉓	2
2	㉕	1	15	㉕	2	28	㉕	3	41	㉓	2
3	㉑	2	16	㉔	2	29	㉒	1	42	㉕	2
4	㉔	2	17	㉔	2	30	㉔	2	43	㉔	1
5	㉓	2	18	㉓	3	31	㉕	1	44	㉔	2
6	㉒	2	19	㉒	2	32	㉒	2	45	㉓	3
7	㉒	2	20	㉕	2	33	㉑	2	46	㉔	2
8	㉔	2	21	㉕	2	34	㉒	2	47	㉑	2
9	㉑	2	22	㉔	2	35	㉓	2	48	㉒	2
10	㉔	3	23	㉒	1	36	㉔	2	49	㉓	2
11	㉑	2	24	㉓	2	37	㉕	3	50	㉓	2
12	㉕	2	25	㉑	2	38	㉒	2			
13	㉕	2	26	㉑	2	39	㉑	2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정답표 (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㉓	1	14	㉔	2	27	㉓	2	40	㉑	2
2	㉑	2	15	㉑	2	28	㉓	1	41	㉕	2
3	㉔	2	16	㉑	1	29	㉕	2	42	㉑	1
4	㉓	2	17	㉒	2	30	㉕	2	43	㉓	2
5	㉑	2	18	㉕	2	31	㉒	3	44	㉓	2
6	㉕	2	19	㉔	2	32	㉕	2	45	㉔	2
7	㉔	2	20	㉒	3	33	㉓	3	46	㉒	2
8	㉒	2	21	㉕	2	34	㉓	2	47	㉔	2
9	㉓	2	22	㉒	2	35	㉑	2	48	㉒	1
10	㉕	3	23	㉔	3	36	㉕	2	49	㉔	2
11	㉑	2	24	㉔	2	37	㉒	2	50	㉒	2
12	㉕	2	25	㉑	2	38	㉔	2			
13	㉒	2	26	㉔	2	39	㉓	2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A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③	2	13	②	3	25	④	2	37	①	2
2	⑤	3	14	⑤	2	26	③	2	38	②	2
3	④	2	15	⑤	2	27	④	2	39	①	2
4	②	2	16	①	2	28	①	2	40	③	3
5	⑤	2	17	③	2	29	④	3	41	③	2
6	①	2	18	③	3	30	④	2	42	④	2
7	④	3	19	①	2	31	②	2	43	①	3
8	⑤	2	20	②	2	32	②	2	44	⑤	2
9	③	2	21	③	3	33	①	3	45	④	2
10	②	2	22	⑤	2	34	③	2			
11	④	2	23	②	2	35	③	2			
12	③	2	24	③	2	36	②	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B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②	2	13	③	3	25	②	2	37	①	2
2	④	2	14	⑤	2	26	③	2	38	①	2
3	③	3	15	⑤	2	27	④	2	39	④	2
4	②	2	16	②	2	28	④	2	40	③	3
5	⑤	2	17	④	2	29	①	3	41	②	2
6	④	2	18	①	2	30	③	2	42	③	2
7	⑤	3	19	④	3	31	②	2	43	②	3
8	①	2	20	⑤	2	32	①	2	44	⑤	2
9	③	2	21	⑤	2	33	③	3	45	④	2
10	②	2	22	④	2	34	①	2			
11	⑤	2	23	④	3	35	①	2			
12	③	2	24	⑤	2	36	②	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A형)과목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③	2	13	②	2	25	②	2	37	⑤	2
2	②	2	14	①	2	26	③	2	38	③	2
3	②	3	15	③	2	27	①	3	39	④	2
4	②	2	16	④	2	28	②	2	40	⑤	3
5	⑤	2	17	③	2	29	⑤	3	41	⑤	2
6	⑤	2	18	③	3	30	④	2	42	①	2
7	⑤	3	19	④	2	31	①	2	43	①	3
8	②	2	20	②	2	32	③	2	44	⑤	2
9	①	2	21	①	3	33	③	3	45	④	2
10	⑤	2	22	①	2	34	③	2			
11	④	2	23	②	2	35	①	2			
12	③	3	24	④	2	36	①	2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B형)과목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⑤	2	13	③	2	25	②	2	37	①	2
2	②	2	14	①	2	26	④	2	38	④	2
3	①	3	15	③	2	27	②	2	39	③	2
4	②	2	16	⑤	2	28	④	2	40	③	3
5	⑤	2	17	④	2	29	⑤	3	41	②	2
6	②	2	18	④	2	30	⑤	2	42	③	2
7	④	3	19	⑤	3	31	③	2	43	②	3
8	①	2	20	①	2	32	④	2	44	⑤	2
9	①	2	21	①	2	33	⑤	3	45	④	2
10	⑤	2	22	③	2	34	③	2			
11	④	3	23	①	3	35	⑤	2			
12	①	2	24	①	2	36	②	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정답표 (A형)과목 (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④	2	13	④	3	25	⑤	2	37	③	2
2	②	2	14	⑤	2	26	①	2	38	①	2
3	①	3	15	③	2	27	②	3	39	⑤	2
4	④	2	16	⑤	2	28	④	2	40	②	3
5	①	2	17	③	2	29	④	2	41	④	2
6	①	2	18	④	3	30	⑤	3	42	②	2
7	③	3	19	②	2	31	③	2	43	③	3
8	③	2	20	⑤	3	32	④	2	44	①	2
9	②	2	21	④	2	33	②	2	45	④	2
10	⑤	2	22	①	2	34	①	2			
11	③	2	23	③	2	35	④	2			
12	③	2	24	⑤	2	36	⑤	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정답표 (B형)과목 (홀수)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④	2	13	②	2	25	②	2	37	⑤	3
2	③	2	14	⑤	2	26	③	2	38	①	2
3	②	3	15	③	2	27	②	3	39	⑤	2
4	④	2	16	③	3	28	⑤	2	40	②	3
5	①	2	17	④	2	29	④	2	41	④	2
6	③	2	18	④	2	30	①	3	42	⑤	2
7	④	3	19	⑤	2	31	③	2	43	③	3
8	⑤	2	20	③	2	32	③	2	44	①	2
9	②	2	21	②	3	33	①	3	45	④	2
10	⑤	2	22	⑤	2	34	⑤	2			
11	②	2	23	⑤	2	35	①	2			
12	①	2	24	①	2	36	③	2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A형)과목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⑤	2	13	⑤	3	25	④	2	37	③	3
2	⑤	2	14	①	2	26	⑤	2	38	①	2
3	③	2	15	②	2	27	①	3	39	③	2
4	①	2	16	④	2	28	⑤	2	40	⑤	2
5	⑤	3	17	①	2	29	②	3	41	②	3
6	①	2	18	④	2	30	①	2	42	④	2
7	③	3	19	⑤	2	31	②	2	43	③	2
8	②	2	20	⑤	2	32	④	2	44	③	2
9	④	2	21	⑤	3	33	⑤	3	45	②	2
10	①	2	22	③	2	34	④	2			
11	①	2	23	④	2	35	②	2			
12	③	2	24	⑤	3	36	④	2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B형)과목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④	2	13	⑤	2	25	⑤	2	37	③	3
2	⑤	2	14	②	2	26	③	3	38	①	2
3	①	3	15	①	2	27	①	2	39	④	2
4	⑤	2	16	①	3	28	④	2	40	⑤	2
5	⑤	2	17	④	2	29	④	2	41	⑤	2
6	②	2	18	①	2	30	①	3	42	②	3
7	④	3	19	④	2	31	③	2	43	③	2
8	④	2	20	⑤	2	32	②	2	44	④	2
9	④	2	21	④	2	33	②	3	45	③	3
10	①	2	22	①	2	34	④	2			
11	②	2	23	⑤	3	35	②	2			
12	③	2	24	③	2	36	④	2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A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①	2	13	④	2	25	⑤	3	37	②	3
2	③	2	14	③	2	26	③	2	38	④	2
3	③	3	15	①	2	27	④	2	39	⑤	2
4	②	2	16	③	2	28	④	2	40	③	2
5	④	2	17	③	2	29	⑤	3	41	④	3
6	③	2	18	②	2	30	②	2	42	①	2
7	③	3	19	②	2	31	②	2	43	⑤	2
8	①	2	20	④	2	32	④	2	44	③	2
9	⑤	2	21	④	3	33	④	3	45	②	3
10	③	2	22	①	2	34	①	2			
11	①	2	23	⑤	2	35	⑤	2			
12	②	3	24	④	2	36	①	2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B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㉔	2	13	㉔	2	25	㉕	3	37	㉔	3
2	㉔	2	14	㉓	2	26	㉑	2	38	㉔	2
3	㉓	2	15	㉑	2	27	㉔	2	39	㉕	2
4	㉕	3	16	㉔	2	28	㉕	2	40	㉓	2
5	㉓	2	17	㉕	2	29	㉔	2	41	㉔	3
6	㉔	2	18	㉔	2	30	㉓	3	42	㉑	2
7	㉓	3	19	㉑	2	31	㉔	2	43	㉑	2
8	㉔	2	20	㉔	3	32	㉓	3	44	㉔	2
9	㉕	2	21	㉑	2	33	㉑	2	45	㉓	3
10	㉓	2	22	㉑	2	34	㉓	2			
11	㉕	2	23	㉕	2	35	㉔	2			
12	㉕	3	24	㉔	2	36	㉔	2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정답표
(A형) 과목 (홀수) 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①	2	13	⑤	3	25	②	3	37	②	2
2	②	2	14	⑤	2	26	③	2	38	①	2
3	⑤	2	15	②	2	27	⑤	2	39	⑤	2
4	③	2	16	③	2	28	④	2	40	⑤	2
5	④	3	17	①	2	29	①	3	41	④	2
6	①	2	18	③	3	30	④	2	42	⑤	3
7	②	3	19	②	2	31	③	2	43	①	2
8	③	2	20	③	2	32	③	2	44	④	2
9	⑤	2	21	②	2	33	④	2	45	⑤	3
10	④	2	22	③	3	34	①	2			
11	③	2	23	④	2	35	①	2			
12	④	2	24	②	2	36	④	3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정답표
(B형) 과목 (홀수) 형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문항 번호	정 답	배 점
1	①	2	13	②	2	25	②	2	37	②	3
2	②	2	14	③	3	26	④	3	38	①	2
3	①	2	15	⑤	2	27	⑤	2	39	⑤	2
4	⑤	3	16	③	2	28	④	2	40	⑤	2
5	③	2	17	④	2	29	①	3	41	④	2
6	④	2	18	④	2	30	④	2	42	⑤	3
7	④	3	19	③	3	31	④	2	43	①	2
8	③	2	20	③	2	32	⑤	2	44	③	2
9	⑤	2	21	①	2	33	④	2	45	①	3
10	④	2	22	②	2	34	②	3			
11	⑤	2	23	①	2	35	③	2			
12	②	2	24	⑤	2	36	⑤	2			